



1

199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0. 1호

(루계 507)

◇◇◇◇◇◇◇◇◇◇

차 례

◇◇◇◇◇◇◇◇◇◇

만수축원의 노래	4
천년을 만년을	5
만년장수하시라	6
동방의 태양 김정일	6
소원	7
90 년대의 진군가	8
찬가	9
회령은 기다리건만	10
우리 식 문학건설의 강령적지침	11
빛나는 력사의 언덕에 올라	14
내 한생 따르는 목소리	15
바다처럼 푸르고 굴함이 없이	15
어머님은 오늘도 노를 저어가신다	16
우리 당의 붉은기	16
혁명적공지	17
소낙비	18
교수의 시간표	19
우리는 집을 떠나왔네	26
당의 령도밑에 이룩된 소설문학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27
거인	28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동행자로!	29
우리 식 문학창작을 선도하고 이끌어주는 기수가 되렵니다	29

한편의 글을 써도 시대가 담긴 글을!	30
성실한 현실체험의 해로!	30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알 때	31
90 년대의 대문을 열며	31
금별메달	32
내 조국의 모습	32
하늘	33
심장에 새기는 뜻	34
아, 조선(외 1 편)	35
고향	35
나의 생일	35
나의 노래	37
우리 시대 청년들의 리상과 작가	38
우리의 청춘	42
광복의 천리길이 시작된곳에서	45
초소의 산밭에 해가 솟는다	45
스승의 모습	46
더운 김 피는 땅	47
《조국! 통일!》	55
다음은 어느놈 누구의 차례인가	55
물은 어디서부터 흐르는가	56
예리한 미적감각이 낳은 시인의 정서	57
사랑과 호성	59
내 고향 두메산촌에서	63
열쇠	64
행복에 대한 생각	72
력사적사실에 대한 감명깊은 예술적전형화	73
길성포의 노래	78
《소조림》	80

만수축원의 노래

송명근

간절히 지어 올린
많고많은 노래가
솟고 지는 해 감돌아흐르고
천으로 만으로 모아올린
절절한 소원이
가고 오는 세월에 깃들어있어

우리의 심중에
더 깊어지고
더 뜨겁게 불타오른것은
한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 수령님
더 잘 모시고싶은, 더 잘 받들고싶은...

천세 만세
무궁토록 모시려
지극한 자식의 마음된 그 효성이
쌓이고쌓여 날과 달을 이루고
그 날과 달이
이 땅우에 흘러갈수 없는
락원의 기념비로 솟아오른
80년대였습니다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10대에 헤치신
혁명의 그 한길우에서
환갑도 맞으시고
커가는 인민의 기쁨이
가장 큰 락이라 하시며
진갑나이를 넘으시여서도
쉬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

그리도 환한 수령님 미소를 위해
서해갑문 20리 날바다도
단숨에 길들인 우리였습니다
창가마다 꽃피는 인민의 웃음속에
세월을 되짚어 나날이 젊으시라고
창광거리, 광복거리, 청춘거리...
저 하늘의 은하수를
이 땅우에 펼쳐드린 우리였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만시름 다 푸시고
만년장수하시라고
5월 1일경기장의 황홀한 대화폭으로
순천의 티없는 비날론숨으로
수령님을 모셔온

충성과 효성으로 밝고 저문 80년대였습니다

아, 푸름푸름 새벽하늘이 열려옵니다
장엄한 90년대의 해돋이가 시작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어버이수령님을 받드는 한마음
위훈으로 빛나고
재부로
우리의 행복으로 쌓여지고 높아질
새 년대입니다

아, 오로지
수령님 길이 모실
만수축원의 노래는
우리 드리고싶은
만수축원의 노래는

비날론 무지개를 피워올리며
흠뻑 단식을 두드리며
온 나라 크고작은 공장에서 울려퍼지는
만부하 만가동의 기대소리
새로 삼을 박는 건설장에
울리고 또 울려퍼질 조업의 환호소리
태어나는 아이들... 늘어나는 간석지...
저 높은 령마루우에
세상을 굽어보며 살
우리 인민의 값높은 행복입니다

어버이수령님 가시는 길에
어버이수령님의 기쁨으로
행복의 무지개를 펼칠수 있다면
우리 무엇인들 못하오리까
한알의 낱알도 주먹만큼 여물리고
바라시는 모든것
우리 가슴으로 안아 이 땅에 세우렵니다

진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사회주의 기치를 더 굳게 틀어쥐고
곧장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당을 따라
우리 택한 그 한길로
새 년대의 날과 달을
꼭 채우렵니다
우리 수령님의 기쁨과 기쁨으로!
우리 수령님 받드는 만수축원의 노래로!

천년을 만년을

김영근

어떻게 일하면
아버이수령님 더 기뻐하실가
어떻게 모시면
아버이수령님 더 젊어지실가

잠결에도 이 생각
꿈결에도 이 생각
인민은 오직
이 하나의 생각으로 가슴불태웠나니

얼마나 환희로운가
수령님 따라 백년을 젊어진 이 강산에
새 희망 노을로 펼치며 밝아온
90 년대의 이 첫 아침은

흘러간 80 년대에
거룩한 자욱 누리에 새기시며
친선의 꽃바다 펼쳐주시고
락원의 이 땅을 만방에 펼쳐
민족의 존엄을 빛내여주신 수령님

아, 년대는 바뀌였어도
수령님의 미소의 빛발은 강산에 남아
새해의 아침은 더욱 밝아라
우리 당이 이끌어온 80 년대언덕우에
눈부신 대기념비들 솟아오르고
인민은 효성의 꽃으로 활짝 폈나니

아버이수령님의 기쁨은
갑문이 솟아오른 20 리 바다우에
푸른 물결로 파도치고

해빛같은 미소는
순천의 은빛지붕
광복거리 저 밝은 창가에 머물러있어라

꽃물결로 설레며 환호하는
세계의 청춘들 머리우에
평양의 하늘아래 날리는 만국의 기발우에
높이 손저어주시던 태양의 미소가
누리에 가득찼어라

우리 당을 받들어
영광으로 빛나는 80 년대!
수령님께서 기쁨속에 젊어지시고
수령님 따라 강산도 젊어진 80 년대!
아, 이 자랑스런 년대를 넘어
우리 맞이한 90 년대는
그 얼마나 밝고 희망찬것인가

오늘의 이 행복을 안고
오늘의 이 환희를 안고
수령님 열어주실
새 세기의 꽃대문을 남먼저 들어서리
공산주의 아침노을을 남먼저 맞으리

아, 만민의 태양
아버이수령님
무궁한 세월우에 영원할 자주의 봄을 위해
길이 모시리, 길이 받들리
천년을! ...
만년을! ...

만년장수하시라

마리오 에프, 베지나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 주석
당신의 만년장수 축원하나니
그것은
고매한 덕성과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당신께서 언제나 향도의 손길 펼쳐주시기때문이
여라
당신은 조선인민의 자랑이시며
조선인민의 심장이시며
조선인민의 님이시기때문이여라

영웅이시기때문이여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당신의 만년장수 축원하나니
그것은
당신을 혁명과 건설의 영재
조선로동당의 힘과 사상 발전의 상징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의 상징으로 우러르기
때문이여라

자애로운 수령 **김일성** 주석
당신의 만년장수 축원하나니
그것은 당신께서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온 세계를 휘황히 밝혀주시기때문이여라
당신은 빛나는 예지와 인민의 념원을 체현하신분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오 친근하고 영명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내 삼가 축원하옵니다
당신께서 만수무강하시옵기를
(필자는 말파 시인임)

동방의 태양 김정일

니싸르 나씨크

오 동방의 태양
그이 영광의 빛 뿌리어
천대받고 억압받는
인민들의 앞길 밝히시네
오 동방의 태양 솟아올랐기에
조선과 온 세계는
기쁨 찾고 영원한 행복 받아안았어라

인류는 공산주의 지향하나니
그이의 탄생으로 그 걸음 다그쳐지고
그 앞길에 해빛넘쳐라
그 태양
온 누리에 드리운 어둠을 몰아내고
더더욱 높이 솟아오르리라
그 태양 주체의 빛발로
제국주의의 발굽밑에서 인민들을 해방하고
세계에 밝은 빛 비쳐주리라

동방의 태양
항일혁명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탄생하신
그이

전쟁의 불길로 재더미로 되었던
조선을 빛내이시었나니
전쟁과 복구건설의
엄혹한 투쟁속에서
령도의 천재로 세련되시고
오늘은 주체사상의 기치 높이 드시였어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따사로운 사랑속에 성장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예술을
그대로 이어받으시였어라
그이께서는
우리 시대 사상의 상상봉 주체사상을
온 누리에 퍼지게 하시여라

그렇다
동방의 태양
그이는 **김일성** 동지의 후계자
평화와 번영의 영원한 수호자이시여라
(필자는 파키스탄 시인임)

소원

류인옥

눈이 내린다.
 첫눈이 내린다.
 가지마다 흰꽃 핀 파원의 바다, 눈이불을 포근
 히 덮고 연연히 뻗어간 산밭, 그 어디를 둘러보
 아도 은빛세계 눈부신 설경이다.
 지금은 노을이 피는 이른아침,
 나는 눈길을 걷는다.
 문득 숲눈길우에 새겨진 자욱앞에서 나는 걸음
 을 멈추었다.
 큰 자욱옆에 나란히 찍힌 꽃잎같은 자욱,
 두 갈래의 길이 합쳐진곳에 이르니 발자욱은
 늘어났다.

《!》

나는 가슴이 몽클해움을 느낀다.
 이 길은 우리 마을 사적터로 가는 길이다. 바
 라보니 전망대가 높이 솟은 사적터에서 눈을 쓰
 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러고보면 나 또한 사적지로 가고있는것이다.
 희고 부드러운 눈송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정
 화시키는 재간을 지닌듯싶다.
 나는 생각을 이어간다.
 이렇게 눈내리는 날이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어린 아이없이 떨쳐나 사적터의 눈부터 쓴다. 이
 뿐이 아니다. 설날이나 뜻깊은 명절이 와도 집안
 에 경사가 생겨도 여기를 먼저 찾는다.
 아마도 이것은 스무해전 비내리는 봄날, 위대
 한 수령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시였던 그날로부터
 시작된 이고장의 새 풍속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무릇 풍속은 즐기는데로부터 이어져왔고 그것
 은 소원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이다.
 지난날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많았
 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내리는 날 주린 배를 안
 고 언손을 입김으로 불어가며 지주집 빨래를 할
 때 나의 할머니는 간절히 바랐었다.

날리는 저 흰눈송이가 그대로 쌓이고 그대로
 포근한 숨이었으면...하고.

뻐꾹새소리조차 구슬렀던 등판에서 소몰이로
 젊은 시절을 보낸 감나무집 할아버지는 하늘가득
 널려진 구름밭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이랑이랑
 뻗어간 밭이기를 원했다.

그러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소원은 어버이수
 령님께서 찾아주신 해방과 더불어 봄날의 눈석이
 려럼 풀리었다.

구수한 흙냄새가 가슴가득 서리여드는 분여받
 은 땅, 그 땅이 꺼지도록 주렁지는 풍년열매, 고
 래등같은 기와집... 살림은 날과 함께 늘어나고
 행복과 기쁨이 줄지어 찾아들었다.

삼촌과 고모가 대학생이 되던 날 나의 할아버
 지와 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다 그만 우시였
 다.

《장군님 덕분에 평생소원이 풀렸구나!》

삶에 대한 소박한 념원만이 아닌 꿈에서조차
 바랄수 없던 크나큰 행복이 현실로 펼쳐졌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서 누구나 다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한 생활
 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눈내리는 이 아침, 나의 눈앞에는 진눈까비 날
 리던 삼석의 언덕이 솟아오른다.

그날 물이 없어 논농사를 못짓는 이고장 인민
 들의 고통을 헤아려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썸
 터를 찾아보자고 하시며 몸소 땀을 흘리고 길
 아닌 골짜기를 헤쳐가시였다.

이젠 그만 내려가시자고 거듭 말씀올리는 일군
 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동무들이 내가 눈을
 맞아가봐 그러는 모양인데 나는 산에서 싸울 때
 이보다 더한 눈길을 헤치며 행군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하시면서 나는 동무들이 이따만 먹을
 수 있다면 이런 눈비를 얼마든지 맞겠다고 뜨겁
 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질 뜻깊은 이 말
 씬!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날에 찾아주신것이 어찌
 《뽕벌저수지》자리만이라.

항일의 긴긴세월 백두산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이 강산에 락원의 봄을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
 만경대고향집의 사립문에서 시작된 혁명의 길을
 오늘에도 아니 멈추시고 인민들에게 꽃피는 봄날,
 열매무르익는 가을만을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인
 민의 어버이,

우리 인민은 세상에 부러움을 모르는 행복한
 인민이다.

평생의 소원을 다 푼 행복한 우리 인민은 오늘
 더없이 크나큰 소원을 품고산다.

어버이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
 고 영원한 청춘을 드리고싶은 인민의 한마음!

이 소원을 안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이 아침
 숲눈길우에 축원의 마음을 새겨가는것이 아닌가.
 눈이 내린다.

새해의 첫눈이 내린다.

내 가슴에도 뜨거운 소원을 심어주며 함박눈이
 내린다. 내려쌓인다.

90 년대의 진군가

박명도

수령님이시여!

다시 또다시 귀기울여 들어봅니다

밝아오는 90 년대 첫 아침에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신년사

승리의 희열

불굴의 기상 차넘치는

당신의 장엄하신 그 음성에서

우리는 력력히 듣습니다

조국의 하늘에 차넘치는 진군가소리를

미제의 핵구름은 질어만가고

어지러운 바람이 불어친대도

주체사상탑 찬란한 내 조국땅에는

눈부신 기념비들 하늘로 치솟고

경탄의 환호성은 우리에게 넘치거니

그것은 정녕 당신께서

주체위업의 진두에 서계신때문

그때문이 아니옵니까

평화를 원하는 세계의 청춘들이

당신의 품속에 와 안긴것이

정녕 그때문이 아니옵니까

지구를 돌아 찾아온 《통일의 꽃》이

죽음의 분계선을 웃으며 넘어선것은

아! 길 잃은 사람에게는

길을 밝혀주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힘을 안겨주며

백두의 그날부터 오늘 이때껏

주체혁명위업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령장 **김일성** 동지

이 아침 펼치신 신년사엔

통일된 조선의 래일이 비껴여있고

이 아침 수령님 그 안광엔

이 땅우에 찬란히 꽃필

공산주의락원이 어려있나니

솟아오른 저 태양도

제일 먼저 비쳐드는 이 땅

수풀처럼 일떠선 은빛 철탑들에

새해의 해빛이 찬란합니다

오! 90 년대의 첫 아침

우리에 울려퍼지는 수령님의 신년사

그 장엄한 진군가앞에

핵구름은 물안개처럼 가시여지고

주체의 해발은 더욱 찬란히 빛발치리

그 승리 바라볼수록

조선사람된 긍지 가슴에 넘쳐

이 아침도 온 나라는 발맞춰갑니다

90 년대 진군가 따라 지축을 울리며

통일될 조국을 향해

2 천년대의 희망봉으로 나래쳐오릅니다

찬가

변홍영

위대한 손길이 보입니다
흘러가는 년대
마주오는 세기우에
높이 드시여
창창한 앞날을 가리키시는
그 손길

민족의 영광을 떠이고
창공높이 솟아오른 대기념비들앞에서도
그 손길이 보입니다
복받은 인민의 삶이
창가마다 만발한 새 거리를 거닐어도
그 손길이 안겨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잊을수 없는 그날
들뛰는 파도, 솟아오르는 갑문언제우에서
환호에 목메인 병사들에게
환히 웃으시며 손을 저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손길을
나도 목메여 우리렸습니다

그때부터인지 내 마음속에는
그 손길이 뜨겁게 간직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땅 가는곳마다
놀랍게 펼쳐지는 그 모든 변혁을
내 한가슴에 안아볼 때면
거룩한 그 손길이 보여옵니다

눈보라속에 철길을 늘어가는
협준한 북방의 협곡에서도
나는 보았습니다
청춘들을 위훈으로 부르시는 그 손길을
순천땅에 솟아오르는 은빛탑들과
광복거리 일어서는 고층살림집들앞에서도
나는 우리렸습니다
빛나는 래일을 약속해주시는 그 손길을

아, 그 손길 아니면
없었을것입니다, 대건설행군길우에
나래쳐오른 조국의 번영기도
일심단결로 누리를 떨치는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도

그 손길 아니면
어버이수령님 모신 대회장에서
연단을 적신 숨은 영웅의 그 눈물이
그처럼 아름다운 구슬로
만사람의 가슴에 넘쳐날수 있었겠습니까

그 손길 아니면
천만대오앞에
해불을 들고 나아가는 저 로투사
피흘리며 헤쳐온 우리 혁명의 앞길에
찬란히 비껴오는 승리의 노을을 바라볼수
있겠습니까

하어 그 손길 우리르는
내 가슴속에선
걱정의 웨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노래했습니다, 가는곳마다
존엄높이 일어서는 내 조국의 모습을
행복이 주렁지는 우리의 생활을
곡절많은 인생에도 안겨지는 해빛
새로 태어나는 새 삶의 환희를...

그렇습니다, 내 어찌
친애하는 그이께
온 인민이 드리고
시대가 올리는
찬가를 아니 엮으리까
내 당의 품에 자라
희망의 하늘을 한껏 나는 가수이거니

아아, 내 오늘도 그 손길 우러러
찬란한 조선의 앞날을 봅니다
불어치는 바람속에서도
주체의 기치를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 혁명의 승리의 래일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가슴속에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노래가 넘쳐나는것입니다
한생토록 불러도 끝맺지 못할
우렁찬 찬가가 울리고있는것입니다!

회령은 기다리건만

1974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발기로 혁명의 성지 왕재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대기념비건설사업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때의 일이다.

그해 5월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기념비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기 위하여 평양을 떠나시였다.

그이를 모신 렬차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동해의 기슭을 따라 힘차게 달렸다.

어느덧 청진, 고무산을 지난 렬차가 회령땅에 들어서고있을 때였다. 동행한 일군들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이번 기회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회령에 꼭 모시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던것이다.

한 일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이께 정중히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다음 도착할 역이 회령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시며 《회령!...》 하고 조용히 되뇌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회령이라는 말씀을 외우시며 잊지 못할 추억을 더듬으시는듯 깊은 명상에 잠기시였다.

회령! 그곳은 그이께 있어서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 안기시여 만경대와 더불어 그려오시던 마음의 고향이였다.

어머님께서 탄생하시여 일제놈들과 지주놈들의 갖은 천대와 박해를 받으시며 어린 시절을 보내신 회령! 봄마다 백살구꽃 만발하는 오산덕의 추녀낮은 집은 어데이고 어머님께서 소녀시절 산나물을 캐시며 오르내리시던 양지바른 언덕은 어데이며 피눈물을 뿌리시며 건느신 두만강의 망양나루는 어데인가. 마음갈아서는 한달음에 달려가 그 모든 소중한것들을 그리안고 오면 세월 가슴깊이 묻어둔 회포를 한껏 푸시고싶었다.

진정 회령땅은 그이께 있어서 꿈결에도 잊으신 적이 없는 땅, 어머님께서 계시지 않기에 어머니를 대신하여 더더욱 한시바삐 찾고싶은 마음의 고향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차창밖을 바라보시며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일군들은 회령역이 가까와질수록 초조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한 일군이 또다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간절히 청을드렸다.

《이번 기회에 잠시라도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벼이 머

리를 저으시며 아니라고, 지금은 청년건설자들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차안을 천천히 건너시다가 일군들에게 기차를 세우지 말고 곧바로 왕재산혁명사적지 건설장으로 가자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서서히 역구내에 들어서던 렬차는 다시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은 복받치는 걱정애 가슴이 뜨거워올라 그이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다시 천천히 차장으로 다가서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회령의 산밭이며 높고낮은 언덕들, 읍거리의 아담한 집들이며 키높이 자란 나무들, 모든것이 정다운 어머니의 고향산천을 감회깊이 바라보시였다.

물결처럼 흘러가는 회령음을 바라보시며 움직일줄 모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은 그지없이 숭엄하였다.

일군들은 그이를 우러르며 눈시울을 적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한 사업을 이 세상 모든 일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일로 생각하시며 그것을 제일 첫자리에 놓고 지척에 둔 어머니의 고향 방문을 뒤로미루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의 그 숭엄한 품모양에서 어찌 울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렬차는 역구내를 멀리 벗어나고있었다.

이 시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려고 역에 나와있던 회령사람들도 렬차가 그냥 지나자 약속이나 한듯 철길을 따라 달리며 지도자동지를 목매여 부르고 또 불렀다.

오매에도 그리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한순간만이라도 회령땅에 모시고싶은 간절한 소망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에서였다. 렬차는 잊지 못할 그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하는듯 은은한 기적소리를 울리며 저 멀리 사라졌다.

그리운 어머니의 고향과 회령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뒤에 남기시고 왕재산에 이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길로 대기념비건설의 터전도 새로 잡아주시고 사적지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며 현지도에 몸을 잠그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의 이러한 뜨거운 충성심으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왕재산, 보천보, 포평 등 항일의 나날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발자취가 어린 모든곳에 대기념비들이 거연히 솟아나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우리 식 문학건설의 강령적지침

최상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에서 위대한 전진을 이룩한 위훈의 년대, 주체적인 우리 식 문학의 위력을 과시한 영광의 80 년대를 마감짓고 주체혁명위업과 우리 문학발전에서 더욱 찬란한 전망이 펼쳐지고있는 90 년대의 문어구에 들어서는 력사적인 시각에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발표 1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1980 년 1 월 8 일 조선작가동맹 제 3 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는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다그쳐지고있는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맞게 우리 문학을 더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강령적인 로작에서 우리 나라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고 온 사회에 충성의 열정과 전투적기백이 흘러넘치는 일대 혁명적앙양의 시기에 처하여있으나 문학작품들이 그에 상응하게 형상수준을 높이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심오히 분석하시고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사상미학적문제들에 새로운 해명을 주시었다.

고전적로작은 창작에서 작품의 생명을 담보하는 사상적핵이며 그 가치를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인 종자를 똑바로 잡을데 대한 문제,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문제와 특히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문제를 우리 문학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문학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는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란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를 말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이 고전적가르치심에는 작품에서 철학적깊이는 어느 한 고리에서만 보장되는것이 아니라 종자의 선택으로부터 언어구사에 이르는 창작과정의 총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심오한 사상이 깃들여있다. 그리고 창작과정의 총체를 이루는 그 매개 고리들이 작품의 철학성을 담보하는데서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이 명백히 밝혀짐으로써 작가들로 하여금 창작실천에서 이를 적극 구현해나갈수 있는 확신을 가질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울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문학예술창작에서 철학적깊이가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질적특성에 관한 문제임을 밝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과학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철학적심오성에 대한 리론을 완결된 문예학적범주로 체계화하시었다. 이것은 문학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계 결함시킬데 대한 리론을 새롭게 심화발전시킨것으로서 문학의 인식교양적의의를 끊임없이 높여나갈수있는 넓은 전망을 열어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것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로 우리 문학을 올려세우는데서 근본문제로 보시고 작가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울데 대하여서와 혁명적독서기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특히 현실체험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그 실천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는데서 작가의 창작적사색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에 대하여 심오하게 밝혀주시었다.

창작은 사색의 과정이며 작품은 사색의 산물이다. 작가의 창작적사색은 머리속에 우연적으로 떠오르는 그 어떤 《령감》이 아니라 작품창작을 위한 작가의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탐구과정이며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의 구체적인 반영이다.

철학적심도가 있는 작품은 깊은 창작적사색을 전제로 하며 반대로 사색의 빈곤은 작품의 철학

적빈곤을 가져온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적사색의 본질과 그가 노는 역할 및 의의를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해명해주심으로써 작가들의 적극성과 창조성, 능동적역할을 비상히 높일수 있는 명확한 길을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창작과정을 작가들의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문제와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작가들은 창작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창작에 구현하여야 당적작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당의령도를 옹계 받아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참다운 주체문학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준 휘황한 등대이다.

고전적로작은 창작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 작품의 철학적깊이와 창작적사색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사상미학적문제들에 독창적인 해명을 주고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의 본질과 그 합법직성을 밝혀 혁명적문학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줌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역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불멸의 기치로 된다.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80 년대의 역사적진군을 시작하던 때에 우리 문학의 앞길을 밝혀준 고전적로작은 지난 10 년간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여 주체적인 우리 식 문학의 위력이 뚜렷이 발휘된 80 년대의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오늘 우리 문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우리 식 문학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고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를 훌륭히 개척해나가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혁명적수령관, 인생관 확립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체의 작품들로 더욱 풍만하게 장식되고있다. 그리고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철학적깊이가 보장되고있으며 그사상미학적감화력이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다.

이것은 지난 10 년간 작가들의 전반적수준이 높아졌다는것을 말해준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당사상전선의 초병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는 자각이 높으며 창작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있다.

이 모든것은 주체적인 우리 문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며 90 년대의 보다큰 성과를 전망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주체적문제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온 80 년대 문학창작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식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확고히 올려세워야 할 무겁고도 중요한 임무가 놓여있다.

문학은 문학으로써 혁명에 복무하여야 한다. 문학은 시대의 지향과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의 완벽한 통일을 보장함으로써만 당의 사상적무기로서의, 사명을 적극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우리 문학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현시기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더욱 높은 단계에서 수행되고 인민들의 미학적요구가 나날이 높아가는 사회주의현실의 필수적인 요구이며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 올라서야 할 우리 문학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다.

문학을 문학으로써 혁명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는 창작의 주인인 우리 작가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혁명적본분, 높은 자각과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는것이다.

작가는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옹호고수하는 사상전선의 기수들이며 문학작품창작을 통하여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혁명가들이다.

우리 문학은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강화하는데 복무하는 문학이다. 다시말하여 우리 문학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인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우리 인민의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주체의 문학이다.

인류문학예술발전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는 주체적인 우리 식 문학은 작가들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에 기초한 높은 창작적열정에 의해서만 발전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복

무하는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깊이 간직하고 사상에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창작적열정과 사색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 작가들은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면 당파 혁명에 더 잘 이바지하겠는가 하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창작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작가에게 있어서 창작적기량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창작적기량이 없으면 작가로서의 사명은 이미 끝났거나 다름이 없다. 누구도 대신해줄 수없는것이 창작이며 작품은 작가의 사상미학적 준비의 반영이다.

당이 요구하는대로 우리 문학의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가들의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아직도 우리 문학작품의 전반적인 형상수준이 높지 못하고 철학적깊이가 보장되지 못하여 응당한 감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것과 같은 일부 부족점이 있는것은 전적으로 작가들의 창작기량에 기인하는것이다.

모든 작가들은 창작기량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작가들은 언제나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사색하기 싫어하고 새것을 탐구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작가는 창작기량이 높아질수 없으며 10 년이 가도 특색이 있고 깊이있는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잠자는 시간을 내놓고는 사색하고 사색하고 또 사색하여야 하며 창작적탐구와 사색으로 생활을 일관시켜야 한다.

작가들의 사상미학적준비를 잘 갖추며 우리 문학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데서 현실체험은 근본고리의 하나이다.

최근 우리 당은 작가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하고 창작할때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면서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약동하는 현실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창작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다.

작가들이 현실속에 들어가야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전진운동과 우리 인민의 높은 정신세계를 뜨겁게 느낄수 있으며 그속에서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찾아내어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과 침식도 같이하고 일도 같이하면서 창작하여야 정치적식견과 창작적시야를 넓힐수 있으며 자신을 사상적으로 단련할수 있다. 생활을 성실하게 체험하지 못한 작가가 쓴 작품에서는 손끝의

재간은 알리지만 생활을 긍정하는 뜨거운 심장의 박동은 느낄수 없다. 현실이야말로 우리 작가들에게 생활도 열정도 재능도 다 안겨주는 비옥한 토양이며 창작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다.

모든 작가들은 현실체험을 당의 요구대로 실속있게 하는것이 자신의 사상미학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우리 문학의 형상수준을 높이는데서 근본 문제라는것을 깊이 새기고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배낭을 메고 현실에 들어가 생활을 체험하며 창작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시대를 대표하며 력사발전을 추동하는 명작을 창작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주체적인 우리식 문학의 순결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는것이다. 지금 조성된 정세는 매우 복잡하다. 우리는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식 문학의 혁명적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창작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사소한 이색적인 현상이나 불건전한 요소도 반대배격하여야하며 오직 우리 식대로만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작가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얼마나 튼튼히 무장하였는가에 따라 작품의 사상에 예술적수준이 결정된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문학의 생명이다.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부르조아사상과 수정주의를 비롯한 이색적인 사상의 사소한 표현도 철저히 없애고 창작을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대로 해나갈수 있다.

모든 작가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 주체적문예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주체적문예사상이 가리키는 길에서 한치의 드림도 없어야 한다.

오늘 우리 문학이 당적문학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원만히 수행하는것은 바로 주체적문예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나아가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의 휘황한 등대를 따라 힘있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문학의 전망은 밝고 양양하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실발전의 요구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는 주체적인 우리 문학발전의 강령적지침이며 불멸의 기치이다.

모두다 주체적문예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우리 식 문학을 더욱 빛내어나가자.

빛나는 력사의 언덕에 올라

권강일

파도사나운 날바다우로
렬차가 달리고
무인지경 산발을 흔들며
기적소리 메아리쳐간
전설의 년대였습니다.

거리가 끝난곳에서 새거리가 솟고
아득히 은빛 추녀 높이 들려
내 조국의 하늘땅이 환해진
가장 빛나는 력사의 년대였습니다

생각합니다
무수한 철탑들과 억만의 창문들
푸른 하늘가에 빛을 뿌리는 기념비들은
인민을 위해 기울이시는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이
80 년대와 더불어 더 활짝 피어난것임을

이 땅을 빛내이시고
인민을 더 잘 살게 하시려는 아버지 마음
세월이 갈수록 커만지시여
깊은 밤 이른새벽
또다시 먼길 떠나시는 우리 수령님

바다를 막는곳이면 그 바다우에
새 공장을 세우는곳이면 그 터전에
끓으신 날 다름없이
내리는 찬비도 맞으시며 찾아주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였거니

정녕 흘러온 날과 날
지나온 해와 달로는
헤아릴수 없습니다
이 땅의 한끝에서 한끝까지
견고걸으신 그 자욱을
기울이신 사색의 그 낮과 밤들을

그 어느 년대보다도 어렵고 복잡한 길을
변함없는 신념으로 헤쳐가셨기에

따르는 우리 걸음 흔들림 없고
시작한 걸음 언제나 승리의 언덕에 닿아

일터마다 영웅도 많이 나고
곳곳마다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아버이수령님을 가까이 모신 행복
목메여 영광의 기념사진에
감격에 젖던 나날이었습니다

생각합니다
수령님 모시는 한길에
민족의 장래가 있음을 뜨겁게 느끼며
흠어졌던 동포들이 구름처럼 모여오고
남녘의 민심이 달려와 안기었음을

생각합니다
주체의 화불을 높이 드시고
이 땅 이 인민을 승리로 이끌시는
아버이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온 세상의 경사가 이 푸른 하늘아래
꽃밭처럼 펼쳐짐을

아, 력사도 다는 새겨안지 못할
가슴 넘치는 자랑과 긍지를 안고
이 아침 또다시
새 년대의 새날을 맞노니

아버이수령님께서 이미
저 한끝까지 다 걸어보시고
천백가지 다 헤아려 설계도를 펼친
그것은 곧바로 열린
약속된 승리의 길입니다

걸이온 길에, 달려갈 앞길에
끓어오르는 인민의 한마음
아버이수령님 더잘 모시고
우리 당중앙을 더잘 받들어갈
충성과 효성의 바다는 설레입니다

내 한생 따르는 목소리

량덕모

들으면 들을수록
친근하고
마디마디 뜻이 깊은
그대의 목소리

때로는 쇠소리 울리는
용해공의 숨결이 맥박쳐오고
때로는 흙냄새 풍기는
농장원의 진정이 담겨있어

가만히 새겨보면
내 언젠가 하고싶던 말
그러나 그렇듯
승업한 높이에 이르지 못한 생각
먼 래일까지 내다보라
시원히 퇴워주는 당이여!

인민이 살며 일하는곳
어디서나 주고받는 수수한 말들
그대 사색을 거치면
그것은 벌써
천만심장을 부르는 기발
우리를 밝히는 화불

잠결에도 귀에 익은
그대의 목소리
주저없이 동요없이 따랐기에
진펄길도 우리 힘으로 건넜고
험한 령도 궁지높이 넘어오지 않았던가

그대 하라는대로 하면
백번 천번 승리한다는것을
우리 해놓은 일이 증명해주더라
날바다를 가로지른 갑문이며

순천땅의 대비날론기지
저 자립의 무수한 공장과 철탑들이...

누가 무어라 해도
그대 하라는대로 하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음을
생활의 철리로 새겨주더라
벌에 가면 만풍년의 난알이
방선에 가면 철벽의 요새들이...

시련침침한 혁명의 길
나라가 흥하고
인민이 행복할 근본을 가르쳐주는
당이여, 그대의 목소리
천길땅속에 있던들
하늘끝에 가있든들 알아듣지 못하랴

오, 그대의 말은
순간도 잊으면 살지 못할
우리 삶의 유일한 신념

하기에 부드럽고 조용한 때조차
나에게는 명령,
잘못을 두고 꾸짖을 때조차
나에게는 사랑

안아키워주는 어머니음성을
가장 기쁘게 가려듣는 어린 아이처럼
내 한생토록 따르리라!
당이여,
이 세상 오직 하나
그대의 목소리
영원한 진리의 목소리를

가사

바다처럼 푸르고 굴함이 없이

심봉원

수평선 저 멀리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그림던 지도자동지
설레는 파도우에 해빛뿌리며
이른아침 우리 함 찾아오셨네

노을비긴 군함기 펄펄 날리는
갑판에서 사진도 찍어주시네

오각별 포신도 만져보시며
격량도 헤쳐나갈 용맹주셨네

언제나 못잊어 그 사랑 못잊어
끝없이 설레는 해병의 마음
바다처럼 푸르고 굴함이 없이
친애하는 그이를 위해 싸우리

어머님은 오늘도 노를 저어가신다

최병원

신과나루터 모래불에
작은 나루배
바람이 세차도 강물이 불어나도
그날의 나루배 물위에 떠있는듯

바라보면 배머리에 앉으셨던
김정숙어머님 노젓는 소리
원호물자 신고가던 어머님의
그 숨결도 들려오는듯...

밀영으로
유격구로 이어졌던
그 배길은 끝났어도
나는 지금 저 물결우에
노젓는 어머님 손길을 본다
세월이 가도 다 부리울수 없는
위대한 뜻이 저 배우에 실려있음을 생각한다

어서 타라고
어서 오르라고
꽃피는 언덕으로 더 멀리 어서 가자고
다정히 손잡아이크시며
배는 처절씩-물결우에 떠실렸는가

그날처럼
항일의 날

원호물자 실어나르던
그 나루배에 우릴 신고
어머님은 오늘도 노를 저어가시누나

아, 어머님은 항시 배를 몬다
물결은 사납고 비바람 사나워도
어둠에 묻힐 때 있고
눈석이 얼음장 떠내릴 때 있어도
위대한 태양이 가리키는
오직 그 한 배길로
천만 전사들을 이끌어가는
어머님은 혁명의 조향타를 잡은 기수

그래서 나는 이 작은 쪽배를 보며 생각한다
배는 작아도 마치 배고동소리 울리며
배는 작아도 마치 충성의 항로를 열며
이 땅에 태어나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충성의 대양으로 노저어가시는 어머님을 본다

신과나루에서 울린 그 닻은
내리지 않았다
우리 가야 할 혁명의 배길은
끝나지 않았다
조국땅엔 행복의 웃음 꽃피고 노래넘쳐도
백두의 행군길로 우릴 이끌어
어머님은 오늘도 노를 저어가신다!

가사

우리 당의 붉은기

안정기

우리의 붉은기 로동당 기발엔
반세기 눈보라와 포연이 스며있다
기수가 쓰러지면 또다음 기수들
끝까지 넘겨주며 피로 물들었다

높이 들고 나가자 당의 기발을
태양이 빛나는 푸른 하늘에

이 기발 없이야 저 하늘 푸르랴

우리 당 없이야 이 생명 빛나라
불비가 쏟아지고 폭풍이 일어도
성스런 이 기발 내리우지 않으리

이 기발 휘날려 새 세계 펼치고
이 기발 지키여 영원히 살리라
수령님 손길따라 우리 당의 기치따라
공산주의 희망봉에 남먼저 오르리라

혁명적금지

문재건

혁명하는 사람에게서 중요한것은 혁명적금지를 가지는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신봉하는 사상과 리상, 목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당한가, 자기가 한몸바쳐 투쟁하는 그 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크나큰 금지를 가지는가 하는데 따라 투쟁의욕도 부풀고 열정도 생기고 창발성도 발휘되는것이다.

혁명적 금지와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일신을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먼저 혁명을 생각하며 인민의 리익,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필요하다면 육체적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강 의지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혁명적 금지와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투쟁을 포기하게 되고 자기의 계급적립장과 인간의 의리마저도 켜버리고 자주성도 창조성도 없는 무기력한 속물로 전락되고만다.

때문에 우리는 금지에 대하여 언급하는것이며 금지를 론하는것이다.

공산주의적인간학, 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리론인가.

우리 작가들은 이 위대한 공산주의적인간학에 관한 사상리론을 자기 창작의 지침으로 삼고 보람찬 창작의 붓을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문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서만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시대의 인간문제를 진정한 인간학의 경지에서 올바르게 밝혀낼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창작실천을 통하여 체득하였다.

우리는 문학작품에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의 전형을 그리고있다.

우리의 문학은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적인간학을 구현하고있다.

때문에 우리의 문학작품마다에는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주체가 선 인간형상들을 창조하였으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변혁해나가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속에서 우리 문학은 언제나 혁명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으며 또 앞으로도 온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에 충실할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문학이 인간을 위해 복무할진대 자기 민족, 자기 인민, 자기 당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지 못한

다면 그것이 어찌 인간학이 될수 있겠는가.

우리는 얼마전에 한 외국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적이 있었다.

그는 자기 나라의 문학실패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라 작품들에는 지금 지난날의 문학작품들에 대한 허무감이 강하며 별의별 작품들이 다 쏘어나와 어느것이 진짜 문학인지 갈피를 잡을수 없다고하였다.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건전한 문학을 무시하는 그런 문학이 과연 인민의 참된 리익을 옹호할수 있으며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할수 있겠는가.

그런 문학이 별별 허울을 다 쓰고 부나비처럼 우리앞에 나타나 얼른거린다 해도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대상도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이 밝혀준 공산주의적인간학 주체문학의 휘황한 등대가 있다.

금지를 가지자. 금지를 안고 살자.

우리는 그 어디를 넘겨다보거나 그 누구한테도 결눈을 팔 생각이 없다.

원래 신념이 없고 자기것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이 없는자들, 허무주의자들은 남의것은 무력대고 다 좋다고 하며 제것은 나쁘다고 하기마련이다.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을 잘 알고 열렬히 사랑하며 혁명적자부심이 강한 작가는 결코 남의것을 무력대고 좋아하지 않으며 가장 숭고한 리념을 가지고 정의의 필봉을 억세게 틀어잡고나간다.

자부심을 가지자. 자부심을 안고 주체의 필봉을 높이 추켜들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에 주체문학건설에 관한 심오한 사상리론을 창시하시였으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문학건설의 완성을 위한 리정표이며 대백과전서인 **《영화예술론》**을 비롯하여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로 우리의 앞길을 찬란하게 밝혀주시고 몸소 진두에서 우리 작가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나다.

행복이라면 이런 행복, 영광이라면 이런 영광을 안고 창작사업을 하는 작가들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는가.

한없이 자애로운 그 손길아래 우리는 70 년대와 80 년대에 문학의 대전성기를 마련하였고 오늘 신심과 용기드높이 90 년대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짚었다.

우리는 가슴을 쪽 찢고 온 세상에 긍지높이 자랑한다. 가장 복받은 대지위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공산주의문학의 대화원을 꽃피우노라고...

언제, 어디서 그 어떤 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공산주의적인간학-주체문학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조국이 제일이고 우리식대로 살며 창작하는것이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한 주체조선의 작가들이다.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뜨겁게 느낄 때 우리는 혁명적인 작가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적인간학의 보물고에 기여할 기념비적결작들로 다가오는, 바야흐로 밝아오는 공산주의 아침노을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할수 있다.

그렇다!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높은 긍지를 가지고 살며 창작할것을 시대적인 사명감으로 자각하고있다.

긍지가 없이는 그 어떤 혁명임무도 성과적으로 해낼수 없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장구한 나날, 한생을 바쳐서라도 기어코 완성해야 할 주체혁명위업의 성스

런 길에 나선 우리에게 있어서 긍지보다 더 귀중한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의 앞길이 탄탄대로라면 무엇때문에 혁명이라 하겠는가. 어렵고 복잡한 모든것을 제힘으로 풀어나가면서 자욱자욱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간고한 사업이기때문에 혁명이라 하지 않는가.

혁명적긍지와 자부심을 열백배로 지니자. 하여 달아오른 그 심장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의 길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긍지로 차넘치게 할 명작들, 생활의 교과서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

혁명적긍지는 승리에 대한 신심에 기초하고있다. 신심이 없으면 혁명적신념이 있을수 없고 삶의 긍지와 자부심을 생각할수 없다.

해쏜는 1990 년대의 이 아침!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기약하는 이 아침!

우리는 긍지로 부푼 가슴 한껏 헤치고 세상에 대고 웨친다.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의길에서 당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하여 공산주의아침노을을 남먼저 맞으리라! ...

소낙비

김남걸

땅을

마른 땅을

마구 두드리며 내린다

소낙비 소낙비

땅속에 숨었던 벌레

후닥닥 놀라

땅밖으로 뛰쳐나와

락수에 휘말려 강으로 떠밀려간다

파르릉-

천지를 들었다놓는 소리

회오리치는 광풍 칼끝처럼

비방울에 날을 세운다

청청한 가지에

누렇게 뜬 나무잎 하나

비줄에 맞아 태를 치다 떨어지니

굳니는 물결에 감긴다

시인아, 이내 심장 시인아

너 땅의 뜻 새겨안고

시대의 가수가 되어

억만의 가슴들 것처럼 격동시켜봤던가

너의 펜끝에서 떨어지는 잉크

단 한방울이라도 소낙비 되어

천만일새에 앓은 먼지

숨어있는 오물까지도 씻어버린다면

그러면 그러면 시인아 너 느끼리

소낙비지나간

청신한 숲의 향취를

너의 잉크로 더더욱

아릿다워진 산촌의 모습을

교수의 시간표

방하일

저물녘에 장흥을 떠난 최정우는 날이 아주 캄캄해서야 직두천 독에 올라섰다. 40 리길을 내쳐 걸은 그는 잠시 숨을 돌리며 제철소가 자리잡은 바다기슭을 바라보았다. 오전까지 잠잠하던 날씨가 저녁무렵부터 갑자기 바람이 터져 제철소지구는 온통 눈보라속에 잠겼다. 얼음조각처럼 찬 눈가루가 얼굴을 아프게 후려친다.

최정우는 부지중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5 리길을 더 걸어야 한다는 생각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오늘아침 선아로부터 친구립선생이 헛소리까지 치면서 앓는다는 전화를 받았었다.

정우는 불안에 떨리는 선아의 목소리가 온종일 귀가를 맴돌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끝내 반응시험에 대한 종합계산을 마무리 못한채 저녁길을 떠났다. 그것으로 해서 성미가 꼬장꼬장한 선생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겠는가 하는 은근한 걱정이 머리를 쳐들었던것이다.

친구립선생은 《ㄱ》제철법연구조를 책임진 야금공학박사이며 선아의 아버지이다.

최정우가 대학을 다닐 때 친구립은 자주 대학에나와 초빙강의를 하였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대학 1학년때의 첫 초빙강의이다.

수업종이 울림과 동시에 강의실로 들어온 백발의 선생은 흑판에 《주체야금공학》이라는 여섯글자를 써놓고 입을 열었다.

《모두 일어 서시오.》

《? ...》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정쩡한 표정으로 주섬주섬 일어섰다. 그것이 못마땅한듯 이마살을 찌프리고 섰던 친구립은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마치도 무슨 레식이라도 하듯 자못 정중했다.

마침내 창가에 이른 그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학생들...》

엄숙한 얼굴로 학생들을 둘러본 친구립은 맑은 편 야산을 가리켰다.

《저-기를 보시오.》

키낮은 이깔나무들이 촘촘한 봉우리우에 대리석을 깎아 세운 비석이 9 월의 맑은 하늘을 묵묵히 떠받치고 숙연하게 서있었다. 흰눈같이 깨끗한 비석엔 붉은 글자들이 새겨졌는데 거리가 멀어 강의실에서는 점으로 보이였다.

그러나 선생은 뜬금으로 그 글을 읽어주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 대학 (그때는 금속전문학교)의 수업보장을 위해 적기와 용감히 싸우다 희생

된 조선인민군고사포병들이 여기에 고이 잠들다! ...》

학생들은 자세를 바로했다. 강의실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이윽고 친구립선생은 나직한 어조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해방후 첫 걸음을 땀 우리 주체야금공학은 그처럼 가렬처절했던 전쟁시기에도 자기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시다...》

그때로부터 여러달이 지나간 어느날 친구립선생의 두번째 강의시간이였다.

공교롭게도 간밤에 잠을 설치였던 정우는 깜박 졸았다. 옆에 앉았던 선아가 펜촉끝으로 손등을 찌르는바람에 눈을 번쩍 떴을 때 선생의 곳곳한 눈길로 그를 똑바로 향해있었다.

순간 정우의 뇌리에 제일먼저 떠오른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생각보다 푸른 야산우의 비석에 새겨있는 글발이였다. 어쩐지 선생이 그 비문을 상기시키리라는 예감이 들었던것이다. 언젠가도 수업중에 존 누군가를 그렇게 《처벌》하였었다.

그러나 선생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측은한 눈길로 그를 바라볼뿐이였다. 그 눈빛속에 어찌나 서글픔이 비졌던지 정우는 자신이 스스로 가엾고 불쌍한 존재로 느껴져 머리를 떨구었다.

《뚜벅 뚜벅 ...》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는 발자국소리가 책상끝으로 다가오더니 앞에서 툭 밟았다.

정우는 일어서라는 말이 없었으나 스스로 일어섰다. 그리고 워낙 체소한 백발의 선생보다 될수록 작게 보이려고 허리를 꾸부정했으나 선생의 목소리는 귀아래에서 울렸다.

《학생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대체 몇 시간이나 산다고 생각하오?》

빈정거림이 조금도 없는 정색한 물음이었다. 옷사람이, 그것도 년령상으로 격차가 심한 로선생이 물을 땀 성실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정우는 인차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선생은 뒤집을 진채 대답을 기다렸다. 대답을 듣기전엔 하루종일이라도 그렇게 킁킁 서있을것 같은 기상이였다.

정우보다 먼저 얼굴을 붉히고 짹짹 매던 선아가 어서 대답하라고 발등을 가만히 밟았다.

정우는 할수없이 더듬더듬 대답하였다.

《사람은 한 70 여년정도는...》

《난 년으로가 아니라 시간으로 물었소.》

매정스럽게 말허리를 자르는 선생을 얼핏 쳐다본 정우는 순식간에 압산하며 고쳐 대답했다.

《18만 시간쯤...》

《머리는 좋구만. 그러나 답은 틀렸소. 밖에 나가 혼자 조용히 다시 생각해보시오.》

선생은 한결을 물러나 그에게 길을 퇴워주었다. 선아의 억눌린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정우는 자기의 대답이 창피할 정도로 차원이 낮다는 생각이 들어 얼굴을 더더욱 붉히며 공손히, 그리고 급급히 강의실을 나섰다.

밖은 마가울 찬비가 구질구질 내리고있었다. 2층의 강의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락수소리가 별스럽게도 서글프게 들렸다.

비물이 함뿍 뱅 누런 락엽들은 땅에 떨어져 까딱 움직이지 않다가도 이윽하여 비물이 고이면 그우로 부평초처럼 동동 떠다녔다.

찬비를 맞으며 그 락엽들을 우두머니 바라보느라니 느닷없이 버드나무는 잎이 나면서부터 잎이 진다는 왕청같은 생각에 더욱 서글퍼졌다. 그런데 선생님이나에게서 바란 대답은 무엇이였을까? ...내가 한 계산이 맞으면서도 틀린 대답이라면 옳은 대답은 그런 실무적인것이 아닐것이다, 그게 무엇일까?

그때 정우의 머리로로 네겹으로 접은 종이쪽지가 나비처럼 나풀거리며 땅에 떨어졌다. 누가 선생몰래 창밖으로 던진것이다.

그는 얼른 쪽지를 주어 펴보았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여있었다.

《사람은 조국에 복무한 시간만큼 산다고 대답하고 들어오세요.》

선아의 필체였다. 순간 정우는 자기의 대답이 유지한 까닭을 비로소 알았다.

《선아! ...》

찬비를 맞고있는 자기를 걱정해주는 선아의 우정이 고마왔다. 그러나 그는 남이 써준 대답을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가고싶지 않았다...

갑자기 무엇인가 판판한것이 발에 걸리는바람에 최정우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이제 조차장을 꿰치르면 제철소지구이다. 거기서 멀지 않은곳의 바다기슭, 제철소가 오랜 세월 뿜어놓은 광재산 밑에 벽도 지붕도 철관으로 지은 자그마한 집... 그 집에서 선생이 살고있을것이며 선아가 속이 한줄만해가지고 아버지를 간호할것이다.

정우는 선생과 선아에 대한 그리움에 앞서 자신의 덜통함에 오만상을 찌프렸다.

대학을 졸업한후 《ㄱ》제철법의 첫 공정인 세멘트점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로 장흥세멘트 공장에 나간지도 거의 1년,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그들이다.

사사를 엄격히 경시하는 선생타이였을까? 아니었다.

정우는 자기보다 몇곱절 더 어려운 연구사업을

맡고있는 선생에 대한 죄스러움에 가슴이 아팠다. 확실히 이 최정우는 덜통하기보다 인간으로서 도리도 없는 사람이다. 선생이 오늘 그토록 심하게 앓는것도 연구조의 제일 젊은 내가 관심을 덜돌렸기때문이 아니겠는가. .

왜서인지 선생결을 떠나던 1년전의 일보다 대학에서 헤어지던 때의 일이 불쑥 떠오른다.

바로 강의실밖에서 찬비를 맞았던 오후였다.

정우와 선아는 나란히 집으로 가고있었다. 비는 때라도 잊은듯 여전히 부실부실 내리었다. 아득히 먼 동쪽하늘의 한 귀퉁이만 빠르게 개이었으나 비발에 가리워 흐릿하게 보이였다.

그들은 우산을 가지고있었지만 쓰지 않았다.

《아직도 아버지를 원망하세요?》

정우는 머리를 저었다. .

《아니, 난 오히려 나자신을 원망했소. 학생이 강의시간에 존다는건 교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오.》

《그럼 왜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존심때문에... 남의 답안지를 보기 시험을 치는것 같았소.》

방긋 웃던 선아가 물창을 헛짚었다. 정우는 비칠거리는 선아의 몸을 바로잡아주었다.

《잘 보구 걸으라구.》

그래도 무슨 생각에 움해서 말없이 걸던 선아는 한참만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아버지 마지막 강의를 하셨어요...》

《으-응?!》

《아버진 <ㄱ>제철법연구를 위해 연구소엔 그만두고 제철소로 영 내려가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정말아니문요. 아마 다음주 이맘때엔 떠나게 될것 같아요.》

정우는 한동안 묵묵히 걸음만 옮겨놓았다.

며칠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가까운 몇해어간에 《ㄱ》제철법을 완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가 있었다. 정우도 전달 받았었다.

《ㄱ》제철법은 우리 식의 새로운 제철법이며 그것의 성공은 현대 야금공업에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신구립선생이 자기 생애에 그 방대한 연구과제를 해낼수 있을까? 이미 환갑나이가 되였고 건강도 좋지 않은 선생이라는데 마음이 걸린 정우는 선아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자원했소?》

선아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연구소에서는 이제 년세도 많은데 후대들을 위한 교재집필을 하지 않겠느냐고 권하더래요. 그러나 아버지 과학탐구에 나이가 무슨 대수냐고 하면서 <로병사 주체야금학교지를 향해 구보랏!> 하고 구령을 쳐달라고 했대요.》

정우는 코허리가 쨍해졌다. 선아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제철소로 가려고 해요.》

《선아도? ...그럼, 대학은? ...》

《공장대학이 있잖아요...여태 홀로 살아오시는 아버지를 도와 조수로 일하면서 배우겠어요. 어때요, 내 생각이? ...》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선아가 아버지를 따라 제철소로 내려가는것은 백번 옳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가 떠나면 자신이 섭섭하다는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던것이다.

그와 선아는 이제 친구림선생이 가게 되는 동해바다가의 제철소마을에서 나서자랐다. 아득한 유년시절 두 소꿉동무는 마을앞의 푸른 동쪽우로 희뜩희뜩 날아에는 노랑나비를 쫓아다녔다. 그러다가도 해저물녘이면 부들부들한 안개가 푸근하게 깔리는 동쪽에 나란히 앉아 제철소의 저녁 노을을 취한듯이 바라보곤했었다.

아름답게 불타는 노을빛이 어린 가슴에 야릇한 정서로 스며들어서인지 선아는 아버지가 지었다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

발벗은 손애야
감장눈이 처녀야
우리 함께
흰 돛배 타고
저 먼바다로 가자
희망의 땅 행복의 기슭으로

《손애란 누구야?》

《울 엄마야... 참 우습지? 울 엄마가 왜 발을 벗었을까?》

《그뎐 못살아 그랬겠지 뭐 .》

《울엄마와 올라버진 정말 먼바다로 가봤을까?... 그 먼바다엔 뭐가 있을까? ...》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후부터 선아는 부모들의 옛 시절 노래를 부르지 않았었다. 그 노래를 부르면 아버지가 몹시 피로와하실것 같아서였다. 그런 선아가 홀아버지와 떨어지겠다고 하겠는가.

그때 진창길을 에돌면서도 선아는 정우의 이런 생각을 짐작했는지 좀 밝아진 목소리로 말했었다.

《내가 제철소로 함께 내려가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거야 뻔하지.》

《어떻게요?》

《넌 한시간에 두시간을 살게 될거라고 했겠지 뭐 ...》

《어마나 어찌면...》

선아는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그는 인츰 시무룩해졌다.

《지금 어머니만 살아계셨으면...》

어머니만 살아있었으면 정은 도시와 학우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뜻이었다.

비가 멎고 어느새 동쪽하늘에 돌기 시작한 별들이 차츰 뚜렷해졌다. 그 별들을 바라보던 선아는 한숨을 내그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아버진 연구사업 하나밖에 몰랐어요. 언젠가 내가 그냥 홀로 사시겠는가 물었더니 아버진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가로저었어요.

〈내가 왜 홀로란 말이냐?...나에겐 네가 있다.〉 하고 나의 등을 자꾸자꾸 쓰다듬으시다 문득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만 아니였으면 너의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실수 있었다! ...〉

〈예?〉

나는 놀라 아버질 쳐다보았어요.

〈너의 어머니 전쟁때 다친 상처가 도져서 심하게 앓았었다. 그런데 그걸 나한테 끝내 숨기고있었구나...〉

〈어째서요?〉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X>제철법의 리론적기초를 그때부터 준비하고있던 나를 도와 어머니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런데 상처가 도졌다는걸 내가알면 자기 걱정엔 시간이 지체될가봐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는것도 정 못건딜 형편이 되구야 가곤했었지...

〈<X>제철법의 리론적기초가 끝났을 때에야 난 그걸 알았는데 그뎐 너무나 늦었더구나...〉 하고 아버진 목이 콧 잠겨서 더 말을 못했어요.》

정우는 선아의 말에 눈앞이 탁 흐려왔다. 가까운 뒤쪽에서 기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선아에게 걱정엔 넘친 무슨 말을 했을것이였다.

정우는 기침소리가 귀에 익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돌리다 눈을 꿈쩍하고 크게 떴다. 흐릿하게 보이는 가로등밑으로 뜻밖에도 친구림선생이 걸어오고있었다.

《선아가 아니냐?》

깜짝 놀란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선생은 천천히 다가왔다. 당황하여 어쩔줄 모르는 선아와 정우를 알아본 선생도 은근히 놀란 기색이었으나 별말은 없었다. 손에 우산을 쥐고도 비맞은 두사람을 의아하게 보던 그는 책망도 힐난도 아닌 류다른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젊은 사람들의 걸음이 이렇게 떠서야 어디...어서 이 팔을 끼거라.》

머리를 수긋하고 섰던 선아는 아버지가 내민 팔을 껴다.

《가자.》

망두석처럼 굳어진 정우앞을 지나 딸과 함께 걸음을 내짚던 친구림은 그제야 생각난듯 뒤를 돌아보았다.

《언제나 시간이 넉넉한 학생이 부럽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생활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탑을 쌓아주고 낭비하는자에게는 함정을 파준다는것을...더구나 학생은 할일 많은 조선의 과학도임을 잊지 마시오.》

진창길을 걷는 부녀의 고르롭지 않은 발자국소리가 차츰 멀어지더니 이윽고 잠잠해졌었다.

그 어둠속을 바라보는 정우의 마음은 넓도 우정도 짱그리 앓긴듯 허전했으나 친구들의 준절한 말이 더 세차게 가슴을 두드렸다.

시간을 아끼라... 할일 많은 조선의 과학도임을 잊지 말라...

바로 그날밤 비내리는 거리에 정우혼자 남겨두고 영영 떠나간듯싶던 선생과 선아는 지척에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6년간을 하루같이 《X》제철법완성에 전념한 로연구사는 지금 자리에 누워 있다.

조차장의 구름다리를 넘어선 정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광채산이 더 커진탓에 1년전 장흥세멘트공장으로 떠날 때 걸어본 지름길이 잘 생각나지않았다. 눈보라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앞을 가리운다.

지름길로 가야했는데 그놈의 길이 어딘지 알수가 없다. 추위에 몸을 웅송그리며 어방짐작으로 방향을 정하였다. 지름길...지름길...걷기는 힘들어도 지름길을 찾아야 시간을 얻을수 있다.

1년전 대학을 마치고 제철소로 내려왔을 때 최정우는 놀랐었다. 아직도 성공은 멀리에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던 《X》제철법연구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동안 선생도 몰라보게 변했다. 나이에 비해 민망스러운 정도로 콧꽃하던 허리도 약간 굽을사해졌고 좀 살이 빠진 얼굴과 손등에 검버섯이 가물가물 돋기 시작했다. 그러나 늘 술진 눈섭밑에서 은근히 번쩍거리며 모질어보이던 그 눈빛만은 여전하였다.

그날 늦저녁을 먹고나서 제철소시험소로 나갔다는 선아를 기다리는 정우에게 선생은 말했다.

《그럼 인젠 떠나게.》

《어디루 말입니까?》

의아해서 쳐다보는 최정우에게 선생은 16절지석장을 내놓았다.

《세멘트공장에 나가 그걸 연구하도록 하게...》

《? ...》

정우는 선생이 무슨 공식문건처럼 정중히 내놓은 종이장을 보았다. 그것은 《X》제철법의 첫 공정인 세멘트점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과제를 월과 날자별로 쪼개놓은것인데 얼핏 보기에든 너무나 아름차 입이 절로 딱 벌어지게 했다. 대학을 갓 나온 애송이연구사에게, 그것도 현지에 도착하기 바쁘게 그날로 외진 세멘트공장으로 떠나라는것도 모질었지만 그 엄청난 연구과제를 눈섭하나 까딱않고 주는것이 더욱 모질어보였다.

《...》

정우는 딱한 표정으로 선생을 쳐다보았다.

《말하오.》

《전 대학을 나와 연구사로 된지 이제 겨우 석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선생님밑에서 배우게 해주십시오...》

《강의시간엔 줄다가 대학을 나와서 공불 하겠다는건 또 무슨 소리요?》

여섯해전의 그 가을날 일을 아직도 잊지 않고 상기시키는 선생의 말에 그는 아연해졌다. 사람은 늙으면 무릇 인정도 해퍼지고 마음도 너그러워진다는데 선생만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더 몰인정하고 피엑스러운 인간으로 굳어진듯싶었다.

잠시 방안을 거닐던 선생은 그의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옛 제자의 마음을 꿰뚫어본듯 지난날 첫 강의때처럼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우리 야금공업은 어김없이 <X>제철법으로 쇠돌을 녹여내야 하오. 그것도 가까운 시일내로...그런데 우리는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데 비해 너무나도 시간을 오래 끌고있소, 너무 오래...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이 곧 우리의 시간표라는걸 명심하십시오. 어쩔소, 더 물을것이 있소?》

《...》

《없으면 지체 말고 떠나오!》

최정우는 자리에서 무겁게 일어섰다. 구석에 놓았던 가방을 들었으나 선뜻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 가도 선아를 만나보고 가고싶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선생에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선아와의 우정이 남다른 관계로 번져진줄 그래 선생이 모른단말인가? 종시 아무말도 하지도 듣지도 못하고 조용히 문밖을 나섰다. 더 기다려야 마음만 괴로왔기때문이었다.

선생도 함께 따라나왔다. 휘영청 밝은 달이 정우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했다. 선아와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겨 발목이 시큰해지도록 백사장을 거닐고싶은 밤이었다.

최정우는 선생과 함께 광채산밑을 묵묵히 걸어갔다. 울퉁불퉁한 광채산이 끝나고 제철소구내길이 나진 나지막한 둔덕에 이르자 선생은 걸음을 멈추었다.

《저 고압선이 보이오?》

《예.》

《그 고압선을 곧추 따라가면 지름길이 나질거요. 내 장흥속소엔 이미 전화로 말해놓았소.》

《바다바람이 찬데 어서 들어가십시오.》

《잘-가오...》

최정우는 선생이 말한대로 고압선을 따라 지름길로 걸었다. 선생이 부디 견제 한 울퉁불퉁한 길이어서인지 아니면 무정한 선생에 대한 원망에 움해서인지 발에 돌이 자주 걸채웠다. 그때마다 그는 화를 내며 얼굴을 찌프리군했었다.

그러나 장흥에 도착하여 월과 날자별로 쪼개놓은 연구과제에 달라붙었을 땐 화를 내거나 누구를 원망을 할 사이가 없었다. 낮에는 시험로며 원료장이며 분석실로 눈코 뜰 짬이 없이 뛰여다녀야했고 밤이면 밤대로 참고서를 뒤지거나 전자계산기앞에서 시험수치도 종합하여야 했다.

날이 감에 따라 여섯해전 비내리던 그날 언제나 시간이 넉넉한 학생이 부럽다며 할일 많은 조선의 과학도임을 명심하라면 선생의 당부가 리해되었고 지난날 덧없이 흘러보낸 시간들이 눈물겹도록 아까웠다. 그렇게 하루과제를 끝내고 숙소에 지쳐 그대로 쓰러지면 안도감보다 어떻게 그 아름다운 일을 해냈을가 하는 의혹과 함께 자부심이 들곤했었다.

그래도 그에겐 하루 5 분이라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 매일 저녁 사업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전화를 대체로 선아가 받았다.

매번 그가 《여기 장흥이요...》 하면 《나 선아예요...》 하는 대답이 수화기에서 정답게 울렸다.

그들은 실무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단축하고 서로의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아는 건강이며 날씨가 바다가에 편 해당화며 또 언젠가 회관에서 돌린 영화의 극적인 장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평범한, 흔히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도 정우에게는 눈물이 나도록 소중하였고 힘으로 되었다. 비록 전류를 타고 흘러오는 목소리였지만 정우에게 바치는 처녀의 순정을 가슴뜨겁게 느꼈던것이다.

생활은 제나름의 연장선을 가지고있어 것처럼 어렵게 대하던 선생과도 전화상으로나마 주눅이 없이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선생의 성격이나 말투, 요구성이 달라진것은 아니다. 단는 말에 채찍질이라고 정우를 더욱더 다물아뒀다.

리해할만한 일이다. 선생의 나이가 이제 칠순 고개를 바라보고있지 않는가.

인류발전사에 과학자가 필생의 목표로 삼고 연구에 전념하다가 성공의 희열을 감수 못한채 생을 마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시간이란 그토록 귀중한것이 아니겠는가.

시간, 시간... 이것은 신구립선생에게 있어서도 단순한 물리적개념이 아니라 운명적이고 사활적인 문제일것이었다.

때문에 선생이 앓아누웠다는 소식을 접한 다음부터 정우는 불안에 쫓기는 자신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만약 선생이 중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여 연구사업에서 손이라도 떼는날엔 《x》제철법 연구사업은 큰 혼란을 겪게 되는것이다. 그래서 선아도 허둥지둥 전화를 걸어왔을것이다. ...

걸음보다 마음이 앞서 눈보라를 헤치던 최정우는 우뚝 섰다. 광재산밑에 자리잡은 철집이 나타났다. 물매가 급한 지붕우에는 눈보라에

겹쌓여진 눈이 한길남게 없어졌는데 그래서 짓눌린듯 낮아보이는 집 창문가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던 정우는 다시 우뚝 멈추어섰다. 무릎에 빠지는 눈을 헤치며 제철소쪽으로 나간 큼직큼직한 발자국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눈길을 끌었다.

그때 안에서 무슨 기척소리가 났다. 정우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그었다. 발자국의 임자는 문병왔던 그 누구일것이다.

그는 문결에 엿비듬히 세워진 눈가래를 잡고 우선 눈부터 치기 시작했다. 마당을 반반하게 만든 다음에야 방문을 열었다.

실험실 겸 객실로 쓰는 방엔 사람이 없었다. 시약들로 얼룩진 실험대우에 영어판 《현대공업사전》과 까만 비닐안경집만이 놓여있었다.

선생의 침실로 쓰는 방문은 반쯤 열려있었는데 불이 켜져있지 않았다.

부엌에서 이쪽의 무슨 기척을 느꼈는지 선아의 목소리가 났다.

《아버지세요?》

정우는 침실과 부엌쪽을 번갈아 살피며 손바닥만 마주 비벼뒀다.

《아버지, 추운데 제창 여기 들어와 약을 자시고 들어가세요.》

그래도 아무 기척이 없자 선아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사이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미색의 두터운 털차케트에 흰 앞치마를 두른 그의 모습은 신혼의 젊은 주부 같았다.

《어마나! ...》

그는 가슴우에 두손을 소리나게 마주잡더니 정우를 잠시 멍하니 쳐다보았다. 동그스름한 어깨가 가볍게 오르내렸다.

정우는 당황하여 손가락을 입술에 세워 대고 침실쪽을 눈쫓았다. 선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버지는 제철소에 나갔어요.》

《아니, 앓는다더니?!...》

선아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노하셨어요.》

《왜?》

《일보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장흥에 전화를 걸었었어요. 그런데 동무가 여기로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과학자의 심장이 그리도 모질지 못해서야 무슨 일을 치겠느냐며 막-》

《왜 내가 일보를 가지고 올라온다고 말 못했소.》

《제가 뭐 그런 말 안한줄 아세요. 그래도 아버지 지금이 어느때든 천금같이 귀한 시간을 문병다니는데 허비하는가고 하며 <나는 죽지 않아,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올리지 못한 내가 죽어서 어느 땅에 묻힌단말이야!> 그러시고는 제가 말리는데도 그냥 부득부득 용해장으로 나가셨어요.

미분한 시험결과가 어떤지 모르겠dash시며…》

정우는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선생이 왜 노력
서 일어났는지 짐작이 갔다. 분석수치계산을 중
합하지 못하고 장흥을 떠난 자기때문이었다.

우리 세대에 《x》제철법을 성공하기전에는,
아니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앓을수도
지어 죽을수도 없다는 친구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앞에 최정우는 절로 머리가 숙어졌다.

《난 가겠소.》

정우의 무뚝뚝한 말에 선아는 놀랐다.

《아니 어디로요?》

《장흥으로.》

《아버지도 안만나보시고요?》

《만나 봐야 육박에 더 먹겠소. 난 가겠소. 아버
지에겐 그렇게 전해주오. 세멘트 점결도를 높이
는 열쇠를 거의 권것 같다고…》

그것은 바로 오늘, 정확히 말하면 정우가 여기
로 오기 불과 몇시간전에 얻어낸 반응시험결과였
다

《아니 그게 정말이예요?》

《음.》

정우는 고개를 끄떡이며 아직 이거다 하고 확
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지만 비밀의 열쇠를 권건
틀림없는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선아의 맑은 얼굴색이 한순간 더욱 희
여지는가싶더니 눈에 물기가 그렇해졌다. 얼마나
기다리던 결과인가. 아버지도 나도 얼마나 애타
게 바라던 오늘인가.

《동문 성공했군요. 끝내 성공했군요.》

얼굴은 웃고있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방
울져 흘러내렸다.

이윽고 눈물을 씻은 선아는 최정우에게 말했
다.

《가지 말아요. 이런 기쁜 날 아버지를 만나보
지않고 간다면 아버지 그것때문에 또 성을 내실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 진 리해하실거요. 그리고 난 사실
지금 그 반응시험을 다시 해보고싶어 죽을지경이
요.》

두사람이 가느니 못가느니 하는 문제를 놓고
육신각신하는중에 문밖에서 신발터는 소리가 텅
텅 울리더니 친구림선생이 불쑥 들어섰다. 어찌
나 눈을 들썩는지 온통 하얗다. 술진 눈섭이며
모자짚으로 흘러내린 머리칼에도 성에가 하얗게
불리었다. 그 모습을 보기가 피로와 정우는 눈길
을 떨구었다.

선아가 아버지에게 급히 다가가 외투단추를 벗
기며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아버지, 정우동무가, 정우동무가 반응시험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았대요.》

《정우가?!》

친구림은 그제야 딸의 어깨너머로 정우를 바라
보았다. 그러나 기뻐한것은 순간이고 여전히 본
래의 그 랭담한 표정과 몸가짐을 잃지 않았다.

《차를 타고왔나?》

《아닙니다. 걸어서…》

《빨리 왔구만!》

빨리 왔다는 말속엔 빈정거림보다도 질책 비웃
한 감정이 스며있었다.

선아가 외투를 벗기자 친구림은 침대에 가 무
겁게 앉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찾는
것같았으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는
지 단념했다.

정우는 선생이 이제 몹시 질책하리라고 생각했
다. 그러나 아무런 말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
인채 묵묵히 앉아있더니 불쑥 물었다.

《반응시험을 했대구?》

《예, 락관적인 수치를 얻었습니다.》

《설명하게.》

정우는 옷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펼쳐들고 조
마조마한 심정으로 반응시험과정을 설명하고 나
서 이렇게 뒤를 뺐었다.

《…그러나 저는 확인삼아 반응시험을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그 다시 하는 반응시험이
이자 말씀드린 결과와 맞아떨어지면 <x>제철법
의 관문은 열리는 셈이라고 봅니다.》

친구림은 비닐레자를 칸 바닥에 눈길을 준채
생각에 잠겨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큰 시름이라도 하나
던듯 어깨를 숙우며 정우를 올려다보았다.

《역시 자넨 머리는 좋은 사람이야. 시간을 <립
방>으로 쓸줄도 알고… 과학자에겐 무엇보다도
그게 중요하지, 명석한 두뇌와 시간을 쓸줄 아는
것, 과학자의 재산이란 그게거든…

하지만 내 생각에 반응시험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네. 모든것이 명백하니까. 아무튼 수고
했네.》

최정우는 기쁨으로 하여 자연 가슴이 울렁거렸
다. 옛 스승, 친구림에게서 이 이상의 칭찬을 받
기는 힘들다. 자신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나 그
렇게 칭찬이 린색하고 요구성이 높은 사람이니말
이다.

《선아야.》

선생은 딸을 불렀다.

《네.》

부엌쪽에서 가마뚜껑을 닫는 소리가 나더니 선

아가 방에 들어왔다.

《너는 지금 곧 이 사람하구 같이 장흥으로 가거라.》

선아의 그옥한 눈은 의혹을 담고 굳어졌다.

《거긴 왜서요?》

아무런 표정도 없이 덤덤히 앉아있던 친구림도 불시에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려는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서 이 사람하구 같이 세멘트점결도를 마저 풀어라. 다 되면 그때 함께 돌아오너라.》

순간 정우와 선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선생을 쳐다보았다. 선생의 얼굴에 얼어붙었던 성애가 녹아 이슬방울처럼 굴러내렸다. 선아는 무너지듯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앓는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제가 어떻게...》

선아는 그 말을 하기조차 가슴이 저미는듯 얼굴을 싸쥐고 어깨를 떨었다.

순간 정우는 언젠가 선아가 자기한테 들려준, 나머지 이 아버지를 험한 과학의 길에 홀로 남겨두고 날새처럼 가버리면 마음속이 텅 빌것 같다고 한 선생의 말이 생각났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선생이 몹시 앓는다는 소식에 깊이 생각지도 않고 홀 떠 나온 자신이 너무나 엄청난 일을 빚어냈다. 그는 마침내 백발의 선생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선생님! 일없습니다. 이젠 저 혼자서라도 능히 해낼수 있습니다.》

친구림은 혼연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당조직이 늘 보살펴주기때문에 난 외롭지 않네. 그러구 수령님의 뜻대로 <ㅈ>제철법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는 우리 제철소로동계급들이 날 진심으로 도와주고있으니 걱정말게...》

《그래도 선생님은 지금 앓고있는 몸인데...》

정우는 1 년새 몸이 더 수척해지고 눈확이 커진 선생을 차마 더는 마주볼수가 없었다.

《꼭갑인데 어제밤 땀을 쥘 땀구나니 이젠 일없네. 병두 마음을 도사려먹으면 달아난다고 하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난 제철소에 갔다가 오는 길에 추위속을 거닐며 나를 위해 임자를 책해보고 또 날 책해보았지, 하지만 그것은 생활에서 있을수있는 일이였어. 그러나 오직 하나 명백한것은

<ㅈ>제철법은 한시바빠 완성해야 된다는거요!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바여서 더욱 그렇지.》

선생은 천천히 맞은편 벽으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거의 웅근 한벽을 다 채운 《ㅈ》제철법연구과제를 날자와 시간별로 조개놓은 시간표가 걸려있었다. 그것을 한동안 들여다보던 친구림은 만년필을 뽑아 세멘트점결도를 표시한 비고란에 《반응시험성공》이라고 써놓고 날자를 밝혔다. 그리고는 두 젊은이를 향해 돌아서서 도간도간 기침을 하며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과학자는 생의 매 순간순간을 자기의 량심앞에 조국이 제시해준 시간표대로 살아야 한다는걸 잊지말아야 해. 우리들의 시간은 우리 개인의것이 아닌 조국의 시간이고 수령님의 의도를 실현하는 당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하네. 이것을 망각하면 벌써 그는 옳은 과학자가 아니지...》

《!...》

최정우는 선생의 백발머리로 시간표를 보았다.

《ㅈ》제철법연구를 시작한 이래 수없이 흘러간 모든 날과 시간들의 마지막 비고란에는 《수행함》이라는 붉은 글이 어김없이 씌여져있었다.

순간 정우는 선생의 한생이 저렇듯 모질어보이는 시간표대로 흘러갔으리라는 생각에 백발의 선생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것은 생활의 모든것을 희생한것이 아니라 값높이 향유한 탐구자의 보람찬 인생이었다. 그러니 나는 언제면 선생님과 같은 세계에서 살며 일할수 있을것인가.

이윽고 선아의 출발준비가 끝났다.

집이라야 책을 넣은 배낭 하나와 옷가지가 든 트렁크 두개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찬 바람이 불었다. 찬 눈가루가 철집의 벽과 유리창을 후둑후둑 때렸다.

《왜 그러고들 섰느냐? 어서 떠나질 않구...》

안경을 끼고 책상에 마주앉아 무슨 자료철을 읽고있던 친구림이 떠날 차비를 하고 문안에 서있는 두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정말 제가 없어도 일없겠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선아의 눈에는 간절한 애원의 빛에 어려있었다.

《원 애두, 내가 무슨 어린애라구 네 시종이 필

요하겠느냐? 일없다. 어서 가거라. 너희들이 연구 사업에서 성과를 올리면 그게 내겐 기쁨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와 이 어깨나 두드려다오. 이놈의 신경통은 눈만 오면 발작이거던…》

신구림은 의자를 돌려 앉으며 팔에앞에 등을 돌려댔다.

《…그래 더 광광 두드려라… 어허! 좋구나… 그런데 넌 왜 우느냐? 울지 말고 노래나 불러라. 네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말이다.…”》

이어 선아의 흐느낌섞인 노래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발벗은 순애야
감장눈이 처녀야
우리 함께
흰돛배 타고
저 먼바다로 가자
희망의 땅 행복의 기슭으로

선아가 부르는 아버지의 옛시절의 노래는 처마 끝에 매달려 불빛에 진주색갈로 반짝이는 고드름이며 삭풍에 떠는 나무아지들을 어루만지더니 못벌들이 총총한 하늘로 멀어져갔다.

정우는 아득히 지나간 어린 시절, 강가에 앉아 제철소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선아가 묻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울 엄마와 울 아버지 정말 먼바다로 가봤을

가? 그 먼바다엔 뭐가 있을까?…》

아득한 깊이와 높고 사나운 파도, 그리고 암초도 있는 먼바다,… 혹시 그것은 우리 과학자들이 걸어가야 할 시련과 곤난의 길을 의미하는건 아닐까. 먼바다너머에 있는 희망의 땅, 행복한 기슭은 참다운 과학자가 가닿아야 할 최후의 목표를 상징하는것은 아닐까.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서 신구림이 그토록 그 노래를 못잊어하고 사랑하는것은 자신의 과학자적신념을 잃지 않기 위해서일것이다.

그런데 선아의 노래소리는 왜 점점 멀어지는가? 사람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노래소리가 차츰 멀어지는것이 이상하여 최정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제서야 그는 1 년전 신구림이 가르쳐준 고압선을 따라 지름길로 걷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고압선밑으로 흘러간 지름길은 차차 흰하게 넓어졌다.

최정우는 등뒤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며 자꾸 걸음을 재촉하는감을 느꼈다.

시간을 아끼라… 너는 조선의 과학도임을 잊지 말라! …

그것은 이미 여섯해전 신구림이 해주던 말이였다.

숨이 턱에 닿은듯 선아의 목소리가 눈보라에 도간도간 끊기며 들려왔다.

《같이 가요… 정우동무! … 함께…가자…요.》

정우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가사

우리는 집을 떠나왔네

백의선

머나먼 간석지로 내 떠나올 때
부모 동생 손저어 바래주었네
성스런 조국이 나를 불러서
정들은 보금자리 웃으며 떠나왔네

내 손으로 옷을 빨며 어머니를 알고
구슬땀 흘리면서 조국을 알았네

거칠은 해풍이 이몸을 키우며
조국앞에 불타는 마음을 바치네

배낭 하나 어깨에 지고 달려와
간석지 천리벌에 금나락 실어주리
그날에 조국이여 다시 부르라
우리는 배낭지고 또다시 떠나리

당의 령도밑에 이룩된 소설문학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김보행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소설문학발전의 획기적전환을 이룩한 1980 년대를 보내고 주체문학의 만발한 대화원이 약속되는 1990 년대가 시작되었다.

이 휘황찬란한 년대를 맞으며 우리 소설가들앞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문학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할 과업이 제기된다.

주체적인 소설문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기본열쇠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우리 식 소설문학의 성과를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우리 식 소설문학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업적을 작품에 훌륭히 형상하는것이며 그를 위하여 우리 소설가들이 높은 충성심과 창작적열정을 발휘하는것이다.

우리 소설가들은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서 의의 있고 빛나는 력사적 사변들과 사건들을 대담하게 취급한 소설들을 계속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완성하기 위한 창작전투를 준비하고있다.

특히 서해갑문과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북부철길, 광복거리 등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워 주체조선의 위용을 떨치고있는 현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감명깊게 소설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으로 고무추동할것이다.

우리 식 소설문학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주인공의 성격창조에서 그의 운명을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 우리 사회에서 자주적인 인간의 생존방식에 관한 문제로 제기하고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해결하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집단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자주적인 인간의 삶은 자기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준 수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혈연적련계를 떠나서는 빛을 뿌릴수 없으며 따라서 혁명적수령관은 혁명적인생관의 핵으로 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령과 당의 령도업을 소설화하는것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품속에서 새롭게 탄생한 주체형의 새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품모를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형상하는것을 우리 식 소설문학건설의 중

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정령적으로 지도해주고계신다.

우리는 그이의 령도를 받들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시대전형들의 사상정신적품모를 깊이있게 소설로 형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주체혁명위업의 선봉대인 로동계급의 전형들을 새로운 높은 정신세계에로 승화시키는것이다.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은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인생관을 투철하게 체현하고있으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으로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가는 인간들이다.

현실은 이런 인간들의 전형을 매 일 매 시각 탄생시키고있으나 그것을 제때에 원숙하게 형상해내지 못하는것은 우리 소설가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몸을 꼭 잠그지 않고 책상우에서 짜내려고 하는 안일한 창작태도를 극복 못하는데 기인된다.

그러므로 우리 소설부문 창작지도일군들은 지도에 앞서 남먼저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뛰여들어가 로동계급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생활을 더욱 폭넓고 깊이 체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새 년대에 계획하고있는 백금산영웅소대원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무산광산, 황철, 강선 등 여러 분야의 로동계급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창작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우리 식 소설문학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우리 창작지도일군들과 소설가들이 드팀없는 주체적미학관을 가지고 주체적인 창작원칙과 형상방법에 립각하여 글을 씀으로써 우리 식 소설문학의 순결성을 계속 철저히 견지하는것이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아직도 남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고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는 정세하에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우리 소설가들의 영예로운 임무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년대에 우리는 주체적인 창작원칙과 창작방법에 립각하여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하게 완성한 수많은 작품을 내놓았다.

이 작품들은 하나와 같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히 반영되어있고 로동계급의 전형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이 우리 인민의 정서와 감정에 맞게 생동하고 뚜렷하게 형상되어있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경험은 작품에 당의 정책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인간과 그의 생활을 탐구하여 우리 식으로 글을 쓰는 철저한 관점과 자세를 가질 때만이 우리 혁명을 위해 복무하고 우리 인민에게 필요한 혁명적인 소설을 창작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문제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갖 낡고 진부한것, 우리 비위에 맞지 않는 이색적인 미학관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소설가들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며 창작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90 년대 전반기 5 년여간에 우리 소설문학이 수행하여야 할 창작방향과 목표를 이미 제시하여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작가들을 믿으시고 제시하신 이 과업은 가장 보람차고도 영예로운것이다.

우리 소설가들은 그 휘황한 목표를 향하여 신들메를 든든히 조이고 힘찬 진군을 개시하였다. 하여 북부철길건설장,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장들과 중요 공장, 기업소, 농장마을과 어장으로 달려나가 시대의 숨결로 호흡하고있다.

우리는 신심과 용기를 안고 찬란한 공산주의 아침노을을 만발한 주체문학의 대화원속에서 남먼저 맞이할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력사적인 1990 년대를 주체의 숨결, 주체의 맥박으로 힘있게 고동치는 우리 식 소설작품들로 빛나게 장식함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작가적인 사명을 다할것이다.

거인

문동식

거뿔거뿔 광맥이 지나간 암벽앞에
착암기를 틀어잡은 굴진공은 거인이다
정머리가 다슬려 또 갈아맞추고
발과구멍 뚫어가는 광부의 눈빛
그보다 강한 빛은 세상에 없다

암질이 굳을수록 굳어지는 그 마음
정날이 무딜수록 날이 서는 그 마음
수수천년 세월이 다저놓은 쇠돌벽에
굴진공은 보화의 대문을 열어가거니

아무리 키작은 사람이라도
착암기를 굳게 잡고 광맥앞에 마주서면
산악처럼 커보임은 웬일인가
그가 다름아닌 공업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가는 선구자가 아니더냐

뚜룩-뚜룩-울리는 착암기소리도
날리는 돌가루, 안개같은 먼지도
무심히 들을수도 볼수도 없다
철의 전선 전초를 말아나선
광부에게 우리 무엇을 아끼랴

박수면 우리같은 박수를 보내주자
꽃보라면 축포같은 꽃보라를 뿌려주자
굴진공 그는
우리가 누려갈 만족을 안아오려
광맥앞에 가슴을 내대고 사는 사람

그의 눈빛보다 강한 빛은 없다
그의 의지보다 강한 철이 또한 없다
땅이 부른 강철 1,500 만톤 고지로
억세게 전진하는 거인 굴진공
그의 걸음따라 조국이 전진한다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동행자로!

가슴 설레이며 맞이하는 새해 아침이다.

20 세기의 마지막 언덕에 위용높이 올라선 조국의 모습속에서 새로운 흥분과 창작적열정을 받아안게 된 때문만이 아니다.

지나간 80 년대의 갈피갈피에서 울려나오는 시가의 메아리가 이 가슴을 긍지로 부풀게 한다. 그 메아리는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진군으로 부르는 투쟁의 나팔소리로, 정서적인 생활의 아름다운 음향으로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다.

지나간 80 년대의 하루하루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련된 령도와 뜨거운 사랑속에서 크나큰 믿음과 은덕을 받아안고 목메여 터치던 그 감격이 젖어있고 창조와 건설의 빛나는 위훈속에 조국땅 곳곳에 일떠서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속에 바쳐진 우리 시인들의 충성과 효성이 깃들어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시인들이 참으로 좋은 작품들을 많이 쓰며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힘이 모자라면 힘을 주시고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시며 언제나 우리 시인들이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심으로하여 우리는 새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빛나는 성과를 거두리라는 신심에 넘쳐있다.

마음의 신들메를 더 힘껏 조이게 하는 새해 이 아침이다.

당의 의도와 시대의 요구를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한 작품,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튼튼히 옹호고수하는 주체적인 우리 식 명작창작은 우리 시인들의 영예로운 임무이다. 바로 그 영예로운 임무를 다함으로써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릴수 있으며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동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새해에도 혁명적인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당의 시인된 영예를 다할 결의에 찬탄되어있다.

나는 창작지도일군의 한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당의 의도와 요구에 민감하고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는 명작창작운동의 앞장에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결심이다.

조선문학창작사 부사장 김성조

우리 식 문학창작을 선도하고 이끌어주는 기수가 되렵니다

유구한 민족문학사에서 류례없는 위훈으로 빛나는 80 년대 우리 식 문학의 모습!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긍지에 넘쳐 바라보며 90 년대의 첫해를 맞는 우리 평론가들은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고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인류문학에술발전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힘있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식 문학창작을 적극 선도하고 이끌어주는 기수가 되고 전초병이 되려는것이 90 년대의 첫 문어구에 들어서는 우리 평론가들의 굳은 다짐입니다.

우리 평론은 이 영광의 년대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적인 문학발전에 기울여오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는데 적극이바지할것입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우리 문학이 이룩한 성과를 창작실천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일반화하여 사람들의 혁명적수령관 형성

에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도록 선도하고 추동하는 평론을 활발하게 씀으로써 우리 문학의 주체적면모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효성을 지닌 긍정적주인공의 형상과 우리 시대 영웅적성격창조 문제들을 깊이있게 제기한 문제성있는 평론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이리하여 명실공히 평론이 작가들의 창작에 도움을 주고 문학의 성과를 이룩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수정주의, 자본주의 사상을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본질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여 작가들과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우리 문학에 불건전한 사상조류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체문학의 혁명적순결성을 철저히 옹

호고수하도록 하는데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평론가들의 자질을 높여 모든 평론들이 심오하면서도 평이하게, 예리하면서도 설득력있게 리론적으로 깊이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읽힐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식 평론을 더욱 새롭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조선문학창작사 평론창작실 실장 최길상

한편의 글을 써도 시대가 담긴 글을!

새해란 누구에게나 새로운것에 대한 희망과 함께 더 아름다운것, 더 훌륭한것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며 찾아오는것입니다. 그것은 새해가 안고 오는 변함없는 선물이기도 할것입니다.

더우기 이해는 1990 년대의 첫번째 년륜을 새기는 뜻깊은 해가 아닙니까!

더 아름답고 더 휘환할 래일을 약속해주는 이해에 무엇을 할것인가. 이것은 1990 년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누구나 가다듬어보는 생각일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로서는 이해가 《조선문학》에 첫소설을 발표한 때로부터 열여섯번째로 맞는 새해입니다.

그때 탁아소에서 말을 배우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십대의 청년으로, 당당한 사회의 주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저의 작품들만은 여전히 첫

소설을 내던 《탁아소》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에는,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나도 걸음같은 걸음을 떼여보리라, 어른으로 되여보리라, 이것이 나의 결심입니다.

한줄의 글을 써도 시대가 담기고 시대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글을 쓰며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성격들을 그리는것, 하여 독자들이 주인공에게서 《나》를 찾아볼수 있고 《나》에 대하여 돌이켜볼수 있게 하고싶습니다.

욕망으로 끝날수도 있으나 새해 1990 년을 맞는 이 시각 제가 가다듬게 되는 결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조선문학창작사 소설가 한웅빈

성실한 현실체험의 해로!

흙과 수분 그리고 빛이 없이는 꽃도 열매도 없듯이 성실한 현실체험이 없는 창작적성과란 기대할수도 없지요.

1980 년대에 제가 다소나마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기쁨을 드릴수 있었다면 그것은 저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현실체험이 가져다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한편을 놓고도 저는 남들보다 몇배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서정적이면서도 통속적인 가사를 쓰고싶은데 그게 어디 쉽게 썬워집니까.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고 부르기 쉽게 쓸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이러한 희망은 성실한 현실체험이 꽃피워줄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새해에 마음의 신들메를 단단히 조이고 공장과 농촌으로 나가겠습니다.

1990 년을 성실한 현실체험의 해로!

축적과 비약의 해로!

이것이 저의 새해 결심입니다.

조선문학창작사 시인 박미성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알 때

나는 서사시 《정일봉》을 2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그러나 아직 붓을 들지 못하고있다.

지난해는 6개월간을 백두산지구의 밀림속에서 눈보라와 폭풍과 비에 젖으며 귀중한 체험을 하였다.

그러나 붓을 들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직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벽간 현실속에서 새롭고 의의있는 생활소재와 종자를 골라잡을수 있으며 그것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해낼수 있습니다.》

격동적인 1990년대의 첫째, 1990년의 새해가 밝았다. 가슴은 뻥고 피가 뿜다.

이해는 내가 새 서사시의 붓을 들어야 할 해다. 서사시 《불타는 해》를 쓸 때도 심장을 쏘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형상에 바친 이 서사시를 그 위대성을 다 모르고 썼다는 자책감과 죄송스러움이 지금도 가슴을 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여야 할 이 두번째 서사시는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쓰

려고 한다. 때문에 의도적으로 붓을 들지 않고있다.

작가가 우리 당의 위대성을 체현한다는것은 형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체현한다는것이다.

나는 새해에 이것을 기어이 해결하려고 한다. 머리속에 줄거리가 잡힌지는 오래다. 그러나 나는 다른 줄거리 《철학적줄거리》를 찾아 모대기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우리 당 력사 발전에서 일대전환기를 마련하신 그 위대한 업적을 깊은 철학성과 강한 극성, 풍부한 서정성으로 형상하려는것이 나의 결심이다.

나는 문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해서라도 기량을 높이고 안목을 높여 현실에서 살면서 1990년의 장엄한 행진곡과 함께 나의 책임적인 붓을 달리려고 한다.

그렇다. 우리 당의 위대성을 체현할 때 나는 비로소 붓을 들것이며 나의 친근한 벗들인 독자들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올해 서사시 《정일봉》의 초고를 끝내겠다.

조선문학창작사 시인 백하

90 년대의 대문을 열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훌륭한 연극을 만들자면 사상예술성이 높은 희극을 창작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조국력사에서 승리와 영광으로 더욱 찬연히 빛날 1990년 새해를 맞으며 지금 우리 극작가들의 가슴가슴은 충성의 열의와 창작적열정으로 더욱 뜨겁게 타번지고있습니다.

지난 80년대에 우리 극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한없는 은정속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1당》, 《경축대회》를 혁명연극으

로 고증각색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였으며 20여편의 사회주의현실주제와 혁명적주제의 단막극들을 창작실현하였습니다.

우리는 80년대의 이 성과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영광의 90년대에 다시한번 분발하여 극문학창작에서 또다시 비약하렵니다.

새해에 우리들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고증각색하는 사업을 완성하여 혁명연극 창조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며 완성단계에 있는 대를 이어가며 락원의 정신을 꽃피워가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들의 영웅적투쟁과 생활을 형상한 장막희곡 《불노을》을 시대의 걸작으로 창

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대한 사회주의농촌
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열정을 다바쳐온
협동농민들의 자랑스런 투쟁과 생활을 형상한 중
막극 《봄빛》을 성과적으로 완성하며 무산의 광
부들과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의 영웅적
위훈과 투쟁을 형상한 단막극을 비롯하여 20 여
편의 단막극을 창작실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들끓는 현실속에
서 혁명적으로 창작하며 생활하는 혁명적 창작기
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집체적지혜를 높
이 발양하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며 극문학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창작전투를 힘차게
벌어나감으로써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극문학작
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겠습니다.

조선문학창작사 극문학창작실장 리용렬

금별메달

리재준

1

내 빛나는 영웅메달 가슴에 달 때면
철없을 때 달았던
금메달이 생각난다
전선에 나갔던 아버지대신
우리 집에 전달되었던 그 메달

영웅이 무엇인지 모르던 시절
기념일 때마다 할머니
금별메달을 내 가슴에 달아주었다
영웅의 아들이라고

아 금메달 번쩍거리며
가슴빼기고 사람들앞에 나서던
유년시절의 숨가쁘던 행복이여!

2

할머니따라
조국해방전쟁기념관을 찾던 날
나는 알았다
내 가슴에 빛나는 금별메달은
아버지가 흘린 피의 대가였음을

내 작은 손으로
가슴우 금메달을 가리고
영웅관 문을 나서던 송구함이여

다시는 내 달지 않았다
결코 영웅메달은
그렇게 다는것이 아니었다

마음속에 금별메달 새겨두고
한살두살 나이를 먹던 나는
간석지건설장으로 떠나가며 생각했다
이제라도 철이 들어야 한다고

3

사나운 물갈기와 싸우며
바다밑에 가라앉은 땅
욕심스레 안아일으키던 낮과 밤

무너지는 제방에 어깨를 들이밀 때도
번쩍이었다 내 가슴속엔 그 금별이
비바람 휘뿌리는 마가울 밤
앞장서 혁명가요 높이 부르며
가물막이 전투를 벌릴 때도
나를 떠밀어주었다

아버지의 그 금별메달이
한치한치 마음속 등불이 되어
나를 위훈으로 불러주고
걸음걸음 산악같은 힘을 주며
나를 위훈으로 이끌어주던
그 금별이 흥벽을 터치고 나와
오늘은 내 가슴에 빛나거니

아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키우고있었다
영웅은 이렇게 영웅을 키우고있었다!

내 조국의 모습

김재원

멀리 흘러간 어린 시절
선생님 손모양을 따라
내 처음으로 그리었던
조국의 지도

나의 운명
조국과 결합되어
동심에 간직된 그것이
조국이며 그대의 첫 모습이었던가

머리위에 백두산이 솟고
기슭으로 압록강 두만강이 흐르고
진달래 핀 만경대 굽이굽이
대동강 옥류가 흘러
동서남해 물결 푸르려 설레는
나의 조국

그 품엔
내 고향, 나의 정든 집
토끼풀 뜰으며 뛰놀던
동산의 푸른 잔디밭도 있어
아름다웠다 신비로웠다
내 심장속에 뿌리내린
조국의 모습은

그 모습을 간직하고
즐거운 야영지의 밤
모닥불가에서 시도 읊으며
내 울렁이는 마음으로
생각깊이 애국가를 불렀고

그 모습을 간직하고
눈보라이는 분계선초소에서
언땅에 배를 붙이고
조국이며 내 그대의 아픔을
처음으로 절감했노라

그날은 또
얼마나 눈곱이 뜨거웠던가
이깁술 무성한 백두산밀영
사령부귀틀집안에서
등불을 켜드시고
조국의 지도를 향해 서신
장군님의 영상 우러렸을 때
무엇으로도 지울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그 모습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려
조국이며 내 젊은 시절
지하막장에서 석탄을 캐노라

석탄을 캐노라 땀을 바쳐
그대의 번영을 위해
그때로부터
조국과 나의 운명 하나로 결합되어
그대의 모습 얼마나 거창하게
내 가슴속에 치솟아올랐던가

강선의 붉은 노을로
그대의 옷자락은 붉게 나뭇기고
간석지의 황금이삭으로
그대의 옷깃은 찬란하더라

대동강반에 솟아오른
주체사상탑봉화의 붉은 빛발은
그대 불멸할 사상의 빛발
용맹스런 천리마의 날음은
진펄도 단숨에 넘는 그대 약진의 기상

보지 않았더냐
온 세상사람들
미래의 주인인
세계청년학생들의 큰 잔치
평양축전의 아름다운 축포가
우리 행성의 하늘 얼마나 맑게 했는가를

령토의 모양으로만
조국의 모습은 생각되지 않아라
해빛밝은 산원과 빙상관의 모습으로
서해갯문과 5월1일 경기장, 류경호텔의 모습으로
우리 당이 구상하고 의도하는 모양대로
조국이며 그대의 모습은
하늘땅에 가득찬다!
하거니 20세기 마지막 언덕에 솟구쳐오른
내 조국의 모습은
향도성으로 빛나는 우리 당의 모습!

내 심장 터쳐 웨치노니 세계여
백전백승의 우리 당의 모습 보시려거든
룡성번영하는 우리 조국을 보시라
그속에 21세기 내 조국의 모습이
사진같이 방불히 그려져있노라!

하늘

리병철

앞에도 뒤에도
동서남북 어느쪽에도
절벽같은 어둠만이 짙 들어차
바라볼 작은 별 하나도 없던
그런 세월이 우리에게 있었습시다

다만 이 땅우에 빛이 있었다면
화전의 한 추녀낮은 초가집
문풍지 우는 그 창문가에
수령님께서 켜신 등잔불이 있었을뿐이었습시다

혁명의 진리
천만 글줄을 비치며 비치며
지칠줄 모르던 그 불빛 해불로 모아
수령님께서 《ㄷ. ㄷ》의 강령
항일의 기치 추켜드셨을 때

그때 우리는 처음 보았습시다
숨막히는 먹장구름을 찢고

먹장구름 사이로
비취색 고운 하늘 꿈처럼 열리는
조선의 한조각 푸른 하늘을...

정녕 그때부터였습시다 우리
가슴 가득 부푸는
벽찬 궁지와 자부를 안고
우리 말의 가장 높은 억양을 담아
수령님의 존함 하늘의 높이에 비긴것은...

그렇습시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큰것이 하늘이기에
우리는 그때부터 수령님을
태양이 눈부신
우리의 하늘이라 우러렸습시다

아, **김일성**동지!

심장에 새기는 뜻

박철

푸르른 숲숨을 오래도록 걸으며
한그루 또 한그루
구호나무마다 다 읽어보았건만
나는 선뜻 어은동산발을 내리지 못한다

다시다시 더듬어 가슴치는 글발
다시다시 더듬어 가슴치는 그 뜻
이 마음속 뜨거운 걱정인가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결에
소리치며 설레는 수림의 바다

어쩌면... 이 나무 저 나무
바라보는 구호마다 그 넋이 하나같은가
어쩌면 오, 어쩌면

백두의 밀림에서 안아보던 구호와도
무산과 연사의 그 굴발과도 한결같은가

정녕 어느곳을 찾고 그 어느곳에 서보랴
획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장군님 만세를 만천하에 웨치는 구호이면
그 글자마다 용용히 굽이치는
흙모의 뜨거움 하나같고

숲속에 강기슭에 마을뒤산에
씨놓은곳은 서로 달라도
하나의 마음에서 분출한것 같아라
백두광명성 탄생을 누리에 알리는 감격이면
그 감격의 열렬함이

아 넓으나넓은 조국땅 찾아볼수록
가슴에 가득한 승고함이어
수천수만이 났을 아로새겼건만
오로지 장군님과 백두광명성을 우러러
하나로 나래친 투사들의 뉘이어!

들리는듯싶다 불같은 글밭에서
한벌 털외투로 부대를 감싸준 사랑에
가슴 맞비비며 울던 그 흐느낌이
보이는듯싶다 빛발쳐오는 찬란한 미래에
잠못들고 빛나던 그 눈동자들이

아 운명의 태양
운명의 광명성 우러러 만발한
혁명가의 참다운 삶의 진정
눈속에서도 하나
살아도 쓰러져도 하나
백만이 받들어도 천만이 받들어도
받드는 마음 하나였구나!

내 선뜻 떠날수 없어 구호나무 다시 쓰다듬으니
백두의 하늘아래 높이 뛰던
수천수만의 투사들의 그 심장
하나의 고동소리로 들리누나!
하나의 숨결소리로 들리누나!

아, 조선 외 1 편

(중국) 안충원

붉게 타는 태양 첫물 머금고
지평선 첫 그네에 오를 때
사람들이여, 아는가
온 인민이 웃고있는 그 땅을,

곱게 주름잡은 연두빛 치마런가
푸른 파도 애웃음치며
《어머니!》하고 불러 찾는 그 땅을
노래소리 웃음소리 듣고싶어 찾는 땅을

눈부신 해살 부끄러워
흰 행주치마에 살며시 손 감추는 녀인들,
이른새벽부터 높은 령에 올라
기적의 장성을 쌓는 사나이들을

긴긴 세월을 두고 사람들은 찾았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름없는
그 땅을, 그 민족을,
먼 이야기로 남은 그 고적들을...

히나 산을 옮겨 바다를 메우는 나라
주체사상, 천리마속도로 달리는 나라
기적만 창조하는 나라
오, 그는 조선, 조선인민이었거니

조선은 의젓한 반제련대성의 성새로
평화와 친선의 꽃다발을 이고
온 세상에 백두의 흰 갈기 날리며
거연히, 거연히 서있더라

해빛도 따사로운 나라
온 인민이 행복에 웃고있는 나라
위대한 수령의 그 사랑 따사롭기에
언제나 해쫓는 아침의 나라!

기쁨에 겨워
행복에 겨워
온 세상 사람들 부르더라
아, 그 이름 조선이어

고향

조용히 조용히 듣고싶은 목소리
아, 야, 어, 여- 애어린 여운

살며시 살며시 밟고싶은 땅
진달래 핀 동산에 꾀꼴새 노래하는곳

아, 꿈에서도 살며시 가고싶은곳

포근히 잠들고싶은곳
달콤한 어머니의 품이런가
달려가 안기고싶은곳

푸른 하늘 오곡 넘치는 땅을 두고
어머니는 말하였다, 고향이라고

나의 생일

조창선

때로 그 누가
생일을 물을 때면
나는 생각에 잠기곤한다

과연 생일이란
어머님의 몸에서 태줄을 끊은
그날만이겠는가

태어난 나의 얼굴
사진으로도 한번 보지 못한채
아버지는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폭격에 숨진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젖을 달라고 조른 나였다

하지만 나는 고아가 아니었다
요람을 흔들어 단잠을 채워주던
보육원어머니들의 진정에 받들려
손목을 잡고 글씨를 익혀주던
학원 선생들의 손길에 이끌려
부모의 그리움을 모르며 자랐다

마음의 작은 그늘마저 있었던가
생일을 모르는 나의 또래들에겐
학원에선 해마다 9월 9일에
새로운 놀이감에
류달리 꾸집한 음식상을 차려주었다

잊을수 없다
대학으로 떠나는 나를 배려하려
역까지 따라나와 흔들어주던
학원 선생님의 그 손길을
부모를 대신해 결혼상을 차려주던
공장동무들의 그 진정을

철이 들면서 나는 알았다

그들모두의 사랑이
단순한 인정에서 오는것이 아니었음을
무엇때문에 나의 생일을
그날로 축복해주었는가를

고마워
진정 고마워
보답의 맹세를 다진 때로부터
낮에 밤을 이어 일해도
도무지 피곤을 몰랐다
하루에 한달일을 다한다 해도
성찰수가 없었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나의 머리엔 한오리 두오리
흰서리 더해진다 해도
조국의 모습은 더욱더 젊어지려니
천번을 만번을 이 땅에 다시 태어나
쓸어주고 다듬어주고
끝없이 빛내이고싶은 나의 조국

부모는 잃고도 살수 있어도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것은 조국
목숨은 열백번 버린다 해도
순간도 버릴수 없는것은 조국

우리 수령님 찾아주시고
친애하는 그이 빛내이시는
조국은 나의 생명!
조국은 나의 운명!

아 그 누가
나에게 생일을 물을 때면
나는 대답한다
나의 생일은 9월 9일이라고

나의 노래

김정곤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추억
나의 할아버지 짚신을 삼다가
눈보라 수천리 피어린 수천리
한지에서 싸우시는 장군님 그리며
말없이 일초를 말며 눈굽을 적시던
그 순박한 마음을 내 잊을수 없노라

락동강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수령님 우리러
마지막으로 남긴 수첩의 글자옥들
세월과 함께 내 가슴 크게 흔들여
지금은 내 숨결이 되어 후덥노라

이제는 내 막내딸까지도
수령님 먼길 가시면
력서에 글을 그으며 돌아오실 날 기다리는
샘처럼 차오르는 깨끗한 진정...

년대와 년대를 넘어
그 마음 그 진정
인민의 가슴에 피가 되어 끓고
숨결이 되어 후더운것

이 땅의 아이들도
그 숨결 이어안고 곳곳이 자라고
어른들 또한
그때문에 늙지 못하노라

이 마음 합치면
저 날바다우에도 만년성벽이 솟아나고
이 마음이 끓으면

용해장의 쇠물이 익고
이 숨결을 안고
이 땅의 꽃들이 망울을 터치노라

내 또한 이 마음을 안고
말을 고르고 시행을 다듬노라
노래짓는이들
이 마음을 가락우에 구슬처럼 꿰노라

아, 우리 수령님
그 언제면 단 하루라도 편히 쉬시랴
투사들의 심장에서 맥박친 그 숨결
월미도 전사들 가슴에 끓던 그 마음
숨은 영웅들 가슴에 샘솟는 그 진정

내 노래를 짓는 사이
수령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그처럼 크나큰 사랑의 바다를 펼치시며
날씨 곳은 하늘밑을
우산을 드시고 나서지 않는지...

끝날수 없는 내 노래
선렬들에게서 넘겨받은 이 노래
내 온 넋을 다해 부르노라

년대와 년대를 넘어
흐르는 세월속에
먼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노래
내 목소리 다듬어
부르고 또 부르노라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이상과 작가

리동수

청춘기는 사람의 한생에서 두번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푸른 꿈이 내려치고 삶의 희열과 기백이 약동하는 시절, 창조와 위훈과 열정이 솟구치는 가장 보람차고 빛나는 이 시절을 사람들은 누구나 깊은 인상속에 소중한 간직한다.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자랑찬 이 청춘기를 가장 보람있게, 그리고 가장 빛나게 장식하는 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 하여야 할 마땅한 의무이며 도리이다.

청년들이 건전하고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역세계 자라날 때 나라와 민족의 장래도 믿음직하게 담보된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함께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청춘기에 사는 우리청년들처럼 그렇듯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세대는 이 세상에 없다.

때문에 우리 시대 청년들은 높은 투쟁목표와 아름다운 이상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하여야 하며 그속에서 삶의 가치와 보람과 희열을 느낄줄 알아야 한다.

청년들은 누구에게나 이상이 있다. 우리 시대 청년들치고 삶의 목표와 이상이 없는 청년들이란 있을수 없다.

꿈이 많고 넘치는 포부와 희망을 안고사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상은 떼여낼수 없는 귀중한 삶의 이정표로 된다.

리상은 삶과 투쟁의 목표이며 지향이다. 뚜렷한 목표와 지향이 있어야 삶의 보람과 투쟁의 가치를 느낄수 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길에서 강 의한 의지와 정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의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됩니다. 자기의 개인적욕망을 아무리 마음껏 충족시켜도 사회와 집단의 발전에 기여한것이 없다면 그러한 한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허무한것으로 되고 말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속에서는 자기의 청춘기를 아름답게 장식하고있는 훌륭한 미거들이 무수히 창조되고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아름다운 공산주의적미풍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개

인의 향락과 리익을 바쳐나서는것을 더없는 행복과 영광으로 여기고 살며 싸워나가는데서 표현되고있으며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의리를 간직하고 혁명동지를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사심없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도와나서는 고상한 동지애의 정신에서 그리고 사회주의대전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에 뛰어들어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청년다운 기백과 투지, 열정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 옳은 주체의 미학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있을뿐아니라 실지행동을 통하여 신념화된 의지를 남김없이 시위하고있다 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충실하여온 우리 작가들은 오늘의 우리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높은 이상을 가지고 미래의 주인으로 역세계 자라도록 고무하는 작품들을 창작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작가들은 이미 장편소설 《평양시간》, 《청춘송가》, 《야금기지》를 비롯하여 중편소설들인 《세대》, 《병사의 고향》, 《갈매기는 먼바다로》와 같이 청년들의 보람찬 투쟁과 약동적인 생활을 담은 작품들을 내놓았으나 아직 우리 시대 청년들의 꿈과 희망과 이상문제를 본격적으로 취급한 작품을 주지 못하고있으며 특히 현시점에서 청년교양문제를 심도있게 형상한 작품들을 활발하게 창작하지 못하고있다.

청년들이 옳은 미학관과 함께 아름다운 이상을 지니고 당과 수령,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혁명의 미래를 향하여 역세계 싸워나가도록 정서적으로 교양하는것은 당적작가들이 지닌 중대한 사명으로 된다.

작가들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 아름답고 숭고한 이상을 안고 창조와 위훈의 서사시를 펼쳐나가는 자랑찬 모습을 여러 문학형태에 담아 더 좋게 더 많이 형상하는데 온갖 창조적열정을 바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구감으로 되는 긍정적주인공,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삶과 이상을 지닌 새형의 청년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는것이다.

우리에게는 지난날 높은 이상과 포부를 안고 혁명을 위한 길에 청춘을 바친 수많은 청년전위, 영웅전사들의 전형이 있다.

조선혁명의 뇌수이며 심장이신 **김일성** 동지를 민족재생의 은인으로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길에서 추호의 드림도 모르는 순결한 충성심과 뜨거운 효성을 지니고 20 대의 꽃나이로 한생을 바친 김혁, 차광수, 최창걸, 계영춘 등 청년투사들의 전형이 무수히 있다.

조국광복의 려명이 밝아오는 바로 전야에 해방성전에서 열아홉 꽃나이로 생을 마친 나 어린 투사들과 려명을 바라보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투사들의 숭고한 넋을 생각할 때 그들이 바라고 원한것, 그들이 리상하며 생을 바친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의 우리 청년들의 심장속에 의의깊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항일혁명투사들의 고귀한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의 존토를 사수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서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한 청년영웅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우리 시대 청년들을 고무해야 한다.

당시 10대, 20대의 청춘들이었던 리수복, 리대훈, 강호영, 조근실 영웅들이 간직한 푸른 꿈과 리상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조국의 양양한 미래와 함께 학창시절에 키워가던 포부와 희망과 리상을 그들은 조국의 운명과 밀접히 결부시켰으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희망도 기꺼이 웃으며 바쳤던것이다.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고 아군의 돌격로를 개척한 리수복영웅이 돌격조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수첩에 남긴 말을 다시한번 되새겨보자.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얼마나 뜨겁게 그리고 세차게 우리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말인가.

움트는 봄날의 꽃망울처럼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한 열여덟 꽃나이에 참다운 삶의 가치와 청춘기의 푸른 꿈과 리상의 참뜻을 절절히 깨우치고 간 영웅이 심장으로 새긴 이 불멸의 글발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개인의 희망과 포부와 행복, 지어는 생명마저 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간직하는 조선청년들의 긍지, 삶과 투쟁의 목표와 지향을 절대의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것이다.

숭고한 인생관과 아름다운 미학관을 간직한 조선청년들의 미거는 전후 채터미숙에서 위대한 창조와 건설의 서사시를 펼쳐나가던 전후복구건설

시기와 사회주의대건설시기에도 헤아릴수 없이 많이 창조되었다.

은 나라가 전쟁의 폐허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구건설에 떨쳐나섰을 때 수도청년건설자들은 밤과 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었다. 땅을 파헤치며 질통을 지고 뛰고 또 뛰었으며 도로를 포장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집을 짓고 공장을 복구하였으며 유보도와 유원지도 건설하였다.

그때엔 누가 시켜서 한것이 아니었으며 보수나 명예를 바라서 한것도 아니었다. 재물이나 권세를 탐내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런 생각을 꿈꾸는 일을 오히려 불명예로, 수치로 생각하였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높은 자각과 깨끗한 충성심을 가지고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었다.

이 힘이 결국 천리마의 기적과 위훈을 낳게 하였으며 생산과 건설, 인간개조의 대진군을 불러오게 하였다.

은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이 되어 화목하게 일하고 생활하였으며 사람들 모두가 선하고 아름다운것을 지향하였다.

은 사회에 미담과 미거들이 련이어 창조되는 가운데 길확실, 리신자를 비롯한 천리마기수들, 청년영웅들이 속출되고 시대의 리상을 재현한 문학작품들인 단편소설 《길동무들》, 《〈해주-하성〉서은 편지》, 《백일홍》, 희곡 《붉은 선동원》과 같은 작품들이 쏟아져나왔다.

청년들을 아름다운 리상으로 고무하는 시대의 전형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이 진행되는 오늘의 벽찬 현실속에서도 무수히 창조되고있다.

서해간석지공사장과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 서해갑문, 북부철길, 평양-개성사이고속도로로, 광복거리 건설장을 비롯하여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 건설장마다에서 위훈과 기적을 창조하는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유명무명의 영웅들이 수없이 속출되었다.

그들은 모두다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아름다운 리상을 집대성한 자랑스런 청년주인공들이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아름다운 품모는 사회주의대건설장에서 위훈을 세워나가는 청년건설자들에게서만이 아니라 가장 숭고한 인간애, 뜨거운 동지애를 지니고 개인의 행복과 리익을 동지를 위해바쳐나가는 아름다운 품모에서도 표현되고있다.

이것은 주체의 미학관으로 무장된 새형의 청년새 세대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숭고한 모습이다.

조국보위초소에 복무하다가 두눈을 보지 못하게된 영예군인 조영수동무에게 심장으로부터 우려나오는 순결한 사랑을 바쳐 한생의 반려자가

되어준 안변군 문수협동농장 농장원 김명숙동무와 하반신마비로 제대된 영예군인 박두천동무의 손과 발이되어 운명을 같이할 한쌍의 동반자로 나선 그의 안해 한명옥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청년들의 고상한 료리와 미덕의 거울이 되어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다.

재산이나 권력, 외모 같은것에 현혹되는 리기적인 료리관을 가장 저렬한것으로 여겼기에 그들은 조국과 혁명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 비록 몸은 불구가 되었지만 숭고한 리상과 참된 삶을 간직한 인간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영예군인 조영수동무는 자기 안해가 되어준 김명숙동무를 두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다.

《난 이 동무 얼굴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영 보지 못할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무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녀성의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져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다.

인간의 참된 행복, 참된 인생의 가치를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영예군인들을 위해 바치는데서 찾고있는 이런 녀성들이야말로 우리 시대 청년들이 삶의 귀감으로 자랑하고 내세워야 할 새형의 청년들이다.

작가들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와 아름다운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는 오늘의 벽찬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새형의 청년들의 사회적전형을 적극 찾아내여 높은 수준에서 일반화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 새형의 청년-공정적주인공의 전형적형상을 통하여 참된 인생관, 미학관을 지닌 미래의 주인으로 청년들을 교양하는 한편 시대의 리상에서 뒤떨어져 목표없이 하루하루를 값없이 보내는 락오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반증교양도 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작가들은 높은 리상과 투쟁목표를 지닌 우리 시대 청년주인공의 모습과 그들의 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전형화하여야 한다.

작품에 그려지는 인간성격과 그를 둘러싼 생활은 어디까지나 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의 본질이 체현된 전형적인 인간, 전형적 인생화로 되어야 한다.

인간과 생활을 시대와 사회제도와의 관계속에서 보여준 문학예술작품만이 진실성이 구현된 작품으로 실현될수 있으며 시대와 생활의 참다운 거울로 될수있다. 오늘의 벽찬 현실은 그에 상응한 새형의 청년주인공, 투쟁하기 좋아하고 혁명하기 좋아하는 리상이 높은 긍정적주인공의 전형적인 모습을 창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초소에서 창조와 위훈이 나래치는 대건설전투장들에서 현대과학의 첨단에서 과학탐구와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에서 우리의 미더운 청년세대들은 조국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진 혁명의 교대자로서의 자기의 성스러운 임무를 다하고있으며 주체의 미학관을 바로세워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숭고한 동지애를 높이 발양하면서 시대의 새로운 료리를 궁지높이 창조해나가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시각마다 놀라운 기적과 혁신이 이룩되는 경이적인 현실속에서 위훈의 탑을 쌓아가는 청년주인공들의 성격적핵을 잡아쥐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일반화하여야 하며 높이 세운 투쟁목표와 리상이 위대한 현실로 실현되는 투쟁과정에 대한 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형상하여야 한다.

특히 낱고 뒤떨어진 관습과 생활태도, 낱은 사고방식과 리상을 박차고 건전하고 혁명적인 관점과 태도, 시대의 높은 리상을 확립하고 우리 식으로 살며 전진하는 오늘의 우리 시대 청년들의 생기발랄하고 약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작가들은 현실의 본질에 맞게 긍정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긍정의 힘, 긍정의 영향력에 의하여 부정이 긍정으로 전환되는 생활의 료리, 생활의 법칙을 힘있게 확인하여야 한다.

리상이 높고 지성이 강한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고 하여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떠나 부정을 과장하거나 문제의 첨예성과 극성을 조성한다고 하여 일면적으로 부정을 예리화한다는것과 같은 비전형적인 취미에 떨어저서는 안된다.

우리 작가들은 비약하며 약동하는 현실, 생활이 투쟁이고 투쟁이 곧 생활로 펼쳐지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오늘의 우리 청년들의 사상과 의지, 각오와 신념, 량만과 투지의 세계를 대범하고 폭이있게 그려야 하며 숭고한 리념과 의리, 고상한 사랑과 인간애의 료리를 정서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형적인 성격, 전형적인 생활을 그린다고 하여 판에 박은 인간, 격식화된 인물을 들고나오거나 도식화된 생활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성격을 리상화하거나 생활을 미화분식하는 식으로 외곡되게 형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인간과 생활을 전형화한다는것자체가 곧 도식과 류형을 배격하고 개성적인것을 들고나올것을 요구한다.

작가들은 높은 리상을 안고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해 비약하며 전진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전형적인 생활속에서 의의있게 형상하면서 개성이 있고 다면적인 성격과 각이한 기질로 구별되는 이채로운 형상을 다양하고 풍부

한 생활속에 담아 보여주어야 한다. 한편 개인적인 취미에 의하여 고안된 인물이나 속된 생활, 시대의 번두리를 에둘면서 찾아낸 생활과 어떤 운명적인 기구한 련정문제같은데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작가들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들에 혁명적랑만성을 격조높이 형상하도록 해야 한다.

혁명적랑만성을 구현하는것은 생활을 혁명적발전속에서 보여주는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은 현실공정의 기백이 강한 문학이며 공산주의사회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며 비약하는 미래의 사회, 미래의 생활을 적극 긍정하며 옹호하는 문학이다.

특히 청년들의 생활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혁명적랑만성을 구현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청년들이 미래의 우리 사회의 주인이며 미래를 열렬히 사랑하는것은 주체형의 청년들의 중요한 품성으로 되기때문이다.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열에 넘치고 투쟁의욕이 왕성하다. 특히 꿈이 많고 이상이 높은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열망과 애착이 누구보다 강렬하다.

따라서 청년들은 오늘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으며 보다 높고 휘황한 앞날을 위하여 불굴의 의지와 솟구치는 정력을 남김없이 발휘한다.

오늘도 좋지만 찬란한 조국의 미래와 련결된 강렬하고 격동적이며 랑만이 흘러넘치는 참신하고 열정적인 생활을 적극 탐구하는것은 청년들의 활력있는 모습에 어울릴뿐아니라 그들의 비위와 기질에도 맞는 생활로 된다.

랑만과 위훈, 사랑과 열정이 나래치는 생활을 찾아 청년들의 리상과 꿈이 약동하는 활무대를 형상으로 옮기기 위해 작가들은 청년들의 생활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혁명적랑만성은 단순히 어떤 랑만적인 화폭을 제시하는것으로써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랑만성은 무엇보다먼저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 꿈이 많고 이상이 높은 인물들의 성격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현실을 앞서나가면서 새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주인공의 리상적인 성격속에 체현되어야 한다.

주인공을 리상화한다는것과 리상적인 주인공, 리상적인 성격을 창조한다는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앞을 못보는 영예군인청년을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우러러보고 그와 일생을 같이하여 새 생

활을 창조해나가려는 순정을 지닌 처녀야말로 얼마나 리상적인 인간으로 돋보이는가.

혁명적랑만성은 또한 청년들의 취미와 기질에 맞는 생활분야를 탐구하고 높은 리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미래에 대한 열렬한 지향속에서 형상할 때 실현되게 된다.

오늘의 위훈과 투쟁을 긍정하고 옹호하는것만으로는 찬란한 미래와 련결된 청년들의 랑만적인 생활을 특색있게 보여줄수 없다.

생활은 전진하며 비약하는 시대와 함께 숨쉬며 사람들도 생활과 함께 몰라보게 달라진다.

때문에 가령 청년들의 랑만과 위훈이 창조되는 서해간석지와 철도부설공사장, 무한대의 지혜와 창조력이 탐구되는 미지의 과학분야를 탐색하는 생활을 보여주는 경우 반드시 조국의 미래와 운명적으로 련결된 주인공의 생활을 지향적인 과정속에 보여주어야 하며 전진하는 시대와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리상적인 생활로 승화시켜 펼쳐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작품전반에 생기있고 참신한 생활이 관통되게 되며 랑만적정서가 차넘치게 된다.

혁명적랑만성은 또한 청년들의 심금을 울리는 랑만적이며 정서적인 묘사와 격동적이며 열정적인 토로, 박력있고 참신한 문장을 통해서도 실현된다.

호수와 같이 담담하고 파도와 같이 격정이 넘치며 시내물처럼 잔잔하면서도 우뢰와 같이 격렬한 특색있는 문장, 한번 읽기 아쉬워 가슴속에 간직하며 읽고 또 읽고 외우게싶게 안겨오는 은은하면서도 사색적이고 여운을 주는 문장, 격동에 넘치게 하고 정열을 치솟게 하는 기쁨기있는 문장을 뽑아내기 위하여 탐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시대 청년들의 리상의 문은 공산주의 휘황한 앞날처럼 무한대하게 열려져있다.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며 끝없이 높고 광활한 리상을 안고 확보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희망차고 약동적인 생활을 인상깊은 다양한 화폭에 담아 더 많이, 더 좋게 형상하는것은 우리 시대 당적작가들의 숭고한 임무로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혁명의 교대자들인 우리 시대 청년들을 교양육성하는 영예로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나라의 귀중한 꽃이며 보배인 청년들을 활력있는 믿음직한 부대로 억세게 키워내기 위해 창작적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야한다

우리의 청춘

김일규

새날의 노을을 마중해서면
저도 몰래 용솟는 새 힘에
불끈 쥐어보는
주먹에
팔뚝에
두드러지는 붉은 피줄

두려운것 없다
이 시절엔
떨치고싶다
용솟는 힘을

그 주먹으로
현란한 보따리에 싸안은 자신의 안락을
풍창대는 놀이판에서
달콤한 추파에 몸을 맡긴 추악을
시대의 오물창에 처넣은
너 조선의 청춘아

마치를 손에 쥐어
그 어떤 거물인들 못만들어냈더냐
과학의 대문앞에 서서
그 어떤 요새인들 못열어제꼈더냐
총을 쥐어
그 어떤 원썬을 물리치지 못했더냐

한 어머니만이 아닌
고향의 처녀만이 아닌
온 나라 마음에 사랑스러웠더란다
조국은 무슨 훈장이든
가슴가슴에 달아주고싶었더란다
얼음장 덮인 날바다밑에서도
신념의 노래 부르던 그 가슴가슴을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를 이기며
은빛궤도를 날려온 그 뜨거운 가슴가슴에

먹은 나이로만 보이지 않았다
수염발 없는 얼굴이 애티나지 않았다
대비날론기지건설장
통채로 들어올린 대형트라스아래서
아버이수령님 껴안아주시던 그 모습은
우리 시대의 투사들이었다
창조의 거인들이었다

당이 부르는곳마다 위훈을 새겨놓고

새로운 건설장으로 떠나는 대오우에
눈비에 씻겨 색바랜 그 붉은 기폭의 나뭇김을
사람들은 무심히 보지 않았다
결전의 언덕에서 포화에 그슬린
그 기발처럼 숨었었다

그 기폭 나뭇기는 우등불가에선
사랑의 속삭임도
벗들의 우정도
불같이 뜨거웠다
어머니 품에서 서로 달리 받은 모습
그 기폭아래선 한모습처럼 뭉뚱했다

나이가 젊어
간직한 추억은 많지 않아도
전투에서 전투대로
창조에서 창조대로
투쟁속에 이어지는 오늘에
청춘을 지냈음이 얼마나 행운이냐

청춘아
불같은 시절아
안식의 창문가에 등잔불같이
너는 가없지 않아라
개인의 울타리를 불사르고
시대의 한복판에 뛰어들면
투사로
영웅으로
조국과 함께 영원히 젊을 우리의 청춘

청춘은
시련속에서
주저함을 모르는 열정의 화신
가장 어려운곳에서
가장 귀중한것을 선포 바쳐
조국에 영원한 젊음을 넘겨준
그 모습이더라 청춘은

아 넓은 가슴 쪽 펴고
활개치며 걷는 그 빛나는 눈동자우에
정차게 날리는 검은머리가
용모만을 돋구려 술치지 않아라
조국을 위태 바친 청춘의 머리우엔
영원히 흰서리가 내리지 않으리

수필

광복의 천리길이 시작된곳에서

리병근

아이들의 밝은 웃음에 받들린채
내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큰문열고 나서려니
가슴벌게 안겨오는 대통로
광복거리 넓은 길이어
아, 이길로 바로 이길로
우리 수령님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였구나

너무도 일찌기
열네살 그 나이
너무도 어리신 한가슴에
크나큰 맹세를 안으시고
광복의 첫 걸음 내디디신
우리 수령님

그날엔
송산의 푸른 소나무 바람에 몸부림치고
따라서며 짙신자욱 메워주던 눈보라
어디선가 들려왔을 겨레의 신음소리
그래서 그래서 다그쳤으리

정다운 고향을 뒤에 남기고
타향천리 싸움길을 재촉했으리
광복된 조국땅우에
이런 아이들 궁전을 그리시며
광복의 천리길, 만리길을 걸으신
아, 우리 수령님
열네살 꿈많은 동심을
깡그리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주시려
광복의 천리길을 떠나셔야 했으니
떠나시던 그 시작점에
우리 아이들의 새 궁전
세상에서 제일 좋게 세우셨구나

아 소리쳐 웨치고싶구나
우리 수령님 열네살 그 나이
광복의 천리길 떠나시던
력사의 그 지점에
세상에서 제일 밝고 행복한
조선아이들의 티없는 웃음이
끝없이 끝없이 피어나고있어라!

조소의 산발에 해가 솟는다

김철혁

눈덮인 전호속에서
나는 오늘도 맞이한다
희속희속 들리는 새벽하늘
그 한끝을 물들이는 새날의 첫 빛발을

이 시각
잠깼 천만의 눈들은
이 새벽빛을 창너머 바라보리
새날을 시작하는 조국강산
봄비는 출근의 거리들우엔
이 빛발 기쁨으로 뿌려지리

아, 이 순간을 향해
수호의 밤을 넘어 나는 왔다
전호가 언땅을
총창과 함께 그러안고

왔다
갈숲을 흔드는 바람소리
언뜻 사라지는 짐승의 그림자
온몸이 눈귀가 되어
그 모든 징후를 조성우에 잡아세우며

눈보라는 태질하며 뺨을 갈기고

밤은 먹물을 풀고 풀어도
감시의 눈동자 적정 천리를 꿰뚫었고
불을 안은 심장은 얼쿨수 없었나니

어찌 겨울밤이 길었으랴
한순간 한순간에
온 녀을 바쳐
한밤을 이어온 째없는 전투속에
또 하루 지켜진 조국의 이 아침

내 성에 불린 눈길을 들어

바라보는 저 산발너머
해가 솟는다
아, 병사의 가슴
끝없는 환희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순간이여

수호의 자각에 온 심장 불붙어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온
병사의 가슴에 해가 안긴다
새날을 맞는 조국강산에
아, 병사는 해를 안고왔다!

스승의 모습

김철민

이제는 퍼그나 늙으셨으리
그 술종던 쌍태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유정하던 눈가에도 실주름이 흘렀으리
허나 내 가슴속엔 오늘도 여전히
처녀선생님으로 남아있는 스승의 모습이여

손가락 그림자로
고양이도 그리고 망아지도 그리며
해빛과도 장난을 못참던 그 시절
말썰많은 우리 학급에
그렇듯 젊고 아름다운 처녀선생이
문득 배치되어왔거니

지금도 눈에 선히라
처음으로 교단에 나섰던 그 모습
호기심 많은 까만 눈동자들앞에
당황함을 참고서 짓던 그 미소

허나 우리는 차츰 알게 되지 않았던가
얼굴 먼저 마음이 아름다운 선생님
누나가 되어 어머니가 되어
기울인 그 진정...

이십리 먼 산골마을로
내 산수풀이를 도우려 찾아온 선생님
밤이슬에 젖은 치마폭을 감싸며
우리 집 불빛아래 앉을 때
어린 마음에도 찌릿하던 날들이여

흐르는 세월과 함께
그날에 배운것은 하나 둘 잊혀져도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노라
한창 좋은 그 나이에 까매서 뛰어다니던 그모습
은
철이 들수록 더 삼삼해지거니

내 오늘도 머리를 수그리노라
해비에 곱게 씻긴 백양나무도
교문가에 함께 심으며
조국애의 뿌리를 내려주던 그 모습앞에
다 자란 우리를 그 백양나무아래서 바래우며

세상에 새 인간들을 낳은 기쁨이
두줄기 눈물로 내리던 그 모습앞에
아, 따르고싶고 본받고싶은 첫 모습으로
순진한 눈동자들에 비끼는 스승의 모습
세월도 그우에 선뜻 백발을 엮지 못해라
세상도 그 모습 차마 지우지 못해라

하거니 선생님들이여
조국이 미래를 맡긴 귀중한분들이여
범상한 이야기래도 이것만은 명심해다오
후대들앞에 서있는 그대들의 모습
한생의 거울이 되어
량심의 별이 되어
그들과 한생을 함께 산다는것을...

더운 김 피는 땅

윤승상

풀안에는 옅은 안개가 끼었다. 안개는 부지런한 농민의 손길같이 새벽 이맘때이면 한창 무르익는 동산의 과일나무열매들을 어루머듬고 언덕의 사래진 이랑들을 주무르고나서 지친듯 풀안길에 누워버린다. 빨간 기와집지붕들은 안개우에 뿔뿔히 떨어져서 풍겨나는 밭김냄새, 아이들을 깨우는 녀인들의 정겨운 목소리, 웃음소리, 기침소리,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안개속에 흐르는 산촌의 감미로운 향기와 생활의 화음에 온몸이 녹아드는듯하여 유선하는 잠시 길목에 섰다.

3 대혁명소조원 유선하에게는 날이 갈수록 이고장의 모든것이 정다웁게만 느껴지었다. 그는 가슴을 찢듯케 하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방긋 미소를 보내었다. 그리고는 안개에 녹녹해진 얇은 하늘색머리수건밑으로 머리칼을 밀어넣으며 마을을 돌아보았다. 그는 빨간 기와집지붕아래 행복한 생활이 숨쉬는 아름다운 마을을 보며 이곳 사람들이 정말로 큰일을 해놓았다고 생각하였다. 지난해 가을 그가 처음 이곳에 배치를 받고올 때 군당의 한 일군이 들려주던 말이 문득 떠오른다.

《도봉리는 참 좋은곳이요. 사람들도 좋구… 관리위원장은 20 여년전에 그곳으로 부임되어갔는데 가자바람으로 문화주택마을을 건설했소. 손탁이 센 사람이요. 농사도 잘 짓구… 그곳에 정들이면 아마 소조원동무도 떠날 생각을 잊을게요. 허허허…》

그 일군의 말은 진실이었다. 한해사이에 그는 정녕 이 마을에 정이 들었고 영원히 눌러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이고장 사람들의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에 정이 들었다.

그는 지금 풀안막바지에 자리잡은 소석회분조로 우완명아바이를 만나러 간다. 지난해 가을 어느날 아바이네집에 들렸던 뒤로 선하는 온통 그에게 마음이 끌려버렸다.

그때, 우완명아바이는 소석회분조장자리를 젊은 사람에게 넘겨주고 년로보장을 받으며 쉬고있었다.

《어이구, 소조원이 어떻게 우리 집엘 다…》

처음 찾아갔을 때 아바이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앉으며 그를 맞이하였다. 약간 등이 굽어앉은키는 더욱 작아보이고 강마른 갱년한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했다.

《어디 아프신가요?》

유선하는 근심스레 물었다. 그리고는 아바이가 누웠던 아래목에 두손을 짚어본 다음 조용히 자

리에 앉았다. 방바닥은 파스했다.

《아니우다. 할일이 없으니 누워있을밖에… 그래 어떻게 왔소?》

아바이는 어서 용무나 말하라는듯 잔주름이 엉킨 눈시울을 껌벅거리며 소조원을 쳐다보았다.

유선하는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사실 아바이와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러 왔다. 지금 농장에서 제일 걸리고있는 문제는 토지개량사업이었다. 이곳에 와서 처음 유선하는 농장원들의 잔진 일숨씨에 탄복하였었다. 논밭에는 풀 한포기 없었고 곡식들은 일매진 작황을 이루고있었다.

그러나 가을걷이에 들어서고 마당질이 시작되면서 그는 실망하였다. 많은 포전들이 공동인만큼 응당한 소출을 내지 못하는것이였다. 그것이 바로 땅이 산성화된 까닭임을 알았을 때 유선하는 가슴이 아팠다. 왜 아직 이 땅을 개량하지 못했을까? 땅이 이처럼 병들어 누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있을까? … 그는 땅의 신음소리를 듣는것만 같았다. 농장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그들 역시 산성화된 땅을 두고 안타까와하고있었다. 그렇지만 토지를 개량하자면 소석회를 쳐야 하는데 농장 소석회분조에서 나오는것만 가지고는 그 수요를 충당할수 없다는것이였다. 유선하는 이 문제를 꼭 풀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해마다 알곡계획은 높아지는데 땅을 개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확고를 올릴수 있으랴. 그는 당이 이곳에 자기를 파견한 목적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바로 이 문제를 풀라고 당은 여기에 나를 파견한것이 아니겠는가! … 그는 산성화된 땅을 조사장악하느라고 농장포전을 돌아보면서 한가지 묘안을 찾아냈다. 밭머리, 논머리마다에서 연기를 피워올리며 흙구이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소석회도 저렇게 여러곳에서 구워낼수 없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소석회분조에만 매여달릴게 있는가? 원석을 실어다가 밭머리, 논머리마다에서 저것처럼 구워내면 될게 아닌가! … 그는

관리위원장과 토론해보았다. 그전날 큰일을 하여 높은 수훈을 받은 공로자인 관리위원장을 유선하는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다. 그런데 관리위원장은 머리를 끄덕이면서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기술적으로 결린다는것이였다. 이런 문제는 오랜 소석회구이 기술자인 우완명아바이와 토론해봐야 할텐데 그를 사정하듯 떠밀어 집으로 들여보낸 자기가 어떻게 또 일감을 맡기겠느냐는 것이였다. 그리하여 선하는 리당비서를 만났고 그와 합의한 끝에 자신이 아바이를 만나기로 하

였다.

《전… 무얼 좀 의논하자구 찾아왔어요.》

선하는 조용히 자기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그가 말을 끝마쳤을 때 아버이는 주름투성이의 눈시울을 자주 껌벅이더니 절반쯤 내리잡았다.

《소석회?… 발머리나 논머리에서 바로 귀내잔 말이지…》

아버이는 무엇인가를 궁리하는 모양이더니 아래목구석에 놓인 담배그릇을 끌어당겼다.

《생각은 그럴듯하우다. 나두 그전에 저 앞산코숭이에다가 조그맣게 로를 쌓구 돌을 구워놔수다.

그땐 이제처럼 무연탄으루 굳게 아니라 술가지를 쳐다가 태웠수다. 풀무질을 하느라구 팔이 떨어지는것 같았다니까… 농장이 되문서 거기에 커다란 로를 쌓구 연방 귀내는바람에 석회석이 팔려 지금은 이 끝안 막바지루 자리를 옮겼지만 상기두 앞산 벼랑턱엔 석회석이 남아있수다.… 허허, 내가 무슨 주책없이 옛말을…》

아버이는 기침을 쿨룩거렸다. 기침이 몇자 붙이 패이게 담배를 들이빨았다. 그리고는 한숨처럼 길게 연기를 뿜고나서 한마디 덧붙이였다.

《어디 젊은이들하구 의논해보우다.》

《전 아버지한테서 도움을 받자구 왔어요.》

《나야 뭐 이제 일손을 놓은 몸이 아니유.》

아버이는 얼굴이 침울해졌다. 할말을 다한듯 담배만 피웠다. 선하는 아버이를 리해할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대하는듯싶더니 무슨 생각이 나서 이렇게 덤덤히 앉아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는 아버이의 얼굴에 그려진 무수한 주름살과 침울한 그늘에서 류다른 번민의 흔적을 보았다. 아버지에게는 무언가 가슴에 맺힌 것이 있는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싶었지만 선하는 더 말을 걸수가 없었다.

그날밤, 유선하는 아버이가 말하던 앞산코숭이로 갔다. 수확한 들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풀잎들을 와수수 건드리였다. 하늘에서는 배부른 반달이 구름속을 헤엄치고있었다. 어스름달빛이 내린다. 선하는 그 빛이 성차지 않아 마른 풀잎들을 모두어 불을 지켰다. 그리고는 해불처럼 그것을 추켜들고 벼랑밑을 돌아보았다. 아직 돌이 여기에 착실히 남아있는것이 기뻐다. 그는 다 타든 불뭉치를 던지고 허리춤에서, 망치를 뽑아들었다. 그는 여기서 실험적으로 먼저 돌을 구워내고싶은 욕망으로 한껏 심장이 뛰는것을 억제할수 없었다. 꼭 로를 쌓아야만 돌을 구울수 있을가?

모닥불 놓듯 아무데서나 구워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바람, 바람… 바람만 불어주면 벌치않은 나무로도 구울수 있단말이지… 참, 아버이가 아직 젊었다면 함께 일해보자구 할텐데… 그는 망치로 연방 돌을 두드리였다. 망치질소리는 벼랑가를 짜랑짜랑 울리며 밤공기를 타고 멀리로

퍼져갔다.

그는 밤이면 벼랑가로 올라가 석회석자갈을 깨었고 낮이면 수리분조에 나가 자그마하게 송풍관을 제작하는 일에 붙었다. 손으로 풍구질을 해서라도 한번 돌을 구워볼 생각이였다.

송풍관을 만들고 자갈도 착실히 갠 다음 그는 첫 실험을 앞두고 다시금 아버이를 찾아갔다. 아무래도 아버이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았다. 경험많은 아버이가 곁에서 지켜봐주기라도 한다면 마음이 놓일것 같았다.

그날도 아버이는 방안 아래목에 누웠다가 유선하를 맞이하였다.

《또 왔나?》

《예. 아무래두 아버이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애요.》

유선하는 비스듬히 일어나앉은 아버이를 부축하며 미소를 지었다.

《전 요즘 석회석을 좀 깨여놔어요. 송풍관두 만들구… 헌데 정작 불을 지피자니 혼자선… 아버이가 나오셔서 그저 지켜봐주시면 제 마음이 든든해질것 같애요.》

아버이는 전날처럼 담배그릇을 당겨놓고 두툼히 되초를 말아피웠다. 아버이는 말이 없었다. 뽕안담배연기와 함께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담배한대를 다 피우고나서야 아버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소조원은 왜 나갈은걸 자꾸 끌어내지 못해서 그러나?》

아버이의 목소리는 조용히 울렸으나 유선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이것은 일이 여차하든 자기는 상관없으니 어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닌가? 아버이의 주름투성이 얼굴에는 몹시 괴롭고 귀찮아하는듯한 표정이 어렸다. 선하는 그만 눈물이 쏟아지려하는것을 가까스로 참아냈다. 더 말할기맥조차 없어진 그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어쩌면 이렇게 고집이 셀가? 이런 아버지에게 무엇을 더 바랄수 있겠는가?… 선하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한동안 덤덤히 앉아있었다. 입을 열면 왕청같은 말이 튀어나갈것 같았다. 한참만에 그는 몸조리를 잘하랴 이르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곧장 벼랑가로 갔다. 무드기 쌓인 자갈더미를 딛고 오르려는데 웬일인지 맨발을 벗은듯 발바닥이 아팠다. 그는 자갈더미 곁에 주저앉아 신발을 벗어보았다. 닳을대로 닳아 종이장같이 얇아진 로동화바닥은 앞코숭이쪽에 퉁알만한 구멍이 났다! 로동화는 집을 떠나올 때 어머니가 배낭속에 넣어준것이였다. 여기 와서 처음신기 시작한것이 석달만에 벌써 밀창이나갔다. 신발이 이렇게 닳도록 내가 해놓은게 무엇일가? 그저 싸다니는게 일이였을가? 헛걸음을

치면서…소비는 있으나 창고가 없는 나날속에 어느덧 석달이 지났다고 생각하니 유선하는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갔다. 이런 식으로 3 년세월이 흘러 지나가버리고말것 같은 위구심에 가슴이 떨렸다. 아무것도 해놓은것 없이 소조기간이 끝나는 날이면 당앞에 파견장을 바치며 무엇이랴 보고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농장원들앞에 무엇으로 인사를 남기겠는가. 소조기간을 후회없이 살기 위해서도 그는 기어이 새로운 소성법을 완성하여 농장에 현실적으로 걸리고있는 토지개량문제를 해결하리라 결심하였다.

그날밤이었다.

어느때나 되였는지 그가 한창 망치를 휘두르며 돌을 깨고있는데 별안간 땃발자국앞에서 성냥불이 확- 일더니 가리워졌다. 그는 웬 사람이 우뚝 서있는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바람을 막은 손바닥안에서 가물가물 타고있는 성냥불을 입가로 가져갔다. 담배가치를 문 두툼한 입술이 비쳐졌다. 성냥불은 발치에 떨어지고 입술끝에서 빨갭게 담배불이 반짝하였다. 그 사람은 땅에서 무엇인가를 주슬러 옆에 끼더니 이쪽으로 다가왔다. 우완명아바이였다.

《아니, 아바이가 어떻게?!…》

《그저 잠이 안오길래…》

아바이는 옆구리에 커다란 나무단을 끼고있었다. 선하는 속이 확 달아올랐다. 낮에 보던 아바이와는 생판 다른 늙은이가 그의 옆에 서있는것 같았다. 아바이는 나무단을 끌어헤치고 성냥불을 켰었다. 불길이 일었다. 장작이 섞인 쉼나무는 탁탁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자, 어서 불을 쪼이라구.》

아바이는 얼이 나간듯 서있는 소조원에게 쉼나무를 깔고앉으라고 한줌 쥐여주었다. 그것을 받아들기는 했으나 선하는 인차 자리에 앉을수가 없었다. 불이 아닌 뜨거운것이 가슴을 후덥히었다.

《추운줄 모르겠어요.》

《원 저런… 얼굴에 땀이 흐르는군… 소조원! 낮엔 미안하게 뻘어. 늙은문 노엽두 많다네. 섭섭해 말라구. 일손을 놓구 집에 들어왔으니 이젠 꼭 불죽은 화로같은게… 그래서 그저…》

아바이는 사과하듯 말했다.

《고마와요. 아바이! 전 아바이가 이밤중에 나오실줄은 정말 짐작두 못했어요.》

유선하는 쉼나무를 깔고앉았다. 그리고는 망치자루를 쥐었던 알알한 손바닥을 불에 쪼이며 아바이를 건너다보았다.

《난 요즘 잠을 못자네. 매일밤 이 망치질소리들었지. 여기서 모닥불이 피는것두 보구…》

유선하는 아바이의 마음이 이미부터 이쪽으로 기울어져있었음을 알아챘다. 그는 존경어린 눈길로 아바이를 바라보았다. 오랜 인생을 살아온 지

금 일손을 놓은것이 당연하면만 외로움에 잠못드는 아바이, 이런 아바이를 나는 고집쟁이라고 속단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울리는 망치질소리를 들으며 아바이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으랴.

《집에 계시는게 답답하신 모양이지요?》

유선하는 미소를 띠며 한마디 물었다.

《답답하구말구.》

《그럼 일을 하시지요?》

《일?... 그러문 얼마나 좋겠나. 관리위원장은 꼭 옛날 효자같거든. 늙은이를 쉬게 하는게 제일 인줄 안다니까. 내 맘은 종시 알려구두 앓구... 내가 졌어. 끝내 일손을 놓구말았지.》

선하는 아바이의 고민세계가 느껴져서 마음이 울적해졌다.

《밤엔 정말 잠을 못자네. 어떤 땐 달빛에 끌려 밖으루 나오지. 둥근달이 덩실한 기와집지붕들을 비치구 하얀 회벽들을 비쳐 밤에두 눈이 부신데 집집에서 아이들이 웃구 노래부르는걸 들으문 그래두 내 인생이 허무하진 앓았구나 하구 생각된다네.》

아바이는 깊은 감회에 잠긴듯 마을쪽을 바라보았다. 선하도 고개를 돌렸다. 모닥불빛에 어려 주위의것만 보일뿐 마을쪽은 컴컴하였다. 하지만 아바이는 모든것이 보이는듯 눈길을 떼지 않았다.

《저 문화주택을 지을 때가 정말 사는것 같뻤어. 관리위원장이 오자바람 큰일을 했지. 나두 그때 한창시절였어. 그래서 밤낮 소식회를 껴내구 그걸루 불로크를 찍으문서두 도무지 힘든줄 몰랐다니까. 초가집을 헐어 거름으루 논밭에 내니 농사는 또 얼마나 잘됐겠나. 그래서 관리위원장이 군적으루 소문을 냈지. 평양에 가선 커다란 훈장을 받구. 허허허...》

아바이는 관리위원장이 받은 훈장이 마치 자기의 가슴에서도 번쩍이는것처럼 끝이 몽툰 두터운 손을 앞가슴에 가져가며 꺾꺾 웃었다. 그때의 보람이 어린듯 얼굴에는 굵고 가느다란 주름들이 부드러운 곡선을 지으며 고요히 물결쳤다.

유선하는 아바이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어린것이 기뻐다. 그렇지만 왜선지 아바이처럼 웃을수는 없었다. 한가닥 의혹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아바이는 그때의 일을 감회롭게 돌이키며 관리위원장이 소문을 내고 훈장을 받는데 대하여 궁지롭게 여기지 않는가. 그런데 관리위원장은 이것을 알거나 할가? 자기가 받은 영예가 어디서 빛나오른것인지... 선하는 아바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고장의 전변이 이룩된것이라고 믿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진실과 소박, 정의와 량심을 바치면서도 그 값을 모르고 그 어떤 출판물에 소개됨이 없어도 그것을 응당히 여긴다. 그러면 성실성의 그 값을 누가 계산해주어야 하는가? 우리 일꾼들이 과연 여기에 무관심할수 있단

말인가? 관리위원장은 정말 아버이를 불죽은 화로처럼 구석으로 밀어놓은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심중한 문제가 깔려있는것이다.

선하는 아버이의 심장속에 아직 빨강계 불이 살아있는것을 보았다. 입김을 불어 그 불꽃을 튕기기만 하면 화로처럼 온몸이 열정으로 달아오를것 같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보람찼던 그때처럼 일감을 주고싶었고 그에게서 도움을 받고싶었다.

《아버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전 여기로 파견되여올 때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테제를 깊이 연구했어요. 지금은 농촌테제가 완성되는 단계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땅은 여전히 산성화되고있거든요. 땅의 산성화를 막구 그것이 기운을써야 농촌테제가 완성된 다음에두 우리가 농사를 계속 잘 지을수 있지 않나요. 땅이 계속 힘을 쓰구, 해마다 풍년이 들구... 그러면 쌀로부터 공산주의를 실현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은 현실로 꽃필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선하의 눈앞에는 벌써 현실세계가 황홀한 금빛세계로 변해버린것 같았다. 마음은 어느덧 테제완성을 노래하는 기쁨의 언덕에 올라 북소리를 둥둥 울리는것 같았다. 멀지 않은 앞날에 펼쳐질 그 찬란한 언덕으로 아버이도 함께 가야 하리라 생각하였다. 이제 한걸음만 내딛으면 가닿을 그 마지막 령말에 아버이를 떨구어놓을수는 없었다. 아버이인들 왜 희망찬 그 언덕길을 마저 오르고싶지 않나라.

《땅이 기운을 쓰는데야 소석회를 제일이지... 나두 실상 소조원을 보내놓구는 별생각을 다 했다네. 고마우이. 소조원이 그런걸 다 궁리해내다니, 이고장에서 태어난것두 아니구 또 그냥 놀러살 사람두 아닌 소조원이 그렇게두 이 땅에 정을 바치려 하다니... 너무 애쓰지 말라구. 그까짓 일이야 사람 맘먹을 탓이지...》

아버이의 얼굴에는 결심의 빛이 어렸다. 활기가 피어났다. 선하는 눈곱이 뜨거워졌다.

《고마와요, 아버지!》

그는 눈물이 펄 돌아 뿌ית해진 눈길로 아버이를 마주보았다.

그로부터 보름만에 그들은 로가 없이 임의의 장소에서 소석회를 구워내는 새로운 소성법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일이 성공되리라고는 그때누구도 믿지 않았다. 첫번째로 구워낸 돌을 모아놓고 물을 뿜어 생석회를 피우면서 먼저 얼굴이 꺼렇게 죽은것은 우완명아버이었다. 아무리 물을 뿜어주어도, 시간이 경과하여도 생석회는 결만 피어나고만다. 웬일일까? 설었을까? 벼겨만 태우니 연소시간이 부족한걸까?... 유선하는 생석회가 숨처럼 하얗게 부풀며 피어나지 못하는것보다도 아버이의 얼굴에 그늘이 덮인것이 더 가슴아웠다.

《성공이에요, 아버지! 그래두 이렇게 피어나지

않나요! 이것보세요. 이건 다 뿜어요!앗, 따가와...!》

선하는 하얗게 피난 소석회를 한줌 쥐었다가 기절하듯이 발치에 뿌리며 방긋 웃었다. 그는 아버이의 얼굴에서 그늘을 벗겨주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버이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떠오르지 않았다.

《안되겠어.》 아버이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로가 없이 돌을 굽다니...》

탄식하듯 중얼거리는 아버이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선하는 눈앞이 아득하였다. 아버이가 이처럼 한순간에 손맥을 놓아버릴줄은 몰랐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신심을 줄수 있을는지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밤이 이슬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이를 바래우고나서 홀로 함숙으로 향했다. 별빛하나 내리지 않는 어두운 밤길, 생각으로 무거운 발걸음... 바람이 약했을까? 바람, 바람... 아무래도 송풍장치에 결함이 있는것 같았다. 바람이 골고루 퍼져 열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연료를 보충하자!

며칠동안의 고심끝에 선하는 송풍관의 길이와 구멍배치, 꺾임각 등을 계산조절하며 새로운 도안을 작성하였다.

닷새만에 그는 농장수리분조에서 만든 새로운 송풍관을 메고 다시금 산모퉁이로 갔다. 어떻게 하나 한번 시작한 일을 끝장내고싶었다.

산모퉁이에 이르러 그는 오뚝 발걸음을 멈추었다. 돌을 깨는 망치질소리가 들려왔다. 석회석이 있는 벼랑밑에서 아버이가 망치를 휘두르고있었다. 아버지곁에는 석회석자갈이 높다랗게 쌓여있었다.

유선하는 무엇이 심장을 쿵 하고 때리는것을 느꼈다. 그가 자리를 비운동안 아버이는 매일처럼 이 벼랑밑에서 지냈단 말인가. 고마웠다. 이런 아버이를 잠시나마 손맥을 놓고 물러난것으로 생각했던 자신이 뉘우쳐졌다.

《아버이!》

선하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송풍관을 댕채로 그냥 소리를 쳤다. 목소리가 떨려나왔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이가 달려내려왔다.

《소조원! 이제 오나?》

그들은 자갈더미옆에 송풍관을 내려놓고 잠시 땀을 들였다.

《그동안 많이두 돌을 깨놓았군요. 참, 아버이두...》

선하는 팔소매로 이마에 흘려내리는 땀을 씻으며 방실히 웃었다.

《허허, 돌만 깨놓은줄 아나? 저걸 보라구.》

아버이는 먼저번 돌을 굽던 자리를 가리키었다. 거기에는 설익은 돌무지곁에 난데없이 거무스한

석탄재가 쌓여있었다.

《아니, 저건 석탄재가 아니예요?》

《그저 석탄재가 아니지. 석탄재에 무연탄을 좀 섞었거든… 그동안 내가 이 돌을 가져다가 집에서 구워봤어. 작게 로를 만들구… 밑에서 버거를 풍구질해 피우면서 그우에 무연탄하구 석회석을 층층이 넣었지. 그런데 돌은 남구 집에 탄이 얼마없거든. 그래서 탄재하구 탄을 섞어서 마저 넣지를 않았잖나. 헌데 이런 변이라구야. 바람을 계속불어대서 그런지 우에것두 다 잘 익었드란 말이야, 허허허… 그래서 내 소조원을 깜짝 놀래려구 탄재를 싣구왔지, 돌두 깨놓구… 이렇게 송풍관까지 새것으루 해왔으니 이번엔 될거네. 그까짓 로가없이 또 해볼판이지… 맘 놓으라구. 영낙없이 될테니…》

아바이의 얼굴은 미소로 환했다. 선하는 뜨거운것이 북받쳐올라 그만 목이 짹 메이고말았다. 그동안 집에서 돌을 굽다니?... 아바이는 오히려 나를 위안하려 하지 않는가!

《고마와요. 아바이!》

선하는 축축히 젖어오는 속눈썹을 삼박거리며 아바이를 쳐다보았다.

《고맙다니, 원, 누가 할 말을 하는지…》

그들은 평지우에 송풍관을 설치해놓고 버거를 덮은 다음 불을 지켰다. 그리고는 아바이가 착안한 방법대로 무연탄을 섞은 탄재와 석회석을 번갈아 무쳐놓고 편속 풍구질을 해댔다. 돌더미에서는 문게문게 연기가 피여올랐다. 한시간, 두시간...시간이 흐를수록 돌더미는 달아오르며 확확 열을 뿜었다.

《이젠 됐어. 그만하자구.》

해가 서산마루를 넘었을 때 아바이는 선하의 곁으로 다가와 풍구질을 멈춰세웠다.

《팔이 빠근하지?... 이젠 불이 다 된것 같애. 저녁이나 먹구 오늘밤은 푹 쉬자구. 밤새 돌이 식을테니…》

《그러자요, 아바이가 오늘 힘드실거예요.》

《난 일없어, 평생 일에 치운 몸이니까, 허허허…》

어둠이 깃들자 그들은 산모퉁이를 걸어내렸다.

그날밤, 유선하는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어떻게 됐을까? 잘 익었을까? 그는 안심치가 않았다.

이번에도 돌이 설었다면 어찌할까? 그토록 애써온 아바이의 얼굴에 다시 그들이 지면 어쩔까?...

그는 자리에 누워있을수가 없었다. 아바이몰래 돌을 가져다가 물에 피워보고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앉았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옷을 찾아입고 합숙을 나섰다. 밤은 캄캄하였다. 선하는 전지불을 비치며 곧장 산으로갔다.

《거 누구요?》

벼랑밑에 이르자 별안간 그쪽에서 석싹한 아바

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예요, 아바이! ... 또 나오셨군요. 이 밤중에...》

선하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전지불을 비치며 다가갔다. 혼자서 해보려던 일은 결국 틀어지고말았다. 아바이는 돌더미곁에 쭈그리고앉아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돌더미에서는 아직도 확확 열이 뿜겼다.

《어떻게 또 나오셨어요?》

《나야 뭐냐 잠이 없지 않나... 소조원두 잠이 안오든 모양이지?》

《예, 잠들수가 없어서... 돌을 몇개 가져다가 피워보려구...》

《허허, 기실은 내 혼자 해보자든건데...》

아바이는 일이 별스럽게 되었다는듯이 껄껄 웃었다. 선하는 아바이의 심중이 헤아려졌다. 아바이인들 어찌 내 마음과 다를수 있으랴.

선하는 뒤늦게야 아바이의 등뒤에 손잡이가 달린 둥그런 비닐물통이 놓인것을 보았다. 아바이는 물까지 떠가지고 왔던것이다.

그들은 돌더미곁에 모닥불을 피웠다. 그리고는 뜨거운 돌덩이를 헐어내어 조그맣게 무쳐놓고 조심조심 물을 뿌렸다. 물이 닿자 돌에서는 더운 김이 확 풍겨났다. 그러더니 잠시후에 돌은 목화송이 피듯 하얗게 부풀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잘 익었군요!》

《잘 익구말구. 내 이럴줄 알았다니...》

아바이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먼저 두툼한 입술둘레에서 주름살이 일더니 불에 이마에 웃음은 파도치듯 흘러갔다. 아바이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어리자 유선하의 가슴속에서는 눈물겹도록 기쁨이 샘솟아올랐다. 그는 아바이가 한없이 돋우보였다. 여기서 첫 모닥불을 피우던 그때부터 일에 몸을 잠근 아바이, 그에게서 방조를 바라던 선하는 지금 오히려 그의 방조자로 된셈이었다. 아바이는 끝내 새로운 소성법을 완성하였다. 웃음어린 아바이의 얼굴은 마치 내부로부터 그의 깨끗한 마음이 발산되어 더욱 밝아진것 같았다. 아바이의 마음속엔 정녕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석이들어있는것인가 하마트면 그 보석을 그냥 물어버릴번하지 않았는가... 선하는 그것을 닦고 또 닦아 세상에 빛을 내게 해주고싶었다.

농장은 온통 들끓기 시작하였다. 소석회생산에 목이 메였던 관리위원장이며 작업반장들은 새로운 소성법이 나오자 모두들 들뛰며 된바람을 일구었다.

유선하는 송풍기며 송풍관을 확대제작하기 위한 도안을 뜨고 군농기구공장과 농장수리분조를 오고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었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논머리, 밭머리 그 어디서나 소석회를 뽑아내는 더운김이 무럭무럭 피여올

왔다. 농장원들은 신바람이 나서 석회무지결에 모여들어 땀땀이 떠들어댔다.

《소조원동무가 정말 큰 일을 했어.》

《그렇구말구. 참 령리한 처녀라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대?》

《농업대학이라던가? 농기계학부...》

《참. 우리 농장은 소조원 복이 있어. 오는 사람마다 한몫씩 제끼니. 허허허...》

어느날밤 3 작업반의 소석회생산정형을 알아보고 현장에 나섰던 그는 불붙는 석회더미결에서 전동기소리, 피대소리, 송풍기소리와 함께 이런 말소리가 울려나오자 문득 어둠속에 멈추어섰다. 전혀 바라지 않던 말들이었다.

모든 성과가 나에게 돌려지다니?... 왜 아바이에 대한 말은 없을까? 내가 너무 낮을 들고 돌아친건 아닐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다리맥이 빠지고 서있기가 거북스러워졌다. 농장원들에게 사실을 옳게 인식시키지 않는다면 아바이앞에 면목이 없을것 같았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가슴을 진정시킨 다음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저... 미안해요. 먼발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었다구 나무람마세요. 이 방법은 전적으로 우완명아바이가 완성시킨것입니다. 전 다만 방조를 주었을뿐이에요.》

얼굴이 발강게 익어 그가 가까스로 말을 하자 농장원들은 또 저마끔 수군거렸다.

《어쩔 저렇가.》

《마음씨도 비단결이라니까.》

그들은 선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안타까웠다. 아바이만은 제발 이런 말을 듣지 말았으면 싶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섭섭해질것인가.

그런데 어찌하랴. 선하는 바로 사람들속에서 병글병글 웃고있는 아바이와 눈길이 마주쳤다. 아바이는 송풍관에 붙은 바람변을 조절하고있었다.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있는탓에 선하는 미처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었다. 어찌면 그런 소리를 묵묵히 듣고있을까, 어찌면 저렇게도 태연히 웃을수 있을까? 선하는 속에서 은근히 약이 끓어올랐다. 아무래도 아바이자신이 모든 성과를 소조원에게 밀어버린 모양이었다. 그러고보면 아바이는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평생 자기가 남의 말밥에 오르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성미같았다.

선하는 아바이가 바친 노력의 대가를 자신이 독차지한것 같아 마음이 괴로워졌다. 날이 흐를수록 그 괴로움은 커졌다. 새로운 소성법에 대한 소식은 바람처럼 온 군에 퍼져갔고 조직을 통해서도 우에 보고되었었다. 퍼지는 소식, 보고되는 내용들이 다 선하의 성과로 일관되어있음을 알았을 때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바이에게 빛을 보이자던 희망은 어디로 갔는가,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을 옳게 납득시킨단 말인가.

가.

군당소조사업부의 주최로 소조원들속에서 진행된 창안품전시회가 열린 바로 그날이었다. 전시회는 군당회의실에서 열렸다. 도봉리에서는 소조책임자의 제의로 새로운 소석회구이장치들이 출품되었었다. 전시장에 놓인 송풍기며 송풍관일식을 보는순간까지도 유선하는 즐거운 기분이었다. 누구의 명의로 되든 그것이 옳은 평가를 받고 일반화된다면 기쁜일이 아닌가. 전시장에는 도봉리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창안품들이 놓여있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것은 그 송풍기, 송풍관이였다. 새로운 농기계들을 출품한 소조원들까지도 그앞에서는 오래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전시회에서는 창안품들에 대한 집체적인 평가사업이 있었고 끝으로 회의에 참석한 군당책임비서의 발언이 있었다.

《...동무들이 모두 옳게 평가한바와 같이 도봉리소조에서 내놓은 새로운 소석회생산방법은 그 경제적가치로 보아 대단한것입니다. 이젠 하나의 혁명입니다. 이제는 소석회를 굽던 로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원석을 실어다가 임의의 장소에서 소석회를 생산할수 있게 된 이 기적! 이것이 혁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창안한 소조원 유선하동무야말로 시대를 자각한 혁명전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당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에 심장을 기울이며 군중을 동원하고 이끌어나가는 그 전투적인 기질을 우리는 유선하동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책임비서의 말에서 자기 이름이 지적되는 그 순간부터 선하는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하였다. 형제도 모양도 알수 없는 불안이 못견디게 그의 가슴을 두드리었다. 겁이 났다. 본의는 아닐지라도 아바이한테서 영예를 가로챈듯한 죄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못사람들의 치하와 조직의 평가속에 나의 이름만 오른다면 이것은 하나의 편견이 아니겠는가. 당일군조차 편견에 기울어져 문제를 고찰하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 인간이 받은 영예의 빛속에 다른 인간이 가리워지는 결과를 초래할것이 아닌가. 오래전 그때에도 아바이는 지금처럼 되지 않았는가? 선하는 은근히 관리위원장을 나무람해온 자신이 돌이키지며 다시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유선하는 어서 모임이 끝났으면 했다. 모임이 끝나면 책임비서를 만나 사실을 옳게 통보하고 아바이의 문제를 상정시키리라 결심하였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책임비서가 자기방으로 돌아갈 때 유선하는 회의실복도에서 그와 만났다.

《책임비서동지. 그 방법은 전적으로 우완명아바이가 완성시킨것입니다. 전 다만 방조를 주었을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과는 나에게 돌아오

고 아버지는 빛도 없이 사라졌으니... 이걸 너무 합니다. 얼굴이 뜨거워서 제가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었습니까?》

《허허, 나에 대한 의견이요?》

책임비서는 너부죽한 얼굴에 서글서글한 웃음을 띠며 한마디 묻고나서 인차 말을 이었다.

《내가 우완명동무를 몰라서 소조원동무의 이름만 찍은게 아니요. 여기야 소조원들만 모인 장소가 아니요? ... 우완명동무는 46 년도에 입당한 오랜 당원이구 이고장 태생으로 60 이 넘은 오늘까지 묵묵히 량심을 바쳐온 사람이란걸 나두 잘 아오. 그렇지만 오늘 동무가 받은 평가는 모두 엉당한거요.》

《전 그저 아버지를 도왔을뿐입니다.》

유선하는 고집스럽게 이 말을 되풀이하였다.

《허허, 알만하오. 일에 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흘린 땀의 가치를 모르는 법이요. 소조원동무나 우완명동무나 그런점에선 꼭 같소. 그러니 서로 밀어버릴 내기를 하거든... 내 요전날 소식회 굶는걸 좀 보려구 도봉리엘 나가니 우완명동무는 온통 모든걸 소조원에게 밀더군. 오늘은 동무가 그렇구, 허허허...》

선하는 모든 문제가 아버지로부터 유발된것임을 느꼈다. 그전날 무수히 소식회를 뽑아내고 불로크를 찍어 문화주택건설에 기여하고도 소문없는 아버지, 모든 성과를 관리위원장에게 넘겨준 그때처럼 오늘은 그것을 소조원에게 밀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선하는 도저히 그것을 묵인할수 없었고 더는 아버지를 내버려둘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책임비서동지,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보다도 꼭 아버지를 내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소, 알겠소. 동무의 심정을 충분히 알만하오.》

책임비서는 아름다운 꽃을 보듯 빙그레 웃으며 유선하를 내려다보았다.

...그때로부터 거의 한해가 지난 오늘 그렇게도 아버지를 내세우고싶던 유선하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당에서는 새로운 소성법을 완성하여 나라에 보탬을 주고 땅을 개량하여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한 우완명아버지를 숨은 공로자로 등록하고 그에게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수역식은 바로 어제 군당회의실에서 있었다. 그 소식을 알고 지금 선하는 아버지를 축하해주려고 이른새벽 소식회본조를 향해 떠난 길이다.

마을길을 벗어나자 동쪽 산마루로 아침해가 얼굴을 내밀었다. 불그레한 해빛의 가득가득이 안개속으로 흘러든다. 끝안 길이 누웠던 안개는 기지개를 켜듯 서로 뒤지고 덩치덩치 흐트러지며 가볍게 떠오르기 시작한다.

산기슭에 이르니 들국화가 하얗게 만발하였다. 그는 불쑥 꽃을 꺾어 아버지에게 안겨주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풀숲을 헤치며 산기슭으로 올랐다. 풀잎에는 맑은 이슬방울이 구슬알처럼 맺혀있었다. 그는 이슬에 옷이 젖는것도 모르고 한송이 두송

이 꽃을 꺾기 시작하였다.

(내가 이 꽃을 안겨주면 아버지는 뭐라고 할가? 또 싸움을 하자고 접어들지나 않을까? 그때처럼, 그때처럼...)

유선하는 혼자서 방긋 미소를 지었다...

...그때, 창안품전시회를 끝마치고 돌아온 그는 모든 성과를 자기에게 몰밀어놓은 아버지에게 섭섭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아버지, 아버지 왜 자기가 일한만큼 평가받는걸 그렇게도 두려워하나요? 전 속상해죽겠어요. 왜 아버지가 한일을 저에게 밀어던지는가말예요. 전 오늘 얼굴이 뜨거워서 견딜수가 없었어요. 글썽 제가 무얼했다구 책임비서동지한테까지 그렇게 말하는가 말예요. 소성법을 완성시킨거야 엄연히 아버지가 아닌가요! 제가 도와준거야 뭐 그리 크게라구...》

선하는 눈물이 나오는것을 가까스로 참아냈다.

《그게 다 한 소린가요?》

방금 자동차가 부리우고 간 석회석을 취올리다 말고 아버지는 삽자루를 짊고선채 소조원을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못마땅해하는 표정이 어렸다. 쪼프려든 미간에는 두개의 주름살이 곧추 일어섰고 반쯤 내리감은 눈에는 거미줄처럼 잔주름이 엉켰다.

《그 방법을 내가 완성했다구? 그래 소조원은 벌써 잊었나? 날 찾아 집에까지 왔든 그 일을... 그리구 송풍기를 만들자구 도면을 그린다, 주물 직장엘 간다 하문서 밤을 패던 일을 다 잊었나말야... 소조원이 아니라면 난 벌써 주저앉은지 오래였어, 암 오랫동안구말구...》

아버지의 눈엔 불시에 이슬이 고였다. 그러더니 짧고 성근 속눈썹끝에서 툭툭 맑은것이 떨어졌다. 선하는 당황해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올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한 그였다. 아버지의 눈물은 선하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었다. 아버지는 진정으로 노여워하고있었다. 선하는 아버지에게서 말로서는 다 표현할수 없는, 성실성과 량심으로 가득찬 인간의 참모습을 보았다.

《노여워 마세요. 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세상에 소문나면 뭐 나쁠게 있어요? 사람은 공정해야 해요. 그래 소조원은 이름이 나야 하구 아버지는 그들 속에 묻혀야 하나요? 똑같이 힘들여 같은 일을 했는데 ...》

《똑같이 힘을 들였다구?》

아버지는 두눈을 홑뜨며 반문하였다.

《아닐세, 아니야... 소조원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쯤 구들아래목에서 일어나지두 못할걸세. 처음 소조원이 찾아왔을 때 내 맘이 어땠는지 아나? 일손을 놓구 집에 들어앉아있자니 꼭 무덤속에 든 기분이였어. 난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셈이야. 소조원이 나한테 활력을 줬거든. 그런데 이제와선 뭐 평가를 받으라구? 내게 새 일감을 주구 나를 무덤속에서 끄집어낸게 그래 소조원이 아니라 말인가? 말해보게, 어디 말해봐!》

선하는 코마루가 찡했다. 아버지는 아 소조원을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하지 않는가! 일을 떠나

서는 잠시도 못사는 아바이, 로동이 그대로 살고 행복임을 자각한 아바이! 고마와요, 고마와요! ... 선하는 참았던 눈물이 어쩔 사이도 없이 후두두 떨어지자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다.

《옛날에는 관리위원장이 내게 성화를 먹이더니 이젠 또 소조원이 그모양이군.》

아바이는 투덜거리듯 혼자 말했다.

선하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관리위원장이 성화를 먹었다고?... 내가 지금 정말 아바이를 괴롭히고있는것은 아닐까?... 문득 아바이와 함께 모닥불을 피우며 마주앉았던 그 첫날밤이 떠오른다.

아바이는 그때 보람찼던 스무해전 일을 회고했지. 자기가 구워내고 찍어낸 소석회며 불로코에 갇든 로동의 희열을 느끼면서도 영예에 대해서는 조금치도 모르던 그, 아바이는 그저 문화주택의 하얀회벽들이 웃는 얼굴처럼 밝은 빛을 뿌리고 지붕위의 기와들이 행복의 상징처럼 빨간빛으로 이고장을 아름답게 장식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기 로동의 보람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는 그였기에 그전날 관리위원장도 아바이를 더는 어찌할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관리위원장인들 왜 아바이를 몰라주랴. 너무도 아바이를 잘 알기에 누구보다도 그를 쉬게 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 인정속에 관리위원장은 아바이의 그 보석같은 마음까지 물어버릴번했다. 지금쯤은 자기 파오가 무엇이었는지 관리위원장도 넉넉히 깨달았을 것이었다. 그는 관리위원장을 한번 지닌 영예에 만족하여 나머지 인생길을 쉬엄쉬엄 걷는 그런 류의 사람으로는 보고싶지 않았다. 관리위원장은 20 년전 그때 아바이에게 삶의 기쁨과 희열을 주었으리라. 그래서 아바이는 관리위원장이 받아안은 영예를 자기의 그것처럼 여기지 않는가!

이제는 모든것이 리해되었다. 아바이가 무엇때문에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는지, 지금의 성과를 모두 소조원에게 밀어놓는 것인지... 유선하는 자기가 한 일이 아바이에게 피와 땀으로 뒀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궁지높은 사업이었던가를 새삼스럽게 돌이켜보았다. ...

바람이 불었다. 꽃향기가 난다. 그는 한아름 꺾어든 꽃을 가슴에 품었다. 한가닥 향기마저 날려 보내고싶지 않았다. 고스란히 아바이에게 풍겨주고싶었다. 그는 소석회분조를 향해 총총히 언덕길을 걸었다. 골안끝 멀리에서 발파소리가 들려온다. 석회석을 까내는 소발파였다.

(아바이는 지금 무얼하고있을까?) 착암기를 정비하며 발파수자를 세고있겠지...)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언덕길우에 한사람이 나타났다. 회색양복을 차려입은 몸매 작은 로인이었다. 선하는 걸음을 멈추었다. 마주오는 사람은 다름아닌 우완명아바이였다.

《아바이!》

《아니, 소조원이 아닌가!》

굴러내리듯 아바이는 급히 달려왔다.

《어딜 가시던 길이에요?》

유선하는 꽃다발을 안겨주려던 생각은 까맣게 잊고 아바이를 마주보았다.

《어딜 가긴, 소조원이랑 만나려 리엘 가겠지. 어저께 수여식이 늦어져서 그냥 집으루 왔거든. 인사가 늦었으니... 나무람 말라구.》

《원 별말씀을... 전 아바이를 축하해드리려구 떠났어요.》

유선하는 꽃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무거운 듯 조심히 들어 아바이의 손에 들려주었다.

《받으세요. 받아주세요!》

《고마우이... 소조원! ...》

목이 메여선지 아바이는 말을 더듬거렸다. 아바이는 꽃과 함께 소조원의 두손을 그러쥐었다. 감격을 누르는 모양 목에서는 울대뼈가 오르내린다. 다려서 입은 회색양복 앞가슴엔 무지개빛 락장만이 달려있었다.

《훈장은 왜 달지 않으셨나요?》

《훈장이야 뭐... 그저 건사해뒀지... 소조원! 이제 어딜 가려나, 같이 리엘 가지 않으려나? ... 관리위원장이랑두 만날겸... 혼자선 좀 뵈해서...》

《가자요. 함께 가자요.》

유선하는 선뜻 응하고 오던길을 되돌아섰다. 그러는데 아바이가 선하의 팔꿈치를 건드리었다. 아바이는 손에 든 꽃다발을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 서성였다.

《이걸 들구서야 어떻게 사람들을... 여기 건사해둬세. 내 돌아오는 길에 정히 가져다가 우리 집 꽃병에 꽂아두려네. 나헌텐 사실 이 꽃보담 소중한게 없어, 없구말구...》

《그렇게 하세요.》

선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는 길설의 잡관목그늘밑에 땅을 헤집고 꽃대를 정히 묻어놓는 아바이의 모습을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그들은 나란히 언덕길을 걸어내렸다.

해는 벌써 한뿔이나 솟아올랐다. 시내물과 잇닿은 평탄한 길에 이르니 어디선가 통통통... 원동기소리가 들려온다. 강냉이를 수확한 발머리, 지금은 가을남새 푸르른 저기 발머리에서 석회를 굽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기운차게 송풍기를 돌리는 원동기소리, 뿔어오르는 화염... 저 건너편발머리에서는 구워낸 생석회에 물을 뿌리는 모양 뽕얇게 김이 서려오른다. 마치 땅이 내뿜는 후더운 입김과도 같이...

선하는 락장을 단 아바이의 앞가슴을 돌아보았다. 더운 김 피는 땅을 바라보는 아바이의 가슴은 세차게 오르내린다. 소생한 아바이의 심장에서 타오른 그 삶의 불길이 지금 이 땅을 더웁히며 들에 언덕에 세찬 호흡을 준 것이 아닌가!

선하는 삶의 보람과 희열을 나누며 아바이와 함께 걸어온 그 나날처럼 먼 미래에로의 길도 손잡고 나란히 걷고싶었다.

《조국! 통일!》

김동전

《엄마》, 《아빠》나 겨우 외우고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도 아직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둘째손자
인제 겨우 걸음마때는 두돌잡이

어찌다 새 말 한마디 외우면
온 집안이 둘러앉아 기쁨넘치는데
오늘도 또 한마디
새 말을 외우누나

《조국! 통일!》
《조국은! 하나다!》
텔레비죤화면에서
《통일의 꽃》이 웨치던 구호

조국이 무엇인지 통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입에 빨던 주먹으로 하늘을 찌르며
...웨치누나

《조국! 통일!》
분명 그것은 우리 말이다
《조국은! 하나다!》
분명 그것은 아이가 처음 하는 말이다

하지만 누구도
누구도 용타고 선풍기 추어주지 못하누나
재롱으로 보기엔
너무도 가슴벅찬 말이어서...

천마디 만마디 우리 말에
단 열마디도 못외우는
그 말재산속의 한마디가

《조국! 통일!》 입에...

웃으며 웨치는
《조국! 통일!》
그러나 웃으며 들을수 없는
《조국! 통일!》

《조국! 통일!》
우리 얼마나 웨쳤던가
아 그것을 위해
흘린 피는 얼마
흘린 땀은 얼마

하지만 할말이 없구나
통일된 조국을 못넘겨주고
동강난 강토를 물려주어야 한다면
이 터지는 가슴들은...

하지만 한마디만은 하자
너희들까지는 그 구호
그 구호 웨치지 않게
우리 세대에 그 념원 이루리라

하여 너희들에겐
하나의 조국을 넘겨주마
통일된 조국에서
너희들 뛰놀게 하마

그때에는 웨쳐다오
《조국! 통일!》
그 말대신에
《통일! 만세!》를...

다음은 어느놈 누구의 차례인가

조성관

제법 이름은 좋다
그 주제에 공화국이라고
원숭이처럼 사람흉내는 곧잘하여
그 누구를 본따서
《제 5 공》이요 《제 6 공》이요 차례까지 달아서

《제 6 공화국》이라고?
차례도 제대로 모르는 열간이야
《제 2 공》과 《제 4 공》은 나자마자

네놈들이 숨통을 눌러죽였으니
로태우 네놈은 넷째 제 4 대란말이야
하니 네가 타고앉은 권좌는
《제 4 공》이란 말이야

그럼 똑똑히 차례를 알려주지
모가지가 4. 19 의 바줄에 질질 끌리다가
태평양 외딴섬에 양꼬배기 너편네와 함께
의 좋게 나란히 내동댕이쳐져

객사한 제 1 대가 리승만이요
 -하긴 그 늙은대기는 한복을 입었을뿐
 오장륙부가 미국의 피로 썩었으니
 제 본가근처에서 너부러진 셈이지만-

-군사깡패 독재자를 타도하라!
 인민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더니
 하늘이 점지해준 천상배필
 제놈도 제너편네 《륙녀사》도 의 좋게 나란히
 제패거리들의 깡장콩알을 나누어먹고
 뒤어진 박정희가 제 2 대요

-전두환, 리승자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
 거리와 마을을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함성에
 사시나무벌듯 질겁하여
 심심산골 절간에 피신도망쳤으나

미구에 부부나란히 의 좋게
 단두대우에 설 전두환이 제 3 대요

그럼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세살잡이 내 어린 손너도
 손가락을 꼬아가며 셋다음엔 넷이란걸 알지
 그러니 《제 4 공화국》의 두목
 로태우 네놈이지
 네놈들의 말대로 한다면 《제 6 공화국》의 두목 말
 이야

대통령빙거지가 왕관이너나
 강탈한 왕관의 값을 톡톡히 치르는셈이지
 그리고 차례에 대하여 다시한번 톡톡히 알려주지
 민중들에게 쟁탈한 빙거지의 차례는
 부부일심동체로 비명횡사의 차례이라느것을

물은 어디서부터 흐르는가

송천구

별을 지나고
 산밭을 가로지르며
 천리 또 천리 뻗어가는 이 물길
 내 잠시 땀을 들이며 생각하노라
 물은 어디서부터 흐르는가

하늘가에 메아리치는 발파소리
 흙을 떠옮기는 굴착기의 음향
 노래처럼 즐거이 들으며
 내 깊은 생각에 잠기노라
 물은 어디서부터 흐르는가

예로부터 흘렀다 물은
 땅속에서 솟음치는
 한가닥 샘줄기에서부터
 번덕스러운 하늘이 뿌려주는
 한줄기 비발에서부터

때로는 벌을 적시는 생명수로
 때로는 벌을 삼키는 홍수로
 흐르다가 마르고
 마르다가 또 흐르며...

나무리 연백벌을 거치고
 험준한 수양산줄기도 꿰뚫고
 내 고향 웅진반도에 잇닿을

물노니, 이 물길의 한끝은 그 어디?
 흐르는 물의 시작점은 또 어디?

아 이 물길 거슬러오르면
 날바다를 가로막은 서해갑문
 호수인듯
 바다인듯
 사시절 출렁이는 대동강이나니

갑문을 세우시여
 수천수만 물흐름들을 멈추시고
 멀고먼 나무리 연백벌로
 이 땅 가는곳마다 새 물길 열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흐르리라 물은
 은혜로운 이 물길로
 한가닥 샘줄기에서가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의 그 기슭으로부터!

흐르리라 물은
 하늘이 뿌려주는 비발에서가 아니라
 억년 마를줄 모르는 그 젓줄기에서부터
 물이 아닌 무르익은 낱알의 흐름
 영원한 만풍년의 노래로!

예리한 미적감각이 낳은 시인의 정서

-서정시 《고요》를 읽고-

김덕선

한편의 시가 독자들에게 그 어떤 정서를 불러 일으켰다면 그 시는 자기의 고유한 정서적색깔을 가지고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천만가지 꽃들중에서도 다름아닌 그 꽃만이 자기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것은 무엇보다도 그 꽃의 색깔에 있는것이다.

꽃을 감상하는것과 같이 시를 감상할 때도 이여의 시들과는 구별되는 그 시의 독특한 정서적 색깔을 발견했을 때 독자들은 기뻐하며 그 시를 사랑하게 된다.

시적대상에 대한 시인의 예리한 감성적인 형상을 파고들으로써 이채를 띠고 나타난 서정시 《고요》(문동식, 《조선문학》 1989 년 6 호)는 자기의 독특한 양상적특징으로 하여 독자들의 눈길을 끌며 애착을 가지게 한다.

시 《고요》를 읽거나면 독자들은 백두밀영의 고향집이 지닌 숭엄한 정적을 감수하게 된다.

그 정적에 대하여 시인은 첫면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고요가 흐릅니다

백두밀영의 소박한 고향집에

번개와 우뢰도 흔들지 못하는

가장 숭엄한 고요가 흐릅니다

...

번개와 우뢰도 흔들지 못하는 이 고요, 감수한다기보다는 만져보고싶고 흔들어보고싶은 이 고요의 정서는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그것은 시인이 읊조린것처럼 백두밀영을 둘러싼 산악의 성세때문도 아니며 바람새도 스며들지 못할 뻘뻘한 밀림의 울타리때문도 아니다.

시인은 이 고요의 심원한 뜻을 자기의 고유한 정서적색깔을 가지고 발견하였다.

그 색깔이란 어떤것인가.

그대가 그 누구이시든 시를 조용히 음미해보시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파도쳐오는 시적감흥을 느끼게 되리라.

이 감흥속에서 우리는 다름아닌 시인의 정서적 색깔을 느끼게 된다.

독자들이 백두밀영의 고향집에 서보았듯이 시인도 이 고향집앞에 서있었으리라. 그러나 시인은 서있지만 앉았다.

시인은 환상의 나래를 펼치고 암운이 드리웠던 수난의 그 세월 조국땅에 광복의 새봄을 안아오 시러 밀영의 긴긴밤을 사색으로 지새우시던 위대한 장군님 품속으로 나래쳐가기도 하였고 어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품에 안으시고 3 천리를 꽃피우는 봄빛이 되라고 민족의 숙원을 담아 김정숙어머님께서 불러주시던 자장가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시인의 환상은 더욱 나래쳐오르며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린 시절 백두밀영고향집의 트랙을 밟으시며 키워오신 아름다운 꿈과 미래에 대한 속삭임을 듣기도 하였고 장군님의 일가분들이 평생 지니시였던 광복의 뜻을 조용히 심장에 새기기도 하였다.

얼마나 많은것을 이야기해주고 깊은 생각을 자 아내게 하는 이 고향집인가.

하기에 이 고요는 자연의 고요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5 여성상 백두밀영에서 풍찬로숙하시며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행복을 꽃피울 광복의 려명을 안아오시였고 조선의 미래를 받드시며 한생을 장군님께 영원한 충성을 바쳐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일가분들에 대한 뜨거운 생각이 달려가는 마음의 고요이며 사색의 고요인것이다.

하기에 시인은 자기가 느낀 이 고요에 대하여 이렇게 주장하고있는것이다.

폭풍을 안고있는 고요입니다

화산을 품고있는 고요입니다

이 세상 압제의 얼음을 다 녹이고

피여오를 고요한 붉은 노을입니다

만민이 이고살 맑은 하늘입니다

고요가 아닌 고요, 자연적인 고요가 아닌 사상의 심원한 뜻에서 오는 고요를 발견한 여기에 이시가 류다르게 채색된 색깔이 있다.

작품의 양상은 생활의 본색을 정서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형상의 독특한 색깔이다.

시형상에서 독특한 인상은 많은 경우에 양상에 의하여 둔구어진다.

양상이 뚜렷한 시일수록 생활의 특색을 더욱 생동하게 나타낸다.

화가의 조색판에는 7 가지색깔이 놓여있지만 그 화가의 감각에 의해 수십, 수백가지의 색깔을 찾아내듯이 시인도 자기의 예리한 감각에 의해 같은 시적대상속에서도 수십, 수백편의 시와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정서적색깔을 낳는다.

그 누구나 생각하고 느낄것 같으면서도 선뜻 찾아쥐지 못한 이 정서적색깔을 시인은 찾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인의 그 어떤 욕망만으로는 얻어지지 않는 색깔이며 더우기 우연적이거나 행운이 가져다주는 색깔이 아니다.

시인은 교향집앞에서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위업에 대하여 예리한 감각적정서를 안고 자기의 심장을 불태웠으며 사색하고 또 사색하였다.

이러한 사색끝에 시인은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영원히 끝장내고 자주화의 푸른 하늘에 깃들게 할 새 세계의 영원한 노을, 영원한 요람을 보았던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요인가.

이 고요속에서 인류가 울리는 창조의 노래는 자주의 노래되어 세계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가고 이 고요속에서 인간은 지구우에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을 행복의 화원을 가꾸어가게 될것이다.

그날에 깃들게 될 이 고요에 대한 시인의 정서,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있음으로 하여 인류의 미래가 벌써 오늘에 꽃피나고있음을 확신하는 시인의 신념이 낳은 정서이며 그 신념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이 이처럼 궁지롭다고 하는 공민의

자부심이 낳은 정서이다. 하기에 독자들은 이 공민적감정을 자기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열렬히 공감하는것이다.

이러한 정서적감정은 시인의 예리한 감성과 탁마된 어휘로 하여 더욱 이채를 띠게 하였다.

《번개와 우뢰도 흔들지 못하는》, 《산악으로 성새를 세워서》, 《밀림으로 올라리를 둘러서》, 《고요의 한끝》, 《고요의 한겹》 등과 같은 표현이 느낀 정서를 더욱 이채롭게 둔구어주는 표현이다.

특히 고요의 한끝을 해친다든가, 고요의 한겹을 번진다는 표현은 백두밀영고향집에 첩첩히 고여있는 정적을 손으로 갈피갈피 번져보는듯한 생동하고도 섬세한 표현으로서 그 어떤 화가의 풍경화나 작곡가의 아름다운 선율로도 다는 보여줄 수 없고 들려줄수 없는 그토록 구체적이고도 표상적이며 그토록 상징적이고도 직관적이며 선물적인것을 독자들에게 안겨주었다.

이야말로 시인은 언어의 명수가 되어야 한다는 참뜻을 다시한번 시사해준다.

문학일반이 그러하지만 특히 예리한 감성을 전제로 하는 시의 경우에는 더우기 예리한 어휘와 예리한 표현을 요구한다.

아무리 감각적인 표상을 얻었을지라도 그것을 표현할 어휘를 찾지 못하면 독자들에게 시인의 정서를 전달할수 없기때문이다.

바로 시인은 자기의 정서가 예리한것만큼 자기 어휘표현에서도 엄격하리만큼 예리하다.

바로 여기에 이 시가 성공할수 있었고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는 비결이 있다.

자연이 창조한 온갖 아름다운 꽃들가운데는 향기가 풍기지 않는 꽃들도 있지만 시인의 예리한 미적리상에 의하여 창조되는 시작품에서 독특한 정서적향기가 풍기지 않는 작품이란 있을수 없다.

시인들은 우리 인민의 보람찬 혁명과 건설 투쟁을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미감에 맞는 새로운 양상으로 뚜렷하게 그려냄으로써 시문학을 혁명발전에 끊임없이 따라세워야 한다.

사랑과 효성

김병익

여기에 하나의 제품이 있다. 얼핏 보면 편직기 바늘과 비슷하다. 그러나 단지 비슷할뿐이지 꼭 같지는 않다. 정확히 말하면 제지모포다짐바늘이라는 것이다. 종이공장들에서 종이의 질을 두고 론할 때 첫손가락에 꼽는것이 제지모포이다. 제지모포의 질은 곧 종이의 질로 표현된다. 그런 모포를 만드는 특수한 바늘이다. 그저 보기에는 편직기바늘과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크기는 돗바늘만한데 구조가 여간 복잡하고 정밀하지 않다. 바늘이 삼각날로 되어있는데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민지가 있다. 민지도 보통 민지가 아니라 28도의 빗날이면서도 그 끝이 58도 구간을 통하여 휘어지게 되어있다. 이제까지 적지 않은 량의 제지모포다짐바늘을 다른 나라에서 사다 썼는데 그 나라들에서는 때로 엄청난 값을 부르기도 하였다.

그랬던것을 얼마전에 웅진편직바늘공장에서 시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으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쓰기도 남을만큼 광광 생산하고있다.

이 공장은 전후에 생겼다. 그때 생산품은 철관 바깥싸나 주물솔이 고작이었다. 그랬던 공장에서 기술이 발전된 나라들에서나 만드는것으로 되어있는 제지모포다짐바늘을 생산한다. 물론 그러한 설비를 만든 사람도 다름아닌 이 공장의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이다.

그들중에는 류현철이라는 기능공도 있다. 키가 흰칠하고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하며 마음이 어질고 순박하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건설자로서의 그의 노동력한도 이 공장의 나이와 동갑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고 우리 인민의 행복과 존엄이 있으며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국의 품은 수령님의 품이고 수령님의 품은 어버이품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은덕이 크면 클수록, 그 은덕속에 누리는 행복이 끝없으면 없을수록 류현철동무의 가슴에 절절히 간직된 소원은 무엇이었던가.

잠 못드는 그 밤에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른다. 잠에 들었던 류현철동무의 안해는 불길한 예감에 소스라쳐 깨어났다. 그는 늘 잠이 모자랐다. 옷공장지배인인

그는 온종일 일에 다몰리우다가 집에 돌아와 누우면 잠에 푹아떨어지기가 일쑤였다. 허나 그는 어디까지나 한가정의 안해이며 어머니였다. 그러니 주부의 본분을 한시인들 잊을수 있을텐가.

그날밤에도 그는 잠결에 신음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아니 욕감이였는지도 모른다. 열겉에 열자리를 더듬었다. 헛손이 짙이었다. 옷방에서 가는 불빛이 새어나왔다. 만이가 대학으로 떠나고 둘째마저 인민군대에 입대한후 옷방은 남편의 서재로 리용되었다. 남편은 편직바늘공장 《4. 15 기술 혁신돌격대》에서 일하고있다.

류현철이라면 공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창의고안명수이며 발명가이다. 그의 창의고안은 언제나 공장에서 집옷방으로 옮겨지곤하였다. 30여년을 그랬다. 한생이라고 할수 있다. 인생의 보람과 희열을 마음껏 누리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차츰 먼 과거의 일로 되어가고있었다. 남편은 어느새 예순나이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더우기 근래에 건강이 나빠지고있었다. 전쟁때 적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은 후과인지도 몰랐다.

그의 건강을 두고 넘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장에서는 될수록 힘겨운 일감을 그에게 맡기려 하지 않았으며 몸을 돌보도록 권고하였다. 안해의 원심은 류달랐다. 그러나 마음뿐이라는것을 안해는 때늦게 깨달았다. 얼마전에 남편을 위하여 구해온 보약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것을 잊저녁에야 알았다. 공장일만 일이라고 각근히 돌봐주지못한 자책을 금치 못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는 남편을 보니 자책감이 이밤따라 더욱 가슴을 파고들었다.

《여보, 어디가 편치 않아요?》

옷방으로 올라온 안해의 음성에는 근심이 함뿍 어려있었다. 류현철동무는 그러는 안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서 내려가 자요.》

남편은 더 말이 없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그였다.

(웬일일까? 몸이 더 불편해서 그럴까?)

아래방에 내려와 턱을 고이고앉은 안해의 시름은 끝이 없었다. 단지 건강때문만이 아닌것 같았다. 얼굴에 비친 질은 고뇌의 빛이 그걸 말해주었다. 그렇다면?! ... 느닷없이 먼 추억이 떠올랐다. 갓 결혼생활을 할 때였다.

개인수공업자들이 모여 무어진 생산협동조합에서는 주철가마를 만들어 신해방지구인민들에게 공급할 임무가 맡겨졌다. 용선로를 세워본 경험

도 쇠물을 뽑아본 사람도 없었다. 한 청년이 자진해나섰다. 류현철동무였다. 용선로가 세워지고 불이 지펴졌다. 그러나 쇠물은 나오지 않았다. 출선구가 녹아붙고 로벅이 허물어졌다. 로벅을 다시 쌓고 또 쌓고... 그러나 열번째에도 실패였다. 술한 로력과 자재가 낭비되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하는 말들이 떠돌았다. 류현철동무가 잘못될수 있다는 말도 있었다. 공장에 잠입한 반동들은 일이 잘되어가는것을 원치 않았으며 당과 대중사이에 썩기를 박으려고 꾀하였다. 놈들은 버라벌뒤말을 다 돌리었고 류현철동무가 스스로 손털고 물러나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동요하지 않았으며 물러나 앉지도 않았다. 당조직이 그의 마음을 굳게 받들어 주었다.

시험은 열다섯번째로 계속되었으며 마침내는 쇠물을 뽑아냈던것이다. ...

탁상등불빛을 마주한채 한숨을 짓고있는 남편의 모습은 변민하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게 했다. 안해는 잠자리에 누울수가 없었다.

《여보, 혼자 속썩이지 말고 말해요.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수?》

류현철동무는 자기의 고민을 더는 안해에게 감출수 없었다. 일은 평양에서 경공업위원회일군들과 연구사들이 내려왔다 간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류현철동무는 그들이 필경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때문에 내려왔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래서 기술지도원 김형근동무에게 슬그머니 물으니 아무일도 아니라고 시치미를 뻘뻘했다. 그와는 막역한 사이였다. 그보다 나이는 췌 아래지만 새 세대 지식인으로서 발명도 함께 하고 창고안도 수없이 많이 했다. 인간적으로도 그만큼 가까웠다. 그랬던 그가 자기에게 무엇인가 감추고있다는것을 류현철동무는 그후에 알았다. 새로운 기술적과제가 공장앞에 제기되었던것이다. 그런데도 말하기조차 저어하니 나는 이제 성 쌓고 남은 돌이란말인가?!...

남편의 고민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안해는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일로 늙은 사람이었으며 달리는 행복할수 없는 그였다.

《나는 이 세상에서 부러운것이 없는 사람ियो. 나를 낳아 키워준 부모도 해줄수 없는 하늘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왔으니... 그런데 보답한것은 너무 적소.》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돌아온 그날에도 류현철동무는 그렇게 말했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선물시계를 수여받은 그날에도 끝없이 그 말을 되뇌이였다.

《우리 가정은 모두가 당의 품속에서 태어난 몸이니 그 은정을 잊지 말아야 한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처럼 자기의 피 한방울이 다할 때까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것이 그의

철석같은 신념이었다. 그렇다는걸 잘 알고있을뿐더러 자기의 마음도 다룰바없는 안해이기에 자신의 건강보다 일을 더 하지 못해 잠 못드는 남편을 무슨 말로도 위안할수 없었으며 옷을 걸쳐입고 현장으로 나서는 남편을 더는 만류할수 없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자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은동산줄기의 봉우리들이 차츰 자기의 모습을 뚜렷이 드러냈다.

공장은 들끓는 창조의 분위기속에서 또 하루의 새날을 맞이하고있었다.

류현철동무는 설계실부터 찾아갔다.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설계실창문에는 형광등불빛이 환했다.

모름지기 김형근동무는 간밤에도 그 어떤 새기술창안에 밤을 지새울것이었다.

그러나 설계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담배연기만이 자욱히 서려있을뿐이었다. 무슨 일이기에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가? 혹시 도면이라도 불가하여 두루 살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흰종이 위에 정히 퍼놓은 편직바늘비슷한것이 눈에 띄었다. 물론 그로서도 처음 보는 제품이었으나 짐작되는것이 있었다. 이것때문이구나! 류현철동무는 편직바늘에 비해 여간 정밀하고 복잡하지 않은 이 제품을 보니 리해되는바가 있고 가슴이 저도 모르게 울렁거렸다.

그는 공장구내 한가운데로 흐르는 광산천기슭을 거닐고있는 김형근동무를 만났다. 기쁘기도 하고 노엽기도 하였다. 그는 다짜고짜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래 언제까지 나를 따돌릴텐가?》

김형근동무는 당황해서 어쩔바를 몰랐다.

《아바이, 사실 당위원회에서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해서...》

《당위원회에서?!...》

김형근동무는 자초지종을 말했다.

최근 당에서는 제지모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실정에서 그것을 만드는 다짐바늘을 자체로 생산할데 대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과업을 주었다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토의하며 당위원회에서는 류현철동무에게 특별히 따로 줄 임무가 있으니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만일 그가 이걸 알면 다른 임무를 수행할수 없다고 했다는것이였다.

(당에서 이 일을 우리 공장에 맡기였구나! 그런데 나에게 따로 줄 특별한 임무란 무엇인가?)

말을 듣고보니 류현철동무의 심장은 더욱 견잡을수 없이 높뛰였다.

당위원회 사무실로 황황히 달려가던 그는 마침 현장에서 오는 초급당비서 리현복동무와 지배인

조의국동무를 만났다.

《아, 현철동무구만. 어떻게 신세벽에 다 나왔소. 그렇지 않아도 지배인동무와 동무이야기를 하던 참이요. 자, 어서 들어갑시다.》

초급당비서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그의 팔을 이끌었다.

《우리는 동무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초급당비서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지배인도 의미심장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류현철동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일 때문일 거야. 그는 제 나름으로 흥분이 앞섰다.

초급당비서가 무어라고 눈짓을 하자 지배인이 수첩갈피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어 현철동무앞에 내놓았다.

《어서 받소. 료양권이요. 아무 생각 말고 료양을 잘하고 돌아오시오.》

《아니 료양이요?!》

류현철동무는 그만 억이 막히고말았다. 그러니 이것이 나에게 주는 《특별임무》였단말인가.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그런 줄은 모르고 노여움부터 앞세웠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가 어찌 다 알수 있었으랴. 사실 일부 일꾼들은 이번 일에는 류현철동무가 꼭 있어야 한다고, 다음기로 료양을 미루자고 의견을 제기해왔었다. 그러나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류현철동무가 그간 일을 많이 했으며 또 그의 이름으로 밝혀져 내려온 료양권인 이상 우리가 힘이 좀더 들더라도 그를 떠나보내자고 했던 것이다.

《비서동지,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나이만 먹었지 아직 영석부리입니다.…》

밀도끝도 없이 뇌이고난 류현철동무는 료양권을 소중히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튿날이었다.

현장에서는 제지모포다짐바늘 시제품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술협의회가 열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탄생기념일전으로 우리가 만든 다짐바늘로 생산한 제지모포를 당에 올리자면

적어도 2 월 16 일전에 다짐바늘 시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한달 남짓한 기간에 10 여공정에 달하는 단능설비들을 만들어 생산품을 뽑아낸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한창 열을 올리며 방도를 토론하는데 문득 작업복차림의 류현철동무가 나타났다. 누구보다 놀란것은 초급당비서였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심본 짐작하였기에 단단히 다짐을 받고들어보냈던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초급당비서의 엄한 눈길은 이렇게 책망하고있었다. 류현철동무는 그 눈길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비서동지, 저를 막지 말아주십시오. 이번만은.》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만치 말했는데…》

《하지만 제가 어떻게 떠날수 있단말입니까. 당에 기쁨을 드리자고 온 공장이 펼쳐나섰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설사 불사약을 준다 해도 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당이 저를 안아주고 키워주었는데… 저같은 부실한 자식을 위해서 당에서는 저를 기술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외국까지 다녀오도록 은정을 돌려준것을 비서동지도 잘 알고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술과 기능을 아꼈다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것은 류현철동무의 심장의 말이였고 의지였다.

이날 공장은 또하나의 감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제지모포를 자체의 기술과 힘으로 만들기 위해 펼쳐나섰다는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여주시면서 다짐바늘을 생산하는 웅진편직바늘공장에 《2. 17 과학자기술자돌격대》를 무을데 대한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었다.

류현철동무도 영광의 그 대오에 서게 되었으니 그는 젊음을 되찾은것 같았고 정열이 솟구쳤다.

전투는 시작되었다. 돌격대원들의 기세는 자못 높았다. 견본제품을 보고 단능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이란 험치 않았다. 100 분의 1 미리오차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작업량도 1 년 할 일을 단 한달에!

동요란 있을수 없다. 심장은 믿음으로 높뛰고 맹세는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하는것이다. 은혜에 참답게 보답할 때만이 의리는 빛나는것이다.

건강이 남만 못하다하여 류현철동무는 자기를 레외로 여기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나 하고 조언이나 주는 고문(그런 전제하에 그의 돌격대 망라가 수락되었었다.)격의 일은 도무지 성차지 않았다. 그는 김형근동무와 지혜를 합쳐 단능설비를 창안설계하는 일을 도맡았다.

무엇보다 난문제는 민지파는 설비였다. 손목시계유사보다 더 세밀하고 정밀한 민지를 어떤 방법으로 팔것인가? 그때문에 기술협의회도 몇차례씩이나 있었다. 나중에는 그것만은 수공업적으로 하여 시제품을 내놓고보자는 의견도 제기되었었다.

류현철동무는 그럴수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만든 다짐바늘로 제지모포를 생산하려는것이 당의 의도이고 결심인데 시제품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당에 드리는 보고에는 자그마한 티도 없어야 한다. 이날까지 그렇게 일해왔다.

탐구와 사색, 고심의 나날은 흘렀다. 결의한 날자는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하루해도 저물고 밤이 이슬할 무렵이었다. 이날도 류현철동무가 일하고있는 현장 휴게실에 불이 켜져있는것을 본 초급당비서 리현복동무는 그를 들여보내려고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는 술한 도면들과 부속품들이 널려져있는데 류현철동무는 피로한듯 쓰러져있었다. 가만히 흔들어 깨웠다. 대답이 없었다. 또 흔들었다.

《...》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현철동무!》

아무리 소리치고 흔들어도 기적이 없었다. 밤일을 하던 로동자들이 모여오고 구급차가 달려왔다. ...

류현철동무가 어렴풋이 정신이 든것은 다음날 아침이었다. 눈부신 해빛이 입원실창문에 가득히 비껴들었다.

《현철동무!》

침대맡에서 꼬바기 밤을 지새운 초급당비서가 그의 손을 어루만졌다.

《... 여기가 어딘가요? ...》

류현철동무는 눈을 크게 떴다.

《현철동무, 진정하오.》

류현철동무는 깊은 숨을 내쉬고나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기운차게 움직이고있었다. 류현철동무는 한동안 송엄한 눈길로 시계를 바라보고나서 가슴에 꼭 붙안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비서동지, 미안합니다. 제가 좀 무리했었습니다. ... 이젠 일없습니다. 그러구 민지파는 기계의 실머리도 잡았습니다. ...》

류현철동무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그길로 현장으로 다시 나왔다. 그리고 끝끝내 설비를 제작완성하여 시제품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였다.

시제품을 가지고 함흥모방직공장으로 떠나간 기술지도원 김형근동무로부터 장거리전화가 걸려왔다. 웅진편직바늘공장의 《2. 17 과학자기술자돌격대》에서 만든 제지모포다짐바늘이 질이 아주 좋다는 평을 받았다는것이였다. 성공이였다! 그들이 만든 다짐바늘로 생산한 제지모포가 당중앙에 보고되였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왔다.

그가 도착하는 날에는 온 공장이 떨쳐나 역으

로 마중나왔다. 기쁜 소식을 한시바삐 전해듣고 싶었던것이다.

류현철동무의 안내 엄창선동무도 막내딸의 손에 이끌려 역으로 나왔다. 그런데 차시간이 박두했는데 남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그는 남편을 찾아 공장으로 달려왔다. 구내는 조용하였다. 방송에서 울려나오는 시간음악이 은은히 들려왔다.

그때까지 새로 만든 제지모포다짐바늘 생산설비들을 정비하던 류현철동무가 작업복을 입은채 손을 씻으며 현장에서 나오고있었다.

막내딸이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며 어서 가자고 북아치였다.

그러나 시간은 이미 늦었다. 마침 그때 역에 마중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류현철동무를 보자 왜서인지 야! -하고 환성을 울리며 손을 흔들었다. 그들속에는 초급당비서도 있었다. 그는 두팔로 류현철동무를 덥석 껴안았다.

《현철동무, 기뻐하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가 생산한 다짐바늘로 만든 제지모포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오. ... 그리고 오늘 낮 열두시보도에 동무에게 공훈기계제작공칭호를 수여한다는 정령이 발표되였소. 축하하오. 열렬히 축하하오!》

류현철동무는 두눈을 습벅거릴뿐이였다.

《여보!》

안해가 뒤에서 흐느껴울었다.

모여선 사람들이 부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고였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받아안은 사랑만도 분에 넘치여 대를 두고 그 은혜 다 갚을길 없는데 이런영광을 또 안겨주시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고맙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녕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 하늘에 비기랴 바다에 비기랴. 하기에 그 사랑, 그 은정에 보답하려는 충성의 마음 대하로 굽이치는것이 아닌가. 하여 우리조국은 사랑과 효성의 이야기로 가득찬 화목한 한가정이어라.

내 고향 두메산촌에서

로영우

굽어보면

안개구름 산허리에 감기고

손들면

송이구름 손끝에 닿을듯

내 고향은 그 옛날 화전마을이라오

오가는이 드물어 인정이 멀어졌고

기억속에 멀어졌던고장이라오

허나 피어나는 기쁨 해를 따라 더해오고

누리는 행복 해를 따라 더해올수록

자랑하고싶다오 노래하고싶다오

굽이굽이 령 넘어 구름봉 넘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오셨던 내 고향을

살기 좋은고장이라고

보라꽃 핀 감자밭 등성이에 오르시여

해빛같은 미소 지으시던 산기슭엔

염소, 양떼 구름처럼 흐르고

앞내가엔 팔뚝만한 산천어 놀고

두손 허리에 짚으시고

환히 웃음지으시던 시선을 따라

오리떼 흐르는 푸른 호수가에선

노루, 사슴 송아지무리속에 뒤섞여 놀고

마을 가까운 밭이랑들에선

금빛수답 꼬리긴 수답과 어울려 놀고

아, 산촌에서 더 많은 짐승을 길러

고기문제를 해결하자고

인민생활을 높여

수령님께 기쁨을 올려야 한다고

절절히 하시던 그이의 말씀

자랑으로 꽃핀 땅

어찌 노래없이 살수 있으리오

환희로운 마음 젖어드는

아카시아, 개암, 가독 나무림

불수록 웃음이 둥글둥글 맺히는

호박, 동과, 툇감자 밭은

집집승 늘어나는 내 고향의 기쁨이라오

어깨춤인들 또 어찌 없으리오

달마다 도시에 건설장에

살찐 짐승들을 보내주며 덩실덩실

날마다 시각마다

찾아드는 즐거움이 더 많아 얼씨구 절씨구

참으로 왔다가는 사람들 정을 두고 가는

인심후한 이 두메에

락원으로 펼쳐진 풍요한 살림이라오

그렇다오

고마운 당의 해빛아래

행복이 층층 물결쳐오른 내 고향

피어나는 웃음 흐뭇한 미소가

기름진 생활속에 가득 담겨

넘치여 철철 흐르는 내 고향

오, 이 땅 무수히 많은 두메산촌

그 어디나 내 고향과 다를바 있으랴만

보람찬 삶의 이 보금자리에서

나는 세상에 높이 노래한다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해빛아래선

꿈같은 세월이 몇곱절 빨리 찾아온다고

열쇠

1

(오늘은 꼭 늦었다니까. 망신은 해줬어.)

현희는 달리는 뺑스창가에 붙어앉아 초조히 밖을 내다보았다. 오늘따라 뺑스가 별로 녹장을 부리는 듯했다.

이윽고 종점에 이르렀다.

(정말 늦었구나!)

황황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보도건너편에 위치한 은행쪽을 살피던 현희는 얼굴을 활짝 붉혔다. 간밤에 내린 눈을 치느라 직원들이 모두 떨쳐나서 학교운동회날처럼 뿔뿔이 벌어진 채 있었다. 이미 담장안의 눈을 전부 들어내고 정문밖으로 눈을 밀어내고 있었다.

(야, 참, 요즘의 열쇠가 끝내...)

현희는 외투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묶음을 꼭 쥐었다 놓으며 열린 뺑스에서 내렸다. 땀기가 내배여 불깃불깃한 직원들의 얼굴을 대하자니 온몸이 찻찻 달아오른다. 오늘은 모든 일이 공교롭게만 번져간다.

사실 그는 오늘도 다른날처럼 여유있게 집을 나섰었다. 그런데 뺑스줄에 서서 무심결에 열쇠묶음을 찾아보니 부엌자물쇠에 꽂아둔 채 나온 생각이 났다. 아무리 생각해봐야 장난군인 아들의 손이 안심치 않았다. 그래 부랴부랴 되돌아갔다는 것이었다. 그 일로 해서 서둘러 시작한 것이 뺑스에 오르면서는 뺑스표를 잘못 찢어 한장을 못쓰게 만들었고 지금은 또 이렇듯 《화려한》출근길을 걷게 된 것이다...

(뺑스표도 가위로 오려가지고 다녀야겠어.)

그는 주머니에서 허리가 찢어져나간 뺑스표를 꺼내어 아수히 굵어보며 2층 산업건설자금과로 올라갔다.

사무실 창가에는 강철지도원이 서있었다. 무슨 생각에 골똘해있는지 현희가 들어선 것도 모르고 있다. 언제나 공동로동에 앞장서군하던 강철이가 오늘은 웬일인가.

책상이며 벽한면을 짝 채운 금고들에도 물결레질을 한 흔적이 없다.

잠시 의아해있던 현희는 강철의 책상우에 펼쳐져있는 도면을 발견하였다. 엇그제 건설사업소에서 제출된 유원지 다리설계였다.

(오-그래서였구나!)

현희는 빙그레 웃으며 외투를 벗어걸었다.

강철이도 인기척을 느낀 듯 돌아서더니 수인사

엄휘철

를 건넨다. 그러며 주섬주섬 설계를 걷어모은다.

지금 강철의 손에 있는 설계는 강철의 애인인 정임이가 한 설계였다. 이미전에 그들사이를 연결해주는 데 한몫 했던 현희는 이번 설계의 자금 검토도 다름아닌 강철에게 맡겼던 것이다. 강철의 눈이 부석부석한 걸 보니 그 설계때문에 밤샘을 한 모양이었다.

《출근길에 정임일 만났됐어요. 설계때문에 궁금해하더군요. 좀 자주 만나주나요.》

강철은 점직해하며 책상에 눈길을 떨군다. 공연히 설계를 벌거거리며 싱겁거린다.

현희는 그러는 강철을 재미있게 바라보며 그의 걸음으로 다가갔다. 설계를 펼쳤다.

은빛기둥을 드리운듯한 폭포, 그 밑 소에서 넘쳐나 이루어진 시내물... 그 위로 다리가 휘여건너갔다. 설계라기보다는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아이-요건 꼭 자기를 옮겨왔구나!》

현희는 황홀한 심경에 휩싸였다. 곱고 아련해 보이기만 하던 정임이에게서 어떻게 이런 재간이 쏟아져나왔을가. 놀랍고 기특하기만 했다.

《설계검토는 끝냈겠지요?》

《예.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럼 결재해보내자요.》

《저...며칠 좀 말미를 두어야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 그러합니다. 왜 그런지 좀...》

《현장예요? 미흡한점이 있어요?》

현희는 곱게 휘여건너간 반달눈썹이 꼬부장해졌다. 그의 부은 얼굴에서는 야릇한 의문이 잔물결쳤다.

《아직은 조건입니다만 교각이 필요이상 많아 보이구 또 개개의 교각도 너무 웅장해보여서 그러합니다.》

강철은 마지 못해 대답하는 듯했다.

현희의 눈앞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남편의 얼굴이다. 건설사업소 부기사장인 남편은 어제밤에도 정임의 설계에 대하여 물었었다. 건설사업소설계실에 있는 정임의 설계이니 부기사장이 관심할 수 있었다. 남편은 그 다리건설이 이달 건설지표여서 시간이 빠듯한데 속히 검토해달라고 했었다. 현희는 그때 하루이틀이면 검토가 끝날테니 공연한 걱정은 말고 건설사업소에서 지어주고 있는 은행직원용 씨리카트살림집건설이나 다그쳐달라고 했었다. ...

현회는 한참이나 원주필을 매만지다가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결심대로 하세요, 하지만 오늘중으로 모든걸 결속해야 해요.》

강철은 얼굴의 긴장을 풀며 벌쭉 웃는다. 자기의 견해를 찬동해주는 파장을 고맙게 생각한 모양이다.

…간단한 아침모임이 끝난후 강철은 정임의 설계를 말아쥐고 사무실을 나섰다. 다리건설현장으로 가려는 것이었다.

정문에서 건설사업소설계실에 전화를 걸었다. 마침 정임이가 받았다. 강철의 음성을 알아들은 처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호기심과 긴장으로 가볍게 떠는듯싶었다. 아마도 설계를 은행에 제출한 첫날부터 늘 전화기옆에 앉아 소식을 기다려온것 같았다.

《저녁에 시간을 좀 내주오. 아동공원에서 만납시다.》

강철은 범상하게 말했다. 정임이가 제발 설계에 대한 말만은 말아주었으면 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마음이 전류를 타고 흘러갔는지 정임은 바로 그 문제를 꺼낸다.

《저…설계검토를 동무가 맡았다던데… 혹 무슨 의견이 없어요?》

《뭐, 아직… 그럼 저녁에 만나지요.》

《알겠어요!》

정임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활기를 띠었다.

강철은 야릇한 기분으로 전화기옆을 떠났다. 어떤지 안할말을 한것 같은게 속이 깨름했다. 아니 미리부터 쫓쫓해질진 없어. 현장에 나가보면 그의 설계가 옳다고 증명될수도 있지 않은가. 강철은 저도 모르게 일이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허허 웃었다.

그는 정문앞 버스정류소에 나가 섰다.

차도로 연결차를 단 화물차가 지나간다. 운전칸우에는 흰눈이 덮여있다. 본체 적재함우에는 솜뭉치, 그다음 두대의 적재함우에는 가위밥, 나머지한대의 연결차에는 무엇을 실었는지 훑아있다.

(밥먹고 죽벌이하나는군. 연결차를 만드는데 든 자금과 자재값도 안돼.)

강철은 그 차가 길바닥에 돈을 흘리고 다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수첩을 꺼내어 차번호를 적었다. 월말엔 차사업소에서도 생활비를 타러 오겠지…

설계가 시공될 현장인 교외폭포는 은행앞에서 떠나는 버스의 종점이다. 좀더 기다리면 될것도 왜서인지 그는 종점에서 종점까지 걸기로 작정하고 외투깃을 올리었다. 두손을 외투주머니에 꼭 찌른채 지수굿이 생각에 잠겨 걷는 때가 그에게

는 제일 긴장한 《작업》시간이었다.

하늘에서 두벌눈이 흘날리기 시작했다.

2

끓을라이올라하던 눈은 소리없이 멎었다. 모든 것이 흰빛에 물들었다.

강철은 터벌터벌 아동공원 입구에 들어섰다. 흰눈빛이 반사되어 더욱더 파리해보이는 가로등빛에 얼추 시계를 비쳐보니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다.

공원안을 휘둘러보았다. 인적이 없다. 그는 스포츠적 공원안으로 걸어들어갔다.

지금 그의 심중은 사뭇 복잡했다. 설계현장에 나가본 강철은 설계를 다시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임의 설계가 경제측면에 대한 고려를 안했기때문이었다. 다리가 서게 될 폭포 주변 내물속에는 바위들이 듚성듬성 솟아있었는데 얼핏보매도 그 바위들이 교각을 대신할수 있을것 같았다. 대체적으로 타산해보니 가능할것 같았다.

만약 일이 그렇게 된다면 자금을 대폭 절약하는 것은 물론 자연풍치를 돋구는데서도 좋을것 같았다. …

강철은 정임에게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할일이 걱정스럽다.

(어데 있을까. 아직 만나왔을수 없겠는데…)

그가 두릿거리며 공원입구 전나무결을 지날 때였다. 갑자기 머리우에서 화르르 눈가루가 쏟아져내린다. 《이크!》 황급히 목을 움츠렸다. 허리를 굽히고 황황히 눈을 털었다. 발등에 올라왔은 눈을 탁탁 털며 사방을 휘둘러봐야 바람한점 없다.

《?! …》

그때였다. 어데선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입을 싸쥐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는 소리였다. 전나무뒤에서 들려온다.

(아-하-!)

강철은 얼른 전나무가지를 휘여잡고 우수수 흔들었다.

《이놈의 나무가 요술을 부린다!-》

《어마나!》 아닐세라 정임이가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튀어나온다. 그 찰나 화르르 눈가루가 덮쳐내렸다. 두사람은 순식간에 눈사람이 되고말았다. 나무가지에서 푸시시 날아내리는 눈송이들이 야외등불빛에 비쳐 금싸락 은싸락처럼 반짝인다.

강철은 고개를 들어제끼고 맘껏 웃었다.

정임이도 닭알빛 목도리로 입을 가리우고 한참이나 웃어댄다. 눈가에 이슬이 돌도록 웃고있는 처녀를 건너다보는 강철의 가슴은 한없이 따뜻해졌다. 그는 달콤하고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켰다.

《오래 기다렸소?》

《아니요. 조금...》

처녀는 강철의 손에 들려있는 설계도면을 힐끗 훑쳐보며 방긋 웃었다. 잘록하게 허리를 죽인 곤 청색외투, 한손에 가볍게 든 검색가방, 목에 걸친 계란빛 목도리우에 곰실곰실 파도쳐내린 검은 머리칼... 그 어디서나 아름다움이 향기처럼 풍겨 나온다.

그들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요새 너무 무리하는게 아니예요?》

정임이 물었다.

강철은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임은 그가 건너보내는 정찬 눈길을 이길수 없는지 머리 위에 드리운 나무가지를 살며시 잡아내리워 얼굴을 가리운다. 우수수 눈가루가 흩날린다.

강철은 나무가지를 들어올리며 한걸음 다가섰다.

《저...》

《...》

정임이가 뻔히 건너다본다.

강철은 눈길을 내리깔았다. 몸과 마음이 부자연스러워지며 다리땀이 쑥 빠져나가는듯했다. 건설사업소설계실에 배치된후 처음으로 말은 단독 설계라면서 몹시 흥분했던 처녀, 설계를 제출한후부터 전화기였을 떠나지 못했을 처녀... 그에게 다름아닌 자기가 부족점을 꼬집어두고 나타난것이 못할일을 하는듯 괴롭다.

《왜 그러세요? 제앞에서도 망설이나요?》

정임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저...그 설계말이요.》

《아이-아까 다 말하구선 또... 전 사실 되돌아오지나 않겠는가 걱정했었어요.》

강철은 말문이 막혔다. 아침에 전화로 한마디한 말이 처녀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들떠놓았던것이다. 난처했다. 이제 곧 처녀에게 실망을 줄 말을 해야 할텐데... 점점 입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려고있을수도 없는노릇이 아닌가.

《아무래도 이 설계를 다시 해야 할것 같소.》

《에-에?》

정임은 언뜻 눈을 든다. 놀람과 의혹이 뒤엉킨 표정이었다.

강철의 반복되는 설명에 드디어 말뚝을 깨달은 처녀는 잡고있던 나무가지를 맥없이 놓았다. 거꾸러져 떨어져내리는 눈가루가 싸늘한 빛을 반사한다.

강철은 성급히 눈앞에서 흔들거리는 나무가지를 잡아쥐었다. 처녀가 자기의 진정을 오해하는듯만싶어 불안했다. 그는 멈춰서기도 하고 처녀의 앞에서 뒤걸음을 하기도 하며 바위들을 교각으로 대용할데 대한 문제, 교각부피를 줄일데 대

한 문제를 진지하게 설명해나갔다.

그러나 정임의 얼굴은 점점 파리해졌다. 소곳이 내리칸 눈길과 꼭 다문 입술, ... 처녀는 발바리만 굽어볼뿐 쓰다달다 말이 없다. 납득이 안돼서일까? 아니면... 그는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수 없었다.

《왜 납득이 안되요?》

정임이가 천천히 눈길을 든다. 무슨 말을 할듯 하더니 단념하고 앞서 걷는다. 뽀드득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공원의 정적을 깨뜨렸다.

정임은 탁구판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는 탁구판우에 한벌 덮인 흰눈우에 천천히 부호들을 그려나갔다. 부호들이 늘어간다. 이윽고 마지막합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잠시 생각에 잠긴다.

《저... 바위밀 토질상태가 어떨런지... 그 바위가 자연바위라면 별일 없겠지만 장마에 떠내려온 것이라면 침하현상이 올거예요.》

《그래서 토질검사를 해보자는거요.》

《토질검사요?》

처녀는 눈길을 내리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철은 초조해졌다. 꿈속에서 손에 쥔 무지개가 달아날가봐 걱정하던 순간같았다. 저도 모르게 긴숨이 나간다.

《아이참, 왜 한숨을 쉬는거예요?》

《어디 한숨을 안쉬게 됐소?》

《강철동무두, 참, 제가 바위의 안정성을 물은건 곧 나자신에게 물은것이였어요. 동무는 순식간에 발견한 결함을 난 왜 여직 모르고있었을까요?》

강철은 그자리에 우뚝 굳어졌다. 처녀의 말이 사실인가 의심되기까지 했다. 그만큼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그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며 가슴이 기쁨으로 울렁이기 시작한다. 처녀의 손을 덥석 그러잡고 마구 흔들고싶었다.

《정임이, 고맙소!》

《아이, 그 말은 오히려 제가...》

그들은 말없이 공원길을 걸었다. 온밤 이렇게 걷고싶었다.

강철은 초기에 선보는 식으로 배우자를 택할 마음이 없었었다. 그런 견해부터 반대해왔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사랑은 사랑이다. 문제는 처녀를 어떻게 만나는가에 있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깊이 아는가에 있는것이다. ...

《무슨 생각을 그리 하세요?》

《어? 어-그저 좀...》

강철은 정임의 물음에 대답할 말이 궁해지자 레의 그 탁구판을 가리켰다.

《이것보오. 이 탁구판받침대는 나무 몇대면 될것인데 아까운 세멘블록크를 썼거든. 5 원을 쓰면 될데다 10 원을 투자한셈이야. 내참...》

《호호. 동무넌엔 모든게 다 돈이구만요.》
 《글썸말이요. 어떻게 된건지 그렇게 되누만.》
 강철은 뒤더수기를 굵적거렸다.
 정임은 그러는 강철을 바라보며 입을 싸쥐고 웃는다.

《왜 웃소?》
 《5. 1절때 생각 안나세요?》
 《5. 1절?》강철은 잠시 얼머름해있다가 허허 웃고말았다.

지난 5. 1절때였다. 건설사업소에서는 련관기업소인 중앙은행사람들을 야회에 초청하였다. 흥겨운 야회일정이 흘러 어느덧 오락시간이 되었다. 두단체의 대항이 한참 절정에 이른때에 강철이가 지명되었다. 그는 요즘 청년들속에서 류행되는 서정시를 읊었는데 한창 감정을 멋있게 잡아나가다가 그만 마감결구를 오발하였다.

《…사랑은 천금보다 귀한것》을 《…사랑은 천금보다 귀한것》이라고 했던것이다...

그들은 따듯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거닐었다.
 강철은 정임이와 헤어지는 길로 현희를 찾아갔다. 현희는 텔레비존앞에서 바느질을 하고있었다. 웃저고리 안쪽에 자그마한 주머니를 만들어 붙이고있다.

《열쇠주머니를 달던중이예요.》
 왜그런지 열쇠란 물건은 몸에 꼭 붙이고 다녀야 맘이 놓인다는것이였다.

강철은 현희가 내놓은 사과다반을 굽어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처음엔 답답한 어조로 시작된말이었으나 마감엔 저도 모르게 흥분하였다. 처녀에게서 받아안았던 흥분이 되살아났기때문이었다

고즈넉한 미소를 띠우고 바느질손을 놀리던 현희는 이윽고 실을 물어뜯으며 머리를 들었다.

《설계를 다시 시킨단말이지요. 그럼 문제가 복잡해질텐데...》

강철은 얼머름해졌다.
 현희는 강철을 건너다보며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말했다.

《동무넌 새살림을 펴지 않겠어요?》
 《예-에?》
 현희는 점점 요지경속같은 말만 한다. 갑자기 새살림이라니...

《아이-언제면 철이 듣가. 이봐요.》
 현희는 강철의 손에 사과를 쥐여주며 곱게 눈을 빨았다.

《그 설겐 이미 건설사업소에서 지지한거예요. 월계획에도 들어가있구요. 그러니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은행직원들의 살림집건설때문에 밤낮 수고하는 그들인데 우리 때문에 계획수행에 지장을 받아보세요.》

강철은 비로소 그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얼굴이 화끈 달았다. 더우기 머지 않아 동무네도 그들이 지은 집에서 살아야겠는데 그만한것도 생각 못하느냐는듯한 암시가 불쾌했다. 살림집건설과 다리건설이 무슨 상관이란말인가. 그 《신세》를 무원칙한 설계검토로써 갚으라는건가? ...

《아니, 설계를 다시 시켜야겠습니다. 본인도 접수한이상...》

《동문 참 고집쟁이군요.》
 현희의 얼굴은 싸늘해졌다.

강철은 자리에서 궁싹거리다가 벌떡 일어나 인사를 하고는 나와버렸다. 현희에게서 두번째로 듣는 《고집쟁이》였다.

몇년전 강철은 건설대학 통신학부를 지망했었다. 현희는 은행일군이 건설대학이란 웬소리냐고 놀라와했다

《건설설계를 똑바로 보고 자금통제를 하자면 건설을 알아야 합니다.》

《글썸... 생각은 알만해요. 하지만 경제전문학교를 갓 졸업하고 은행에 온 동무로선 자기 일에 정통하는게 급선무일텐데... 고려해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강철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강철이가 첫 등교수업에 가는 날, 현희는 그에게 어쩔수 없는 고집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잘하라고 만년필을 쥐여주었었다. 현희는 이런 녀자였다.

(내가 너무하지 않았을가?)
 얼굴에 손을 들어보니 사과가 쥐여져있다. 방에서 현희가 들려준것이였다.

그는 와삭 소리를 내며 사과를 베어 물었다.

3

강철은 눈부신 용접불빛을 손으로 가리우고 건설장을 휘돌러보았다. 오늘은 산업건설자금파가 모두 여기에 나왔었다. 건설사업소가 자기네 주력때문에 수고하고있는데 주인들이 가만있어서야 되겠느냐며 조직한 금요로동이였다. ...

그가 막 현장사무실 문손잡이를 쥐었는데 안에서 현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디엔가 전화로 거는 소리였다.

《기사장동지지요? 아까 말하던 그 설계말이에요. -예- 넘겨받으세요-》

(설계?)
 강철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업복차림으로 둘러앉은 직원들의 눈길이 일제히 날아온다. 언뜻 강철을 일별한 현희는 반쯤 몸을 돌리며 황황히 얼버무린다.

《예. 아까 토론한대로 하자요. 예-제가 책임지

겠어요!》

설계, 책임, 넘겨받으라니-

강철은 편뜻 신경을 돌구었다. 혹시 자기가 받았던 설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설마... 그럼 왜 당황해하는가? 하긴 요즘에 와서 강철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같지 않은 현회였다.

오늘 아침의 일만해도 그랬다. 파장은 강철에게 주력건설장에 나가라고 했다. 강철은 다리건설장토질검사에 나가야겠다고 했다. 아직은 말뿐이고 실행하지 못한 문제였었다.

《그건 우리 사업범위가 아닌데... 하지만 정 고집하니 할수 없군요. 하지만 언제까지 시간을 줄순 없어요.》

쌀쌀한 말이였었다. 파장은 그와 눈길을 마주치는것조차 피했었다. 그렇게 되어 현회가 대신 건설장에 나가고 강철은 교외 다리건설장으로 나갔었다.

(그 일때문이겠지!)

현회는 사업총화를 시작했다. 얼핏 강철을 일별하는 그의 눈길은 울곧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열쇠묶음을 꺼내들고 만지작거리며 묻는다.

《강철동무, 갓던 일은 어떻게 됐어요?》

《뭘, 별로...》

강철은 아침에 건설사업소를 찾아갔었다. 그가 만난 직장장은 토질검사를 해줄것을 제기하는 강철의 말에 딱해하였다.

《오늘 작업지령은 끝났는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요는 강철의 개인적부탁을 사업소가 들어줄수 없다는 태도였다. 그리하여 강철은 온종일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바위와 씨름을 했었다. 그러니 그 일이 자리가 날턱 없었다...

《동문 참, 크지 않은 그 설계 한장때문에 일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알기나 해요? 건설사업소에서는 우리때문에 계획을 못한다고 원망해요.》

강철은 모닥불을 들쓴듯했다. 머리를 들수 없었다. 수치감에 정수리가 따갑다.

현회의 말에 반박할수 없는 그였다. 제 앞치리도 못하는 처지에 무슨 항변을 한단말인가. 그는 머리를 푹 숙인채 사업노트 여백에 자기도 알수 없는 그림을 긁적거리기만 했다. 답답한 어조로 주사업을 총화해가는 현회의 목소리가 모기소리처럼 앵앵거릴뿐이였다.

옆에서 누군가 옆구리를 찌른다. 회계원아주머니가 전화기를 내밀고있었다.

강철은 얼떠름해 쳐다보기만 했다.

《건설 사업소 설계실쳐너래요. 급한 용무라는데.》

강철은 목덜미까지 후끈 달았다. 하필 이런 때에... 그는 얼른 송수화기를 감싸쥐고 책상맡으로 내려앉았다. 정임이였다.

《강철동무, 도대체 어찌자는거예요?》

처음부터 따지는투다. 아니 본격한듯도 했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언젠 설계를 고치자더니 오늘은 설계를 그대로 넘기라 하고... 어느쪽이 진심이에요?》

《설계를 넘기다니? 난 금시초문이요.》

《그럼 모른단말이에요?》

방금전 건설사업소 기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종전 설계를 그대로 시공에 넘기기로 은행과 합의했으니 그리 알려더라는것이였다.

《은행과 합의했단말이지?》

강철은 후두두 팔을 떨었다. 정임이가 계속 무슨 말인가 해댔으나 통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파장동무가 당황해했었구나!)

《정임이예요? 그 전황 이리 주세요.》

현회가 강철에게 손을 내민다. 그도 전화소리를 들은 모양이였다.

강철은 전화기를 덜컥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현회를 뚫어지게 마주보았다. 무시당한 원칙성이 울분과 뒤섞여 턱밑을 치받친다.

현회는 강철의 이런 태도에 모욕을 느낀듯 쥐고있던 열쇠묶음을 소리나게 놓았다.

《파장동무, 전 그 설계에 통과수표를 하지 않습니다.》

《내 결심으로 했어요.》

《파장동무에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강철의 눈두덩이 푸들푸들 뿔다.

현회도 강철을 똑바로 건너다본다. 표표한 그의 눈길에는 비난과 원망의 색이 짙게 어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의외로 조용했다.

《은행이 설계 한장때문에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순없어요. 우리 은행은 반영된 설계에 기초한 자금투자를 검토하는 기관이지 설계검열국이 아니라 말이에요.》

강철은 아연해졌다. 현회가 저런 녀자였던가? 체면이란 물건을 나라의 리익보다도 앞에 놓다니. 그 체면이란 따지고보면 곧 살림집과 련결된것이 아닌가. 리해할수 없었다. 강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쨌든 저는 자금량비를 묵과할수 없습니다.》

《그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가건설에 지장을 준건 나라의 리익을 고수한건가요?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세요.》

강철은 말문이 막혔다. 현회의 말에 반박할 근거가 없었다. 그렇다! 증명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고집으로 남는 법이다. 그래도... 속이 끓는다.

직원들은 당황하여 슬금슬금 자리를 일었다.

사무실에는 그들 둘만에 남았다. 현회는 눈길

을 떨구고 사업일지를 뒤적거렸다. 강철은 창밖을 내다보고...

우르릉- 기증기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온다.

침묵... 침묵

강철은 그 침묵이 자신의 몸을 압박하는듯하여 서둘러 목단추를 터쳤다. 설계는 곧 자금이고 자재이다. 따라서 설계승인은 자금출고 승인이며 자재투입 승인이다. 그래 그 자금과 자재가 그 어느 개인의것이란말인가. 한푼한푼에 인민의 땀과 노력이 숨배인 돈? 그것을 잘 지키고 유용하게 쓰라고 은행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귀중한 돈을 서푼짜리 체면과 바꾸려들다니... 인민들이 이것을 알면 우리를 용서치 않을것이다. 제집 열쇠는 주머니까지 만들어 보관하면서... 강철은 책상우에 놓인 현회의 열쇠묶음을 저도 모르게 그려쥐었다.

이윽고 현회가 머리를 들었다.

《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줄은 몰랐군요. 나도 20 년이나 은행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련관기업소들과의 관계를 일부러 악화시키는건 우둔한 짓이에요. 그리고 정임이 생각도 좀 해야지요.》

《?! ...》

《우리에게 돌려진 불만의 화살이 정임에게로 가닿고있어요.》

강철은 심장이 후두두 뻗을 느꼈다. 마치 불아궁에 던져진듯 온몸이 화끈 달아오른다. 가슴속에서 불끈 불뭉치가 치솟았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파장동무! 이제 제가 건설사업소로 가서 그설계의 불합리성을 알려주겠습니다.》

《뛰라구요?》

현회의 속눈썹이 파르르 떠난다.

강철은 책 돌아섰다.

정신없이 계단을 내려오던 강철은 모자를 쓰려고 손을 들었다. 그 손에는 모자가 아니라 열쇠묶음이 들려있었다. 현회의것이였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직도 창백한 얼굴로 굳어있는 파장에게 열쇠를 넘겨주고 모자를 당겨쥐고, 그리고는 서둘러 뛰쳐나왔다. 부각부각 피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가봐 두려웠던것이다.

4

현회는 점도록 곧로옆에 앉아있었다. 파아란 석유불이 솟아오르는 곧로우에서 감자장이 보글보글 끓고있었다.

(국물이 졸겠구나. 남비를 내놔야지!)

그러나 손은 남비가 아니라 열쇠를 주물렀다. 열쇠가 별스레 차갑다. 그는 호- 가는 숨을 내쉬었다.

문득 열쇠를 그의 손에 콕 넘겨주고 뛰쳐나가던 강철의 꺼멓게 된 얼굴이 떠오른다.

현회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강철에게서 그런 모욕을 당하다니... 섭섭했다.

그것은 파장이 파원에게서 비난을 받았다는 단순한 분김이 아니였다. 투박한듯하면서도 순박한 청년, 고집이 센듯하면서도 리해력있는 그를 위해 정임을 소개하여나섰을 땐 얼마나 즐거웠던가. 그런데 강철은 그 은혜를 화로 갚아나선것이다. 저네들이 살 보금자리를 세우고있는 건설사업소를 위해 자그마한것을 양보하려 한 내 심정이 그에게는 그토록 고까운것이였을가?

《여보, 국이 타요.》

《에!?》

현회는 화닥닥 놀라 일어섰다. 퇴근차림의 남편이 문가에 서있었다. 현회는 한손에 종이말이를, 다른 손엔 가방을 든 남편의 얼굴을 멍히 건너다보기만하였다.

《국이 탄다지 않소!》

남편은 서둘러 곧로불을 켜다.

현회는 남의 일처럼 멍히 굽어보기만했다.

남비까지 들어내놓고난 남편은 부뚜막에 걸터앉아 《제비》를 붙여몰며 던지시 물었다.

《당신 이 설계초안을 봤소?》

《?! ...》

《강철지도원의 의견에 따라 정임이가 다시 그린것말이요.》

《다시 그런거요?》

《물론 아직 초안이에요. 대략적인 추산에 의하더라도 40 프로의 자금이 절약되겠더군!》

《40 프로요?》

현회는 깜짝 놀라며 그 종이장을 끄당겼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설계초안을 더듬어보았다. 본래 6 개로 예견된 교각중에서 4 개는 자연바위로 대용하고 나머지 2 개의 교각도 그 부피가 대폭 줄여져있었다. 40%... 실로 엄청난 수자다.

현회는 설계의 가능성보다도 그 수자가 더 놀라왔다.

현회는 놀라운 눈길로 남편을 건너다보았다. 남편도 자기를 측은히 건너다본다. 왜 저렇게 볼가?

《퇴근시간에 정임이가 찾아왔더군. 그는 본래 설계를 그대로 시공에 넘길수 없다면서 철수시켰소. 당신을 원망하더군.》

《나를요?》

《그래. 당신을... 여보, 당신이야 그가 빗나가는 걸 바로잡아주었어야 할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그 설계를 그대로 넘기다니... 물론 당신은 시공에 투하될 돈이 자기 돈이 아니니까 손이 떨리지

않았겠지. 또 그 돈을 제주머니에 넣으려는것도 아니니까 량심의 가책도 없었을거구. 하지만 그 건 나라돈을 제주머니에 넣는것보다 더 나쁜 일 이요.》

《뭘라구요? …》

《…》

남편은 천천히 작업복을 갈아입었다. 작업모를 눌러쓰더니 문가로 다가갔다.

《어딜…》

《토질검사에 나가야겠소!》

남편은 문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현희의 귀가에는 그 문소리가 열배 백배로 확대되어 웅- 공명을 일으켰다.

내가 과연 이 비난앞에 뒤흔들수 있는가! 장담 할수 없다. 찢어진 뺨스표 한장이 아까와 가위로 꼼꼼히 오리던것처럼, 그리고 열쇠주머니를 달 던것처럼 일전일전을 따져보며 일했는가? 그것 역시 장담할수 없다! 40%의 절약금…

《…제주머니에 넣는것보다 더 나쁜 일이요!》

남편의 이 말이 귀전에서 씹없이 웅웅거리며 점차 잡음으로 확대되어 자기몸 전체를 까닭모를 미궁속으로 떠박지르는듯했다.

현희는 종이말이를 손에 든채 허청허청 창문가로 다가갔다. 짜늘한 창유리에 이마를 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불바다-도시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저 불빛속의 수십만 사람들은 이밤도 자기들의 성실과 근면과 땀과 량심으로 채워진 나라금고를 우리 에게 맡긴채 만시름을 잊고있다. 그들은 우리도 자기들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나라의 재부를 지키리라 믿고있을것이다. 아니, 국고가 우리 은행일 군들의 손에 맡겨져있다는것을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을것이다. 수입인지 한장을 사려고 은행을 찾아나섰다가 은행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전화로 알아보거나 직장의 회계원에게 물어서야 찾아왔다고 하던 허다한 사람들의 경우가 그것을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그렇다! 나라의 돈을 제주머니에 넣는것은 그 한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만 은행일군이 설계검토에서 범하는 실책은 수많은 나라재산을 강물에 흘려보내는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현희는 편듯 정신을 차렸다. 창가에서 뻗 물러났다.

(아직 늦진 않았어. 아니 늦어서는 안돼.)

그는 시내빠스를 탈 생각도 잊고 정신없이 전 설사업소로 달려갔다.

5

그들은 잠시 둔덕에 서있었다.

씹없이 떨어져내리는 인공폭포의 물소리, 어둠

속에서 남빛으로 번들거리는 물기둥, 그쪽에서 불어오는 눅눅하고 비릿한 물바람…

정임은 얼굴에 끼쳐드는 물보라에 소스라치며 강철의 결으로 바짝 다가들었다.

이윽고 그들은 내가에 내려섰다. 수천개의 별 쏘박들이 물속에서 어룡거린다. 얼음이 번들거리는 기슭에는 어제밤 파제긴 모래무지가 검스레 솟아있었다. 아직도 여러개의 바위밑을 해부해보아야한다.

강철은 따뜻한 동북주머니에서 손을 빼기가 싫어 잠시 바위모서리에 어깨를 대고 서있었다.

문득 정임의 처지가 얼마나 딱해졌는지 아느냐고 절절히 말하던 현희의 부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정임을 돌아보았다. 처녀는 벌써 외투를 벗어 차곡차곡 개어놓고있었다.

강철은 머리를 쓸어넘기고 천천히 물에 들어섰다. 《헛!》 저도 모르게 흐느껴졌다. 등등 뜬 얼음덩이가 종다리를 스칠 때마다 소름이 끼쳐진다. 뒤편 노가지나무로 찌르는듯 따끔따끔한 아픔이 다리로부터 심장쪽으로 뻗어오른다.

《동문 안되겠소. 불이나 피우오.》

강철은 서둘러 따라서는 정임을 만류하였다. 저력저력 얼음물을 박차며 맞은편 바위로 다가갔다. 얼음장이 허벅을 툑툑 친다. 발바닥의 모래가 불처럼 따갑다.

강철은 바위밑을 파기 시작했다. 쨍-쨍- 얼음판에 곡괭이들이 박힐 때마다 차디찬 물방울이 뺨을 때린다.

(아홉… 열… 파장동문… 지금…무엇을 하고있을가?… 제길, 이 순간에 어쩌서 파장동무의 얼굴이 떠오르는가! …)

곡괭이를 놓고 삽을 들었다. 물살에 삽날이 좌우로 밀려다니며 흙밥이 떠지질 않는다. 이마에 진땀이 내뿜는다. 물에 잠긴 아랫도리는 점점 얼얼해온다.

(파자. 더 파… 하나, 둘, 뭐 설계검열국이 아니라구?)

등뒤에서 탁-탁 삭정이 타는 소리가 들려온다. 뒤편 구수한 낸내… 불이 그림다. 좀 나갈까? 아니, 좀더…

모래로 물살을 막았다. 그다음 삽으로 물을 퍼냈다. 밑바닥에서 번번한 바위뿌리가 드러난다. 곡괭이다리로 꺾꺾 들판을 올려보았다. 굳고 질긴 청석이었다.

《됐어! 이만하면 백톤을 올려봐도 문제없겠어.》

강철은 이마의 땀을 문다지며 허리를 폈다.

《이젠 좀 교대하자요-》

《교대?- 그러지-》

강철은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곡괭이는 그냥 손에 들고 정임이 피워놓은 우등불가에 앉았다.

처녀는 강철의 앞으로 불을 둔구어준다. 얼어 들었던 다리가 스르르 풀리기 시작하며 저러든다. 그는 두손으로 장단지를 주근주근 주물려대며 언저시 정임을 건너다보았다.

불빛에 타는듯한 빨간 세타, 그 역광에 발그레해진 처녀의 얼굴. 가슴이 후더워오른다. ... 저처럼 아름다운 처녀를 소개해준 현희는 왜 저와같이 아름답지 못할까. 결국 보는 눈과 심장이 다르단말인가? 아니 눈은 곧 심장이다. ...

강철은 다시 물에 들어섰다. 물속에 내려앉아 오스스 떨고있던 별무리들이 놀란 참새때마냥 화려하게 흩어진다.

이때였다.

등뒤에서 급정거하는 차소리가 났다. 뒤이어 폭포주위가 대낮같이 밝아진다. 자동차 전조등빛이었다.

《?! ...》

강철은 손으로 불빛을 가리우며 돌아보았다. 허둥지둥 달려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른거린다. 이밤에 누구들일까?

《아니, 현희언니가?》

수십명의 사람들로 에워싸인 우등불가에서 정임의 놀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현희? 그럼 과장동무가? ...)

강철은 되돌아나왔다. 심장이 쿵당거린다.

버드나무가지가 열기설기 얼어붙은 강변에 웅기중기 모여선 장정들속에서 현희가 그를 굽어보고 있었다. 두손으로 꼭 잡은 도면을 가슴에 끌어붙이고 강철의 앞에 나선 현희의 두눈이 가늘게 떠는듯싶었다. 눈동자에 비낀 두개의 별쫓각이 물기에 차분히 젖어든것 같았다.

《과장동무가 어떻게... 그러구 이분들은...》

《그 공갱이를 이리 주세요.》

현희는 도면을 정임에게 넘겨주고 손을 내밀었다.

강철은 서둘러 그의 손을 밀막았다.

《아니 과장동문 못합니다. 이젠 다 뻤는걸요.》

《혼자선 아무 일도 못해요.》

현희는 천천히 공갱이를 받아들였다. 어딘가 먼공간을 바라보는 그의 눈길에는 짙은 회오의 빛이 어렸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정임의 설계초안을 봤어요.》

현희는 침병 물에 들어섰다. 은빛 운무쫓각들이 발밑에서 넘놀았다.

《난 제집 열쇠처럼 은행열쇠를 간수하지 못했어요. 글썄 그게 어디 뺄표 한장에 대비할 일이겠어요?》

현희는 저력저력 물속으로 걸어들어갔다. 함께 온 건설사업소 측량공들도 서둘러 물속에 뛰어들었다.

강철은 물가에 서있는 정임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공공 얼어든 다리가 확-풀리며 온몸이 훈훈해왔다. 열쇠, 뺄표 한장... 현희가 방금 쏟아놓은 말마디들이 그대로 불덩이처럼 온몸을 달구었다.

열쇠란 얼마나 정직한 물건인가. 문제는 열쇠를 다루는 사람에게 있다. 한가정의 주부가 열쇠를 허술히 다루면 한집안 살림이 피해를 입지만 은행일꾼들이 열쇠를 잘못 다루면 나라살림이 밀빠진독이 된다.

그렇다! 은행일꾼은 조국의 재부를 책임진 사람들이다.

토질확정은 밤 11시가 지나서야 끝났다. 모두 땅속깊이 뿌리내린 자연바위들이었다.

《화물차야 어떻게 타고 가겠어. 시내뺄표를 타고 오라구.》

현희는 규모있게 오른 두장의 뺄표를 정임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들은 걸었다. 행복한 밤이었다. 심장도, 숨결도 하나로 이어져 발걸음이 가벼웠다.

《피곤하지 않아요?》

정류소앞에서 정임이가 벗어섰다.

《다음 정류소에서 타지 뭐.》

무연한 논밭을 끼고 걸었다. 부지런한 농장원들이 실어낸 두엄무지에서 푸수한 냄새가 날려온다.

시내입구 정류소도 스쳐지났다. 고층살림집 창문들도 모두 잠들었다. 이따금 밤교대 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씩 오간다.

얼마후 강철은 걸음을 멈췄다. 정류소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있는 대학생들을 보았던것이다. 정임이가 지친듯해보였다.

《자, 이젠 뺄표를 타지요.》

《종점입니다.》 대학생의 말이다.

정말 은행앞이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웃고말았다. 종점에서 종점까지 걸어온것이다.

강철은 믿음직한 보초병인양 굳게 닫겨있는 은행철문을 바라보았다.

《난 저 대문앞에 큼직한 열쇠를 새겨놓고있소.》

《열쇠를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에게도 이 땅의 모든 기쁨과 행복이 바로 저 대문을 거쳐 자기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찾아가는듯싶었다.

행복에 대한 생각

김원복

사람들은 흔히 즐겁고 기쁠 때면 행복감에 대하여 생각하며 또 자기나름으로 행복에 대해 말한다.

나도 역시 그런 때가 많다. 그리고 생각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때마다 짧은 소견이기는 하지만 행복에 대하여 나는 나의 사업과 생활에서 부러움을 모르는 더없이 만족하고 즐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국가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 필요한 온갖 물질문화적조건과 능력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비롯한 국가적, 사회적 혜택을 받으면서 고르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생활이야말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것이다.

나는 그것을 얼마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해외교포가 어느 인민학교를 참관하다가 어린 학생에게 물었던 이야기에서 절실히 느끼였다.

그때 해외교포는 3학년 녀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다.

《애, 네가 3학년이라지? 그래 월사금은 얼마나 되느냐?》

갑자기 질문을 받은 어린 녀학생은 어리둥절하여 머루알같은 까만 눈만 깜짝거렸다. 질문하는 뜻을 되새겨보는중인지 잠시 생각을 고루더니 녀학생은 글을 읽듯이 또랑또랑 대답하였다.

《월사금이요?! 우리 집에는 가야금, 손풍금은 있는데 월사금은 없습니다.》

《뭐라구?!》

《정말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월사금은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어린 녀학생을 내려다보던 그 해외교포는 놀라듯 입을 벌렸다. 자기는 지금 분명히 한달에 학교에 물어야 할 돈이 얼마인가 하는것을 물었는데 이 아이는 똥판지같은 악기이름을 꼽고있지 않는가.

이제 열살이 되나마나한 애가 사람을 놀리다니...

해외교포는 낯색을 붉히며 손을 뻗어 내저었다. 이렇게도 맹랑하게 일이 될줄이야...

아니다. 그 녀학생은 해외교포를 놀린것도 아니고 맹랑한 대답을 한것은 더욱 아니였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월사금》이란 말이 없어진지 오래다는것을 해외교포는 모르고있었던것 같았다.

지금 이 어린 녀학생은 사전에나 적혀있을 월사금이라는 말을 찾아볼줄 아는 그런 나이가 아니였다. 그 애는 새 세대이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태어나 행복만을 누리며 피어나는 꽃봉오리이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하는 노래를 즐겁게, 행복에 겹겹이 부르며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이런 아이가 학교에 매달 돈을 내야 한다는것을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 녀학생이 《월사금》이란 말을 어느 악기의 이름처럼 생각한것은 십분 이해할수 있는 것이였다.

해외교포는 바로 이것을 알지 못했던것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생활에 물젖은 해외교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너무도 이해가 적었던것이다.

이 땅에는 실업자가 없다. 거지라는 말은 더구나 없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잘살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 사는 그런 차이도 없다.

우리 인민들은 국가로부터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문화적혜택을 보장받고있다. 아니 우리가 모르고 받고있는 국가적, 사회적 혜택은 또 얼마나 많은가...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부러움을 모르는 즐겁고 보람있는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부모가 열자식이면 열자식을 똑같이 행복하게 자래우듯이 위대한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품속에 안겨 모두가 고르게 똑같이 누리는 행복한 인민이다.

이것을 자본주의사회에서야 생각이나 하겠는가. 물질문화적혜택은 더 말할것도 없다. 초보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한 인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들다. 말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그로부터 빚어지는 비극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매일 같이 듣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굳건히 지키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마련하여주신 복받은 제도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함으로써 오늘보다 비할바없이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확고하며 망만적이다.

그렇다. 행복은 영원히 우리의것이며 우리는 그 행복의 향유자이다.

역사적사실에 대한 감명깊은 예술적전형화

장편소설 《김정호》에 대하여

강 진

력사소설창작에서는 우리 인민의 반침략, 반봉건투쟁과 함께 우리 인민들에게 고유한 아름다운 민족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우리 나라의 역사와 지리, 문화유산을 열렬히 사랑하고 빛내이며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몸바쳐 싸워온 참다운 애국자들의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게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이런 작품들은 이미 역사적과거로된 생활자료를 가지고도 현시대의 사람들에게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여기서 가장 절박한 창작상문제는 무엇이겠는가.

지난날의 민족생활을 함부로 개작하거나 현대화할수는 없다. 력사소설에서 작가는 지난날의 생활을 현대적으로 개작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응당 력사적구체성속에서 당대현실을 진실하게 그리되 그가운데서 오늘 우리 인민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진보적이고 아름다운 생활을 찾아내여 보여주어야한다. 이것은 창작에서 반드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요구를 옹계 구현함으로써만 실현된다.

장편소설 《김정호》는 바로 이 원칙과 요구에 따라 력사적사실들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전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저명한 지리지도학자 김정호의 열렬한 애국의 념을 립체적인 구성속에 매우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는것으로 하여 그형상적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1

《나는 천만산악에 올랐으나 아직도 소원을 풀지못하였다. 아, 내 만일 수리개처럼 날수만 있다면 나는 하늘중천에 높이 떠서 이 나라의 생김새를 한눈에 굽어보며 대동여지도를 그리려면 날개가 없어 나는 산에 오르고 또 오른다.

오늘도 걷고 래일도 걸을것이다.

조선의 새 모습을 찾는 그날까지...》

이것은 고산자 김정호가 지도초고 첫머리에 쓴 글발의 한구절이다. 이 글을 본 그의 외동딸 술매도 고결한 그 뜻에 감동되어 아버지를 눈물속에서 떠밀어보내는데 우리 어찌 그에 공감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이 심장의 글발속에 그의 불타

는 애국의 념이 감명깊게 집약화되어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오랜 력사에 빛나는 자욱을 남기고있는 조선의 참된 아들 김정호는 조국을 그저 사랑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한평생 조국의 땅덩어리를 통채로 뜨거운 가슴에 그려안고 다니면서 대동여지도로 만든 류다른 애국자이다. 소설은 그의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통하여 열렬한 애국자로서의 고유한 성격적특질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동하게 개성화하고있다.

그는 언제나 조국강토를 심장속에 깊이 새겨안고 살았으며 조국강산 또한 그를 항상 수려한 그품에 안아 삶의 젖줄기를 물려주었다. 이로록 김정호의 전생애는 조국강산과 잠시도 뗄수 없는 유기적화폭속에 형상되고있다. 바로 여기에 다른 력사소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주인공의 독특한 성격적매력이 있는것이다. 대지쟁이 의지삼아 하루도아닌 27년의 기나긴 세월, 이 나라 방방곡곡 그가 아니 밝은곳 없으니 이 땅에 새겨진 그 발자국 찾을길 없어도 대동여지도의 갈피마다에 새겨넣은 그 뜨거운 애국의 념은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을 후덥게 하여주고있다.

작품에서 받아안게 되는 이러한 예술적감흥은 전적으로 주인공의 웅심깊은 애국주의적사상감정을 우여곡절과 시련에 찬 생활의 계기마다에서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한데서 담보되고있다.

작가는 우선 김정호가 나라에서도 감히 엄두를 못내고있는 지도제작을 스스로 맡아나서서 한생을 다바쳐 완성해나가게 되는 그 생활근원부터 력사적구체성속에서 잘 밝혀내고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군교로 있던 아버지를 따라서 장수산에 자주 올라 이 나라 산천을 그리면서 지리지도학에 뜻을 두게 되었으며 아버지와 벗들의 도움으로 널리 자료를 수집연구하여 지구의와 청구도를 만든 다음 실측의 길에 올라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던것이다. 그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잘못 만든 지도때문에 오랑캐들의 흉탄에 맞아 숨을 거둔 아버지의 유언대로 꼭 정확하고 상세한 조선지도를 만들리라고 다짐한 결심이 자리잡고있었다. 하기에 그는 항상 이 나라 사람들에게 제나라 제땅을 알게 하여 그 보배로

운 땅을 귀중히 여기도록 하며 란시에는 적을 쳐 부시고 평시에는 나라의 경제를 부흥발전시켜 조국땅을 더욱 빛내이게 하려는 열망에 불타고있었다.

주인공이 청춘시절의 사랑도 단란한 가정의 행복도 다 버리고 굶주림과 자연의 온갖 형포, 봉건관료배들의 가혹한 탄압 등을 걸음마다 이겨내며 갖은 고초를 다 겪어온것도 바로 이 숭고한 뜻을 꽃피우기 위해서였다,

소설에서 주인공의 이러한 높은 정신세계는 당대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인정세태적인 생활화폭속에 부각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그것은 주인공이 지도제작에만 정신이 팔려 선화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사랑의 싹을 무참히 짓밟은줄도 모르고 살아온 청춘시절을 회고하면서도 나서자란 이 땅에 무엇인가 값진것을 바쳤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계속 시련을 맞받아나가는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또한 그것은 12 년만에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가족들사이에 겪게 되는 인정심리적체험세계에서 더욱 심화되고있다.

주인공이 자기를 애타게 기다릴 안해를 위해서 비단웃감을 끊어왔건만 벌써 안해는 심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야속한 세상을 원망하며 몸부림칠 때와 그 슬픔이 가시기도전에 또다시 어린 딸을 홀로 남겨둔채 집을 떠나야 하는 극적체험세계에서 그의 고결한 사상감정은 더 한층 가슴뜨겁게 안겨오는것이다.

주인공의 애국적인 사상감정세계는 소설에서 이처럼 인정세태적인 생활속에서 부각되어 오다가 점차 그 폭을 넓혀 8 도강산을 편담하는 과정에 사귀게 되는 각이한 인간들과의 호상관계속에서 더욱 다양하게 펼쳐지고있는것이 또한 특징적이다.

그가운데서도 금강산의 구룡연을 찾아가는길에서 량반놈의 나귀고삐때문에 해묵은 큰 해나무껍질이 벗겨진것을 보고 마치도 자기 몸에 상처를 입은것처럼 가슴아파하며 《보호목》이라는 패쪽까지 써붙여놓고 량반놈에게 호된 징벌을 안겨주는 대목은 매우 인상적이다. 여기서 풍류시인 김삿갓을 만나 구룡소의 깊이를 알아보며 뛰어들려고 하는 장면도 참으로 기품진 형상화폭이다.

주인공은 《저 물이 왜 저렇게 맑고 깨끗한것 같소?》라는 물음앞에서 망설이고있는 김삿갓에게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는것이다.

《그 까닭은 저 물을 담고있는 그릇이 티없이 깨끗하기때문이지요. 나는 이 나라 땅덩어리가 그런 훌륭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오.》

김삿갓은 이 의미심장한 말을 듣고서야 청룡이 도사리고있다는 그 무시무시한 구룡소에까지 뛰어들어 그 깊이를 정확히 알아보려고 하는 정도의 높은 애국충정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열렬한 애국충정을 주인공이 해산포수 허달삼과 함께 백두산에 올라 통나무를 찍어서 떼를 무어-천지에 띄워놓고 일진광풍에 휘몰아치며 천둥소리 요란한 안개비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천지의 호심깊이를 재이는 장면에서 더욱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된다.

이밖에도 작품에서는 수십장의 지도초안들을 넣고있는 대지팽이를 사정에 처했을 때에도 놓지 않고 명줄처럼 지키는 모습에서와 화적떼에 붙잡혀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보폭으로 길의 리수를 재이는 형상을 비롯한 수많은 생활세부들을 통하여 주인공의 애국적인 사상감정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작가는 주인공의 애국적인 성격특질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정서적으로 웅심깊게 개성화하고있을뿐아니라 반동관료배들과의 심각한 대결속에서 극적으로 예리하게 부각함으로써 우리의 감흥을 더욱 강렬하게 불러일으키게 하고있다.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형상적특성이 있는것이다.

주인공이 대동여지도를 만드는 과정은 실로 봉건관료배들과의 예리한 극적인 대결로 일관되고있었으며 그것은 지도가 완성됨에 따라 더욱더 심각화되어갔다. 비변사 김윤을 비롯한 악질관료배들과 공리공담을 일삼는 봉건사대부들은 주인공이 《전국지도제작안》을 건의했을 때부터 포도청에 잡아다 곤장을 안겼으며 완성된 지도를 조정에 바쳤을 때에는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간신들과 음모작당해서 나라의 기밀을 누설하는 지도를 함부로 만들어 외국선교사들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반역죄까지 날조하여 극형에 처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주인공은 놈들의 가혹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고결한 애국지조를 지켜내는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 주인공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중한 지도와 판각을 놈들의 책동에서 지켜내려고 고심하는 형상과 사형장에서 마지막 소원을 푸는 숭고한 모습에서 감동의 눈물을 금할수없다.

눈앞에서 하늘거리는 푸른 잔디를 바라보던 그는 저 쓰러진 풀대를 바로세워주고 죽자고 생각하며 교형리들에게 결박을 잠깐 풀어줄것을 강경히 요구한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였다. 죽음을 앞두고 간절한 소원이 얼마나 많았으랴만

그는 쓰러진 조국의 풀대부터 바로세워주고싶었던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작은 소원으로가 아니라 더없이 크고 숭고한 소원으로 안겨온다.

소설에서 이 장면의 묘사는 참으로 감동적이다.

우리는 결박에서 풀려난 주인공이 잠시 손목을 주무르고나서 무릎걸음으로 뒤통자욱 걸어나가 쓰러진 풀대들을 바로세워준 다음 떨리는 손으로 푸른 잔디를 쓸어만지며 애무해주는 모습을 눈물속에서 방불하게 보는듯싶다. 그러나 작가는 그것도 성차지 않아서 주인공이 허리를 굽혀 두팔을 힘껏 벌리고 풀잎들을 쓸어안고 마치 갓난애기의 불에 입맞추듯 걸탐스럽게 불을 가져다대고는 사랑하는 이 땅과 하직인사를 고히도록 형상을 한껏 심화시키고있는 것이다.

《잘 있거라. 사랑하는 고국산천아! 내 너를 세상에 보란듯이 빛내주고싶었지만 끝내 이렇게 가는구나! 나는 가도 조선아, 너는 영원히 남아 천세만세 길이 빛나거라!》

바로 이것이 주인공 김정호가 형장의 이슬이 되기 직전에 이 나라 땅덩어리를 통채로 그러안고 고국산천과 영별하는 마당에서 심장으로 되뇌인 절절한 하직인사이다. 무심한 하늘도 이 하직인사에 비분의 눈물을 못참겠다는듯 부실부실 비방울을 뿌리는데 어찌 사람들의 가슴속에 비분과 감동의 눈물이 차고넘치지 않겠는가.

애국자 김정호는 이렇게 갔지만 이 땅에 아로새긴 그 열렬한 애국의 넓은 독자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남아있을것이다. 이처럼 소설은 주인공의 열렬한 애국적인 사상감정을 작품의 최후 장면에서 극적으로 응심깊게 개방함으로써 정서적 여운과 예술적감흥을 더욱 강렬하게 자아내게 하고있다.

장편소설 《김정호》는 이처럼 역사주의적원칙을 잘 구현하고있는 동시에 이미 역사적과거로 된 《어제》의 사실속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에 맞는 애국주의적사상감정을 찾아내고 그것을 진실하게 형상하도록 현대성의 원칙도 옹기 구현하고있다. 그것은 주인공 김정호의 애국적성격가운데서 개인의 명예도,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직 나라와 겨레의 번영을 위하여, 자기스스로 자신의 한생을 바쳐온것과 그 어떤 탄압책동과 회유모략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념과 지조를 지켜온것을 주도적특질로 부각하고있는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뿐만아니라 작가는 주인공의 성격을 리상화하지않고 당시의 역사적조건에 맞게 그 사상적제한

성도 설득력있게 밝혀냄으로써 현대성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충족시켜주고있다. 그 제한성은 주로 의적두령 최일국과의 관계에서 특색있게 형상되고있다. 의적두령은 김정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까짓 산천이나 그러가지고서는 보국안민의 뜻을 성취할수 없으니 량반귀족들과의 싸움에 나서자고 권고하였지만 그는 량반이 밍다고 하여 화적떼노릇을 하며 나라의 역적이 되지 말자고 하는것이다.

그는 이제 실측지도를 만들어 임금님께 올리면 꼭 자기를 장하게 여겨줄것이라고 확신하고있었다.

바로 여기에 봉건충군사상에 기초한 그의 사상적제한성이 있었으며 옥중에 갇혀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다.

주인공의 이러한 성격발전과정은 의적두령과의 옥중대화에서 인상적으로 부각되고있다.

《간신들의 말을 듣고 무죄한 사람을 역적으로 모든 대원군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지. 허지만 나는 후회하고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소. 누가 알아주건말건 이 나라 백성을 위해 무언가를 해놓았다는 공지와 자부심만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테니까!》

《과시 인걸이요! 내 어떤 사람앞에서도 머리 숙인적이 없지만 김형의 고결한 애국충정엔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구려! ...》

그러면서 애국자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드는 량반놈의 세상이 된벼락을 맞을것이라고 단죄하며 끌려나가는 의적두령의 뒤모습을 돌아보며 김정호는 마음속으로 깊이 뉘우치는것이다.

《인걸은 자네일세. 나는 자네처럼 이 무지막지한 세상과 맞설 생각을 못했으니까!》

이 찝막한 내면독백속에 그의 제한성과 깊은 자책이 인상깊게 집약되어있음으로 하여 성격형상의 진실성을 더욱 확고히 담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설은 역사주의적원칙을 지키면서 현대성의 요구를 잘 결합시켜 생활을 옹기 전형화함으로써 주인공 김정호의 애국적성격을 더욱 생동하고 감명깊게 창조할수 있었다.

2

장편소설 《김정호》는 주인공의 일대기를 그 활동년도에 따라 평면적으로 장황하게 엮어나가지 않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이야기를 립체적으로 구성하고있는데 또하나의 형상적특성이 있다.

사실상 대동여지도를 편담과 실측에 기초하여 제작완성해나가는 과정이란 매우 단조로운 생활의 반복과정으로 될것이다. 주인공이 이 나라 방

방곡곡을 편답하는 생활로정을 아무리 특색있게 그린다고 하여도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돌아왔다가는 다시 떠나며, 가는곳마다에서 동일한 지리지도작업을 되풀이하는것을 보여주지 않을수 없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을 구성하는데서 고층과 난점이 있는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생활소재의 특성과 제한성을 고려하여 무엇보다도 각이한 인물들사이의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맺어준데 기초하여 구성을 짜이게 하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리고있다.

작가는 인물선, 사건선, 갈등선 등 구성의 모든 요소들을 빈틈없이 맞물리게 할데 대한 구성원리에 따라 우선 인물관계설정에서 다면성과 짜임새를 보장하게 하였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김정호를 중심으로 하여 안해 정씨와 외동딸 솔매와의 가족관계를 외줄기로 추구하지 않고 3촌이나 4촌동생 덕호와의 인적관계, 최한기와의 두터운 우정관계, 그리고 정호를 남몰래 사랑하던 리선화와의 인정관계 등을 생활적으로 다양하게 맺어놓고있다. 여기에다 의적두령 최일국이나 노마소년과의 극적관계, 김삿갓, 허달삼포수와의 인상깊은 교우관계도 흥미있게 엮어놓고 비변사 김윤과 무역상인 홍천일부자 그리고 운현대감과의 첨예한 갈등관계도 여러모로 얹히게 함으로써 구성의 단조성과 평면성을 극복하도록 하고있다. 그중에서도 리선화와의 상봉, 중도에서 집으로 돌아온 덕호와의 극적관계, 그리고 홀로 남은 외동딸과의 눈물겨운 인정선과 의적두령과의 옥중상봉 등은 생활발전의 중요계기마다에서 구성의 립체성을 담보하는데서 결정적고리로 되고있다. 그뿐아니라 각이한 인물들과의 다양한 인간관계는 당대현실을 여러모로 진실하게 반영하고 주인공의 애국적인 사상감정을 다각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하는데서 튼튼한 생활적기초를 마련해주고있다. 여기서 중요등장인물들은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다면적으로 부각하는데 복종되면서 그 자체성격으로써도 뚜렷한 형상의 묘를 가지도록 설정되어있다. 덕호의 설정만 놓고보아도 그는 김정호의 편답생활과 서울에서의 가정생활을 유기적으로 련결시켜주고있으며 심화시키는 매개자의 역할을 놀게 하고있다. 또한 솔매는 주인공의 인정심리세계를 절절하게 개방하는데 복종되고있는 동시에 아버지의 열렬한 애국충정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애국자의 딸으로써 매우 인상깊게 설정되고있다.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고 아버지의 등을 떠밀어 보낸 다음 생활의 고초를 이겨나가는 과정과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부엌에서 판각련습을 하며

원썬들의 소각책동으로부터 지도와 판각을 지켜내는 솔매의 형상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다음으로 구성의 립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가는 사건조직에서도 평면적인 라렬을 피하고있다.

소설은 이야기거리를 짜고 사건을 전개시켜나감에 있어서 력사적순차성을 따라가며 엮어가지 않고 앞머리를 톱 잘라 굴절시키기도 하고 비약과 함축을 잘 배합함으로써 긴장성과 견인력을 계속 유지해나가도록 구성되고있다. 만일 이 작품의 첫머리를 주인공이 처음 집을 떠날 때부터 시작하였더라면 27년이란 긴 생활로정은 매우 장황하고 지루하게 엮어졌을것이며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설정의 동일한 반복은 피할수 없었을것이다. 작가는 정당하게도 주인공이 벼랑폭대기에서 굴러떨어진 사건을 계기로 영명사에서 불공을 드리고있던 리선화와 20년만에 상봉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함으로써 그의 성격을 더욱 인상적으로 제시할수 있었고 생활을 립체적으로 펼쳐보일수 있게 되었다. 소설은 사연깊은 그들의 상봉을 통하여 지난날의 잊지 못할 청춘시절과 10년나마 8도강산을 편답해온 주인공의 생활을 인상적으로 굴절시켜 보여줄수 있었으며 깊은 정서적정황속에 주인공을 둘러싸 각이한 인물들의 인간관계와 그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집약하여 개방할수있었다. 또한 주인공의 27년간에 걸친 생활로정 역시 4장과 5장사이에 10년간의 비약을 주고 금강산과 백두산에 대한 편답과정에 모를 박고 형상을 집중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생활의 평면적인 반복라렬을 피하게 하고있다. 더우기 후반에 가서는 대동여지도를 완성하는 과정에 그를 모해하는 간신들의 음모책동,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장면에 대한 밀도있는 형상을 통하여 주인공의 웅심깊은 애국적사상감정을 극적으로 부각하도록 구성을 립체적으로 마무리하고있다.

이와 함께 이 작품은 구성에서 한장면의 생활과 하나의 세부설정을 통해서도 과거와 현재의 생활을 다같이 깊이 생각하게 하며 인간성격의 전모가 드러나도록 하고있다. 그것은 제1장 선화와의 상봉장면에서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뿐만아니라 앞으로의 생활까지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으며 제8장의 옥중생활과 최후장면에서 주인공의 성격적전모가 웅심깊게 드러나도록 생활을 극적으로 조직하고있는데서도 잘 표현되고있다. 또한 주인공이 집을 떠날 때 우물을 파고 세식구의 모습을 언제나 그려볼수 있도록 대추나무와 함께 향나무와 오동나무를 심어놓는 생활세부의 설정 등은 가족들의 성격과

가정생활의 전모까지 상징적으로 부각할수 있게 세심한 구성작업을 하였다것을 단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그리고 작가는 구성의 일관한 께임새를 보장하기 위해서 작품의 전반부에 등장한 리선화와 최일국의 생활선을 주인공의 운명선을 따라가며 중요계기마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리도록 설정하고있으며 최후장면에서는 그들이 필연적으로 등장하지 않을수 없게 사건을 조직하고있다.

덕호를 매개로 하는 홍천일과의 갈등관계 역시 주인공의 운명선을 따라가며 매우 생활적으로 심화발전되도록 조직되고있으며 운현대감과의 갈등관계는 역전의 수법을 배합하여 조직됨으로써 긴장성을 더욱 강렬하게 촉발하게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주인공이 운현대감을 직접 만나서 일생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대동여지도를 울리고 치하까지 받았으니 이젠 평생소원이 성취되리라는 기대를 주었다가 홍천일놈의 책동으로 뒤집히도록 구성함으로써 극성을 더욱 강화하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이 소설은 극히 단조로운 생활의 반복과정으로 엮어질 우려가 농후한 생활소재를 가지고도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면 구성의 립체성을 능히 담보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밖에도 이 작품은 당대의 사회제도와 경제형편, 룬리도덕과 생활풍습 등도 방불하게 그려볼수있도록 언어형상과 생활묘사에서 력사적구체성을 띠고있는데 대하여 응당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이 소설은 주인공 김정호의 열렬한 애국주의적사상감정을 립체적인 구성속에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고있음으로 하여 력사소설창작에서 일련의 긍정적인 시사를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우리 인민들의 높은 사상미학적수준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부분적인 결함을 내포하고있다.

우선 주인공의 성격형상에서 일부 시대감이 부족한 요소들이 발로되고있다는것을 지적해야 하겠다. 물론 김정호는 열렬한 조국애와 불타는 파

학탐구의 열정을 안고 지리지도학을 연구하고 지도제작에 자기 한생을 다 바쳐온 애국자이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전문적인 과학연구기관에서 일해온 사람은 아닌것이다. 그런데 소설에서 주인공은 마치도 현대의 과학연구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처럼 형상되고있는 대목들이 없지 않다. 이것은 주로 최한기와의 과학론담과정과 언어형상에서 시대감을 잘 살리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또한 작품의 형상구성체계에서 아직도 반복감을 주는 생활설정의 흔적들이 일부 남아있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단적으로 두번씩이나 호환을 당하는 생활을 반복하여 설정하고있는것이라든지 김윤을 비롯한 봉건관료배들과의 갈등설정에서 처음부터 마감까지 그 대결의 양상이 비슷하고 직선적이며 반복감을 주고있는것을 들수 있다. 덕호를 가운데놓고 엮여지는 홍천일과의 갈등관계도 뚜렷한 변화발전없이 엮여지고있는것 같다. 따라서 덕호의 성격형상도 류사한 정황속에서 담보하고있는듯한 감을 주고있다. 사실상 덕호가 홍천일의 아들놈을 통해서 놈들의 내막을 알았다면 도차지노릇을 계속할수 없으며 만일 필요에 의해서 도차지로 남아있어야 한다면 그만한 생활적타당성이 안받침되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충분한 근거도 없이 현상유지를 하고있기때문에 그의 개변과정에 대하여 응당한 공감을 가질수 없다.

끝으로 주인공을 비롯한 중요인물들의 내면심리세계를 보다 다면적으로 깊이있게 개방하도록 언어의 형상성과 묘사의 심도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게 된다. 지금은 일부장면에서 아직도 심리분석을 깊이있게 못하고있으며 묘사에서 평면성을 완전히 탈피 못하고있기때문에 더 줄수 있는 예술적감흥도 불려일으키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점은 이 작품이 이룩한 형상적성과에 결정적훼손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하여 우리 나라 력사소설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게 되며 이 작가의 앞으로의 창작에서 큰 기대를 가지게 된다.

길성포의 노래

권래여

길성포

강반에 안개 내리니
버들가지 축축이 젖고
포구에 배고동 울리니
물새 푸드득 날아오르누나

시절이 봄이어서
긴 강둑에 꽃향기 풍기고
물이 맑아 물우에
송이구름 헤엄치누나

갈대 묶어 불달아 들고
갈게 잡던 어린 시절
발목에 감기던 갈뿌리
언제 다 삭아버렸느냐

밀물 썰물에
옷자락 누렇게 물들던 강반
출렁이는 은물결이
세월의 앙금을 다 씻어갔구나

날바다 가로막아
갑문을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
이름없던 강하 한줄기에도

사랑의 맑은물을 채워주셨나니

서해라 바다가 포구들
물이 되어 그 이름 지워졌어도
바다 먼 도시 복판에
시원히 열린 길성포여

땅우엔 기적소리 경적소리
내 고향엔 길이 많아도 길이 모자란듯
물길 열어 배 띄우니
에돌던 남포길도 지척이구나

가고오는
꽃배 짐배
행복의 재부 실어나르니
화선장 물가엔 웃음소리 높구나

아 운하의 도시 록음의 도시
경암호와 잇닿은 길성포 길성포
이 배길로 수령님 오실것만 같아
물머리 숙이고 기다리는 포구
내 고향의 진주물결이여

방울소리

방울소리
방울소리 ...
낙시줄에 앉았던 고추잠자리
튀긴듯이 날아나네

팽팽한 낙시줄을 당기며
큰놈 물렸다 소리치는통에
입에 물었던 낙시군의 물주리
첨벙 물우에 떨어지네

오가던 걸음 다 멈춰세우는
낙시터의 한낮
구경군의 마음도 줄을 당기니
흰구름이 끌려오네 꽃산이 실려오네

아, 길성포 아름다운 물가에
즐겁게 울리는 방울소리 웃음소리
파장도 없고 거짓말도 없는
낙시터의 유쾌한 정서여

소나기

잔디 푸른 긴 강둑
세상 잊은듯 걷다가
말없이 걷다가
소낙비 만났네 젊음이 한쌍

-어마나 소나기
처녀는 손우산 가리며 방긋 웃네
얼결에 젊음이 저고리 벗어
처녀의 어깨우에 씌워주네

안타까이 더듬던
처녀의 말꼭지 소낙비가 떼준듯
터치고싶던 젊은이의 마음
소낙비가 열어준듯

아, 고향강반의 소낙비
좋은 세월이 내려주는 축복인가
행복에 겨워 손잡고 달리네
숨이 가빠 마주 웃네

은물결

상매천 원주천
경암호 길성포
은물결 띠처럼 두른
물우의 도시 운하의 도시여

돌개바람에
먼지구름 치솟아
밥상머리에 모래알이 날아들었다던
그 옛날의 도시

땅이 낮아져 물이 고였느냐
세월의 물사태가 강하를 열었느냐
마른 목 추길 물이 그림던고장에
옛말하며 출렁이는 물결이여

경암산 저 마루에 오르시여
아버이수령님 그날에 그리시던 풍치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름다운 화폭으로 펼쳐주셨나니

불어불어 오르는 갑문의 호심에
물길을 잇대여주신 그 사랑

은모래 반짝이는 백사장을 펼쳤구나
내 집 창문가에 배고동소리 울려주누나

남포 산다는 친정집 어머니
유람선 타고 나들이 온다고
꽃양산 펼쳐든 애기어머니
기다리는 그 모습 물우에 흔들리고

집채같은 기계를 싣고
대안에서 떠나왔다는 수송선
봄비는 계선장에 닦을 내리니
선장의 앞가슴에 꽃다발이 날아드누나

아, 꽃피는 생활의 화폭을
물우에 고이 엮은 관문도시의 풍치여
은물결우에 등실 떠실린
락원의 도시 내 고향의 모습이여

젊어지는 세월에
젊어지는 강산에
생활의 향취를 가득히 비껴담고
홀려 영원할 사랑의 강하 향토의 거울이여

《소조림》

류희갑

하늘가에 아지 꺾고
푸른 잎새 설레이며
이땅이 벌을 지켜
눈서리와 모진 바람 억세게 막아선
그 이름도 정다운 푸른 숲 《소조림》아,

언제부터나
너 이 기슭에 뿌리내리기 시작한것은
어느해 그 어느 봄날부터나
이 벌을 파물아가던 사나운 계절풍도
우리의 소조원들이 길들였다는
시대의 새 전설 여기 태어난것은

마주서면 창공에 나래펼친 아지들도
해를 향해 활짝 핀 푸른 잎새들도
끝없이 끊임없이 속삭이누나
소조원들이 이 숲을 심었다고
3대혁명전위들이 이 숲을 가꿨다고

속삭이누나
아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 받들고
첫 파견장 안고 달려왔던 혁명전위들이 이 숲을
가꿨다고
그날부터 마을사람들
이 숲을 《소조림》이라 부른다고...
말을 하누나
안아가꾼 저 벌도 말하누나
다스려온 산천도 자랑겨워 말하누나
소조원들이 이 벌을 살지웠다고
소조원들이 이 산천을 자래웠다고...

아, 들려온다
저 푸른 《소조림》의 설레이는
주체의 진리를 심장마다 심어주며

이 땅의 마음들을 가꾸고 키우느라 잠을 잊던
그네들의 불같은 열정의 목소리인듯

보여온다
그 모진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바람막이숲의 저 푸른 기상은
활력에 넘친 그네들의 의젓한 모습
슬기와 용맹, 무비의 담력을 지닌
그네들의 의젓한 몸가짐인듯

3년 또 3년
교대와 교대를 이으며
소조원들은 이 벌에 오고 또 갔다
정을 두고, 천금같은 마음을 여기 두고
그들은 오고 또 갔다
공산주의문어구에 잇닿은 지평선우에
붉은 해돋이를 부르며
3대혁명력사의 빛나는 장을 대지우에 새기며

오, 《소조림》
3대혁명시대와 더불어
이 땅, 이 벌에 새로 태어난 새 이름이여
너는 이 벌에 남기고 간
그네들의 뜨거운 마음
그네들의 살뜰한 정
너는 이 벌에 두고 간 그네들의 거세인 숨결

아, 너는 그네들의 불타는 심장이
대지우에 세운
3대혁명의 천연기념비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이
우리 식 걸음을 견게 해준
시대의 발자국이구나